
예술대학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2022. 07



문화체육관광부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예술대학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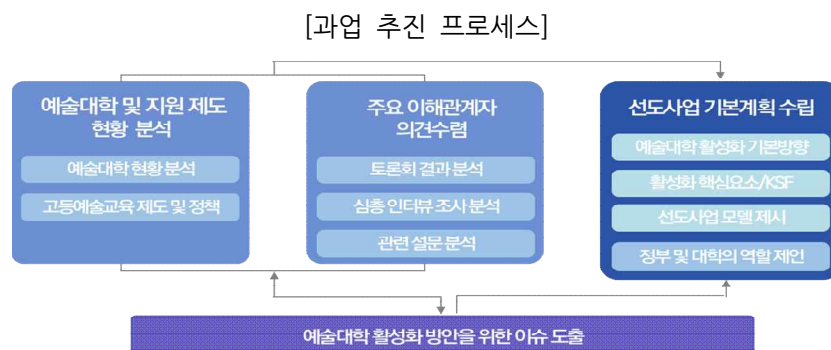
2022년 07월

(주)메타기획컨설팅 대표이사 이 승 훈

연구 요약

□ 연구개요

- (배경) 한국의 예비예술인은 일반적으로 예술대학을 통해 성장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예술인들의 성장관 역할을 해야 할 예술대학이 여러 요인으로 인해 예비예술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비판받고 있으며, 예비예술인들이 예술학교를 통해 배출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 한국 문화예술계의 경쟁력 저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해서 이어져 옴
- (목적)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대학을 예비예술인들의 성장 및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기관이자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문화예술계의 중요한 현장으로 바라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유한 역할을 구상하게 됨
 - 예술대학과 문화예술계 현장 모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등예술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예술대학을 활성화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범위) 공간적 범위는 전국 예술대학과 그와 연계된 문화예술 현장이며, 시간적 범위는 2022년, 사업 기간은 본 과업을 통해 제시함



□ [현황분석 및 선행자료조사]

- 설립 근거별, 학제별, 지역별, 학생(입학정원, 입학생, 재적학생 수, 졸업생) 및 전임교원, 학과 수 등 예술대학 현황을 분석
- 고등예술교육 관련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제도와 정책 및 인문사회, 이공계열 등 다른 계열의 인재양성정책 등을 조사, 분석
- 2021년에 진행된 ‘예술대학 살리기 연속 토론회’ 자료를 통해 예술대학/예비예술인 정책 이슈를 확인함

□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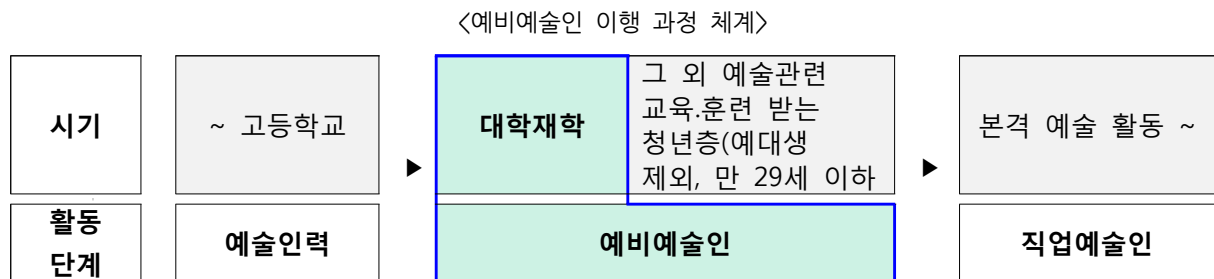
- 예술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졸업생 포함), 재직 중인 교직원 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응답자 수: 567명
- 조사 기간: 2022년 06월 21일 ~ 06월 27일
- 조사 방법: 웹 조사
 - * 예술대학 구성원들에게 직접 문자 혹은 이메일을 통해 웹 링크를 전달하여 이용자들이 직접 웹 링크를 통해 조사에 참여,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
- 조사내용: 예술대학 현황 및 교육환경 진단, 예술대학생의 창·제작 활동, 예술대학생의 성장경로별 사회진출 지원, 예술대학 교·강사 지원, 고등예술교육 및 예술대학의 미래에 대한 부문으로 분류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구성하여 설문을 수행함

□ [심층 인터뷰]

- 예술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예술대학 교육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 인터뷰 대상: 지역별, 장르별, 구성원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 2회와 심층 인터뷰 4회로 나눠서 진행
- 인터뷰 기간: 2022/03/23 ~ 2022/05/30
- 인터뷰 방법: 개별 및 그룹 심층 인터뷰 등 조사대상에 따라 다각적 방법 활용
- 인터뷰 내용: 예술대학 살리기 연속 토론회에 참여한 예술대학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통해 정책 이슈를 점검하였으며, 예술대학 구성원 중에서 교수와 강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예술대학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방향성과 핵심요소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안을 확인함

□ 예술대학 활성화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 예술대학 활성화 기본방향 : 전문적인 예술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예비예술인 이행 과정이 필요
- 예술대학생(예비예술인)의 역량 향상(창·제작 및 현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함
- 예술대학 차원에서 대학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전략/장치가 병행되어야 함
- 정부(문화체육관광부)차원에서는 예술대학 지원 정책에 일시적/단속적 지원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장기적 과제로 추진되어야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예술대학 혁신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예술계열지원 특별법(가제) 제정: 예술대학 진흥을 위한 최초의 법률로서 고등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가 되며,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예비예술인을 육성하며 문화예술계 인력으로 활용을 촉진하며 국가 문화 예술 현장의 경쟁력을 향상
- 예술대학 실태조사 정례화: 전국 예술대학 교육환경을 파악하여 고등예술교육 기초 통계를 확보하고, 학생들의 진로 추적을 통한 경력 경로를 확인하여 예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정책 추진

○ 예술대학(예비예술인)창·제작 현장 연계 지원

- 현장 연계 창·제작(프로덕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예술대학 내 학습 과정과 창·제작 활동을 창·제작-유통-홍보와 연계하는 프로덕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 예술대학(예비예술인) 졸업작품 제작 및 활동 지원: 졸업작품 지원을 통해 예술대학 학생과 졸업생(졸업한 지 3년 이내)의 사회진출을 지원

○ 지역사회 현장 연계 문화매개 인력양성 지원

- 지역사회 연계 캠퍼스 예술인턴십 지원: 지역사회 내 예술 특성화 분야 일자리 지원을 통해 예술대학/예비예술인과 지역을 연결하는 기회를 확대
- 예술매개 블렌디드 과정 지원: 외부 문화예술기관과 협약을 통해 온라인수업 콘텐츠를 제공받고, 이를 예술대학 정규 교육과정에서 블렌디드 러닝 (Blended Learning) 방식의 수업에 활용하며 문화예술 분야 매개인력을 양성

○ 고등예술교육 특화 자원(인적/공간/장비) 지속적 투자 협력

- [매칭형] 고등예술교육을 위한 특화 시설 개선 지원: 예술대학과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기관, 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창·제작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 지원
- 예술대학(예비예술인)수업 및 창·제작 활동을 위한 장비 공유: 예술대학 수업 및 창·제작 활동을 위한 장비를 구비하고 자유롭게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 예술대학의 교육 커리큘럼 혁신 지속과 적용

- 예술교육혁신연구소 설립 지원: 교육혁신연구소 설립을 통해 예술대학의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체계를 지원
- 캡스톤 프로그램 지원: 산학연계 창·제작 수업 활성화를 위한 캡스톤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지원

○ 예술대학X예비예술인 성장 지원사업 추진 로드맵

-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 계획안 및 예산 규모 제시

목차

I.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1 연구 배경	2
1.2 연구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2.1 연구 범위	3
2.2 연구 방법	3
3. 연구 추진 프로세스	5

II. 예술대학 현황 및 고등예술교육 관련 제도·정책 조사

1. 고등예술교육의 정의	8
1.1 고등예술교육 정의	8
1.2 예술대학 유형	9
2. 예술대학 현황	10
2.1 설립 근거별 현황	12
2.2 학제별 현황	13
2.3 지역별 현황	13
2.4 학생 및 전임교원, 학과수 현황	14
3. 고등예술교육 관련 제도 및 정책	18
3.1 문화체육관광부	18
3.1.1 문화체육관광부 법·제도 현황	18
3.1.2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 현황	19
3.2 교육부	23
3.2.1 교육부 법·제도 현황	23
3.2.2 교육부 지원사업 현황	25
4. 타 계열 인재양성정책 및 법·제도	30
4.1 이공계열	30
4.2 인문사회계열	33
4.3 체육계열	35
5. 종합 시사점	36

Ⅲ. 예술대학 구성원 의견 조사 분석

1. 예술대학 교육 여건에 대한 기존 논의	38
1.1 <예술대학 살리기 연속 토론회> 개요	38
1.2 예술대학 현실 진단	38
1.2.1 예술대학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고등예술교육의 위기	38
1.2.2 예술대학 교육환경 문제 및 개선 과제	39
1.2.3 예술대학 구성원별 개선 과제	40
1.3 예술대학의 현장 연계 방안	40
1.4 예술대학 미래를 위한 정책 과제	42
2. 심층 인터뷰(FGI) 분석	45
2.1 사전 인터뷰	45
2.1.1 사전 인터뷰 개요	45
2.1.2 사전 인터뷰 주요 이슈	46
2.2 심층 인터뷰	47
2.2.1 심층 인터뷰 개요	48
2.2.2 심층 인터뷰 주요 이슈	53
2.3 심층 인터뷰 이슈 종합	53
3. 설문조사 분석	55
3.1 설문조사 개요	55
3.2 설문조사 결과 분석	60
4. 종합 시사점	131

Ⅳ. 예술대학 활성화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1. 예술대학 현황 및 예술대학 구성원 의견 조사 종합 시사점	134
2. 예술대학 활성화 기본방향	135
3. 예술대학 X 예비예술인 성장 지원사업 구상	137
3.1 예술대학 혁신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137
3.2 예술대학(예비예술인)의 창·제작 현장 연계 지원	141
3.3 지역사회 현장 연계 지원	146
3.4 고등예술교육 특화 자원(인적/공간/장비) 지속적 투자 협력	153
3.5 예술대학의 교육커리큘럼 혁신 지속과 적용	158
3.6 예술대학 X 예비예술인 성장 지원사업 추진 계획	162

I.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 추진 프로세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 배경

- 한국의 예비예술인은 일반적으로 예술대학을 통해 성장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예술인들의 성장판 역할을 해야 할 예술대학이 여러 요인으로 인해 예비예술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비판받고 있으며, 예비예술인들이 예술학교를 통해 배출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 한국 문화예술계의 경쟁력 저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해서 이어져 옴
- 2019년 코로나가 사회문화의 비대면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며, 문화예술계와 예술교육 현장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예술 위치 및 예술가의 지위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이런 상황에서 시대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예술대학의 근대적인 방식의 교육환경이 예술대학 구성원들로부터 공론화되며 예술대학이 처한 현실 진단과 정부 지원정책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예술대학 살리기 온라인 연속 토론회’가 실시됨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대학 체질 개선을 위한 예술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정부는 예비예술인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창작·발표·교류 공간을 대폭 확대하는 문화 정책을 발표하게 됨. 이 과정에서 예술대학과 문화예술계 현장을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확인함. 이에 따라 고등예술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술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예비예술인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예술대학 교육 활성화 선도사업’을 위한 본 연구가 시작됨

1.2 연구 목적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대학을 예비예술인들의 성장 및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기관이자 중장기적으로 한국 문화예술계의 중요한 현장으로 바라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유한 역할을 구상하게 됨
- 예술대학과 문화예술계 현장 모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등예술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예술대학을 활성화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에 예술대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선도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현장과 연계된 예비예술인을 양성하고, 예술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연구 범위

- 본 연구는 예술대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전국 예술대학의 현황 분석, 문화예술생태계 현장과 연계된 예술대학/예술대학생의 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시간적 범위는 현재의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에 추진해갈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사업을 설계하는 것으로 미래지향적인 결과물 도출을 목표로 함. 내용적 범위는 예술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유한 정책 방향을 목표로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선도사업을 통해 예술대학 혁신을 위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포함됨. 기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예술대학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사업을 살펴보고 예술대학/예비예술인 지원방안을 모색해보며, 이를 가능케 할 법제도 개선, 물리적인 인프라 개선/보완 및 구축, 교육과정 혁신, 현장 연계 방안 등 추진 전략을 포함함

범위 구분	내용
공간적 범위	전국 예술대학 및 연계된 문화예술계 현장
시간적 범위	현재 예술대학 현실 진단/현황 분석 및 미래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 제안
대상적 범위	예술대학 교육 활성화 방향 및 전략
내용적 범위	예술대학 현황 및 고등예술교육 관련 제도·정책 조사 예술대학 구성원과 관계자 의견 수렴 예술대학 활성화를 위한 연구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등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대학의 역할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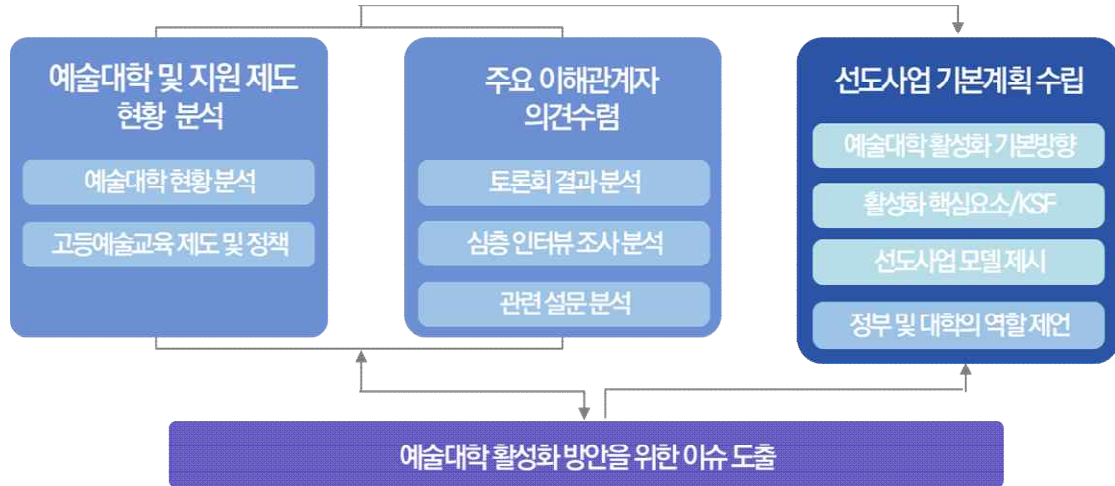
2.2 연구 방법

- 연구 방법은 크게 문헌 조사(literature review)와 사례 조사(case study), 구성원과 관계자 심층 인터뷰(focus interview), 설문 조사(survey)로 나누어 진행하였음. 연구 방법은 조사 내용의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였으며, 참고한 자료와 연구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전국 예술대학 현황 분석을 위해 대학알리미와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고등교육 예체능계열 통계 자료를 사용하였고, 예술대학 운영에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였음
- 2021년에 4차례 진행된 예술대학 살리기 국회토론회 결과자료집을 예술대학 현황 진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고, 기획에 참여한 교수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며 연구의 진행 방향과 이슈를 점검하는 자리를 가짐. 그 이외에 예술대학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살펴보고 주요 이슈를 확인하는 데 참고하였음
- 예술대학 내부 현황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며, 지역별/학제별/전공별 특수성과 지역 여건을 확인하고, 문화예술계 현장과 연계된 예술대학의 운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심층 인터뷰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그룹 별로 서로 간 공통된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실효성 높은 예술대학 지원사업 방안 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누며 문제의식을 구체화해 나감

- 이를 바탕으로 예술대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설문 조사를 설계해서 전국 예술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를 실행함. 설문 조사는 웹 조사(CAWI-Computer Aided Web Interview)를 활용했으며, 심층 인터뷰 참여자, 예술대학 네트워크 회원, 전국 예술대학 학생과 교원 등 약 567명에게 직접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웹 링크를 전달하여 이용자들이 직접 웹 링크를 통해 조사에 참여하게 함
- 위 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 및 종합 시사점을 도출하여 예술대학 활성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예술대학X예비예술인 성장을 위한 선도사업 방안을 제시함. 예술대학생의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창·제작 협력 교육과정과 졸업작품 및 졸업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현장 진출, 지역 문화예술기관과 인턴십을 통한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사회진출 경로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제시하였음

3. 연구 추진 프로세스



[step1] 현황 분석

- ◆ 예술대학 현황 분석
 - 예술대학 현황(설립근거별/학제별/지역별)
 - 예술대학 학생(입학정원/입학자/재적학생 수/졸업자) 및 전임교원, 학과수 현황
- ◆ 고등예술교육 관련 제도 및 정책(문헌/자료조사)
 - 정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정책 및 제도
 - 고등교육 타 계열 인재양성정책 및 제도

[step2] 예술대학 구성원과 관계자 의견 조사

- ◆ 심층 인터뷰(FGI) 분석
 - 예술대학 살리기 토론회 기획에 참여한 예술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슈 도출 및 사전 심층 인터뷰 조사 분석
 - 수도권 및 지방 소재, 전임 및 비전임 교원, 재학생과 졸업생 등 예술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조사 분석
- ◆ 설문조사 분석
 - 예술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예술대학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설문 조사 수행 및 분석

[step3]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사업 제안

- ◆ 예술대학 활성화 기본방향

- ◆ 예술대학 X 예비예술인 성장 지원사업
 - 예술대학 혁신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 예비예술인과 현장의 접속·연결 기회 확대
 - 예술대학 특화 자원(인적/공간/장비) 협력 투자
 - 예술대학 교육과정 혁신 지속과 적용

II. 예술대학 현황 및 고등예술교육 관련 제도·정책 조사

1. 고등예술교육의 정의
2. 예술대학 현황
3. 고등예술교육 관련 제도 및 정책
4. 타 계열 인재양성정책 및 법·제도
5. 종합시사점

1. 고등예술교육의 정의

- 고등예술교육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예술계열 교육과정으로서, 일반대학 예술대학과 예술전공으로만 구성된 예술특성화대학, 국립예술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로 구분해볼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제외하고, 85% 이상의 예술대학이 일반대학에 소속되어 있어,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의 지원과 관리를 받고 있음

1.1 고등예술교육 정의

- 국내 고등교육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언급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와 같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함. 이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은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수여함. 일반적으로 전문학사 2~3년, 학사 4~6년, 석사 2년 이상, 박사 2년 이상이며, 이는 전공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고등교육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5대 계열로 분류되고, 고등예술교육은 체육계열과 함께 예체능계열로 분류되며, 대분류 예체능계열에서 중분류/소분류 체육계열을 제외하고 등록된 학과를 말함

[표 2-1] 예체능계열 표준분류체계 (기준 : 대학알리미)

중분류	소분류
무용·체육	무용, 체육, N.C.E.
연극·영화	연극, 영화, 방송 연예, N.C.E.
미술	공예, 디자인, 순수미술, 응용미술, 미술학, N.C.E.
음악	작곡, 성악, 기악, 국악, 실용음악, 음악학, N.C.E.
응용예술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예술, 음향, N.C.E.
교육	중등예술·체육교육, N.C.E.
N.C.E.	뷰티아트, N.C.E.

※N.C.E : 달리 분류되지 않는 (Not Classified Elsewhere)학과의 분류를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대학정보공시제도¹⁾에 따라 ‘대학알리미(2022년 3월 기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학교의 예술계열 학과와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술계열의 통계 자료를 사용함

1)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운영 상황 및 교육·연구 여건에 관한 주요정보를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탑재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시행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에 따라 운영됨.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취업률, 경쟁률, 장학금 등 14개 분야, 62개 항목, 101개 세부항목의 최근 3년간 공시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1.2 예술대학 유형

- ◆ 국내 예술대학은 일반대학에 소속된 예술대학과 예술전공으로만 구성된 예술특성화 대학, 국립예술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로 구분해볼 수 있음
- ◆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제외하고, 85% 이상의 예술대학이 일반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의 지원과 관리를 받고 있음

가. 일반대학의 예술대학

- ◆ 국내 예술대학은 1950년 전후에 생겨난 종합대학 형태의 일반대학 내에 개설된 예술학과로 역사를 시작함
- ◆ 일반대학 예술대학은 미술대학, 음악대학 등 단과대학 체제나 영상학부, 조형디자인학부 등 학부 체제에 소속된 예술학과를 통칭해서 말함
- ◆ 2022년 3월 기준, 전국 예술대학의 85% 이상이 일반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며, 예술대학이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일반대학의 지원, 관리 기준에 적용되는 근거가 작동됨
- ◆ 일반대학에서는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며, 이론 및 심화 교육과정을 통해 학문의 영역에서 예술을 탐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음

나. 예술특성화 대학

- ◆ 예술특성화 대학은 예술학과로만 구성된 전공을 운영하는 대학으로서, 1962년 서울예술대학교, 1973년 추계예술대학교, 1993년 계원예술대학교, 1997년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등이 설립됨. 연극, 미술, 문학 등과 같은 ‘순수예술’과 방송, 디자인 등과 같은 ‘실용예술’이 특화된 학교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 ◆ 예술특성화 대학은 전국에 총 9개가 있음
 - 4년제 일반대학 : 대구예술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 2~3년제 전문대학 : 계원예술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다. 한국예술종합학교

-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국립예술대학으로서 1990년 세계적인 국립예술대학 설립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되었고, 1991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1993년 음악원 개원을 시작으로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이 개원하며 예술 실기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임
-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있으며,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받지 않고,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예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책정되며, 관리 사업 부서가 있음

2. 예술대학 현황

- 전국 예술대학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약 294개로 추정되며, 사립 비중이 85% 이상 차지하고 수도권에 40%가량이 밀집된 것이 확인됨
- 2012년부터 10년간 고등교육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계열에서 입학정원, 입학자, 재적학생 수, 졸업자 모두 감소추세를 보이며 인문사회계열이 가장 큰 감소 폭이 확인됨. 예술계열도 감소 폭이 컸으며, 특히 전임교원 지표에서 전체계열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이 확인됨

- 2022년 3월 기준으로 국내 예술대학은 294개, 학과 수는 4,265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과정 포함)²⁾으로 파악됨³⁾
 - 예술학과로만 구성된 예술특성화 대학으로는 계원예술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총 9개가 있음
 - 아래 대학은 본교와 분교/캠퍼스별로 구분해서 분류함³⁾

[표 2-2] 전국 예술대학 현황 (2022년 3월 기준) ※출처 : 대학알리미

구분	대학명	개수
대학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	가야대학교(김해),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일대학교, 경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신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김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기독교대학교,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송실대학교, 신경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 인하대학교, 장	159

2) 예술대학 수는 대학알리미 2022년 3월 기준 자료, 대학알리미 자료로는 학과 수를 파악하기 어려워 학과 수는 교육통계서비스 2021년 기준 자료를 사용

3) 가톨릭대학교(서울, 경기), 경기대학교(서울, 경기), 경동대학교(경기, 강원), 경북대학교(대구, 경북), 경희대학교(서울, 경기), 단국대학교(경기, 충남), 대구가톨릭대학교(대구, 경북), 명지대학교(서울, 경기), 백석대학교(서울, 충남), 상명대학교(서울, 충남), 안양대학교(인천, 경기), 영남대학교(대구, 경북), 예원예술대학교(경기, 전북), 전남대학교(광주, 전남), 중앙대학교(서울, 경기), 홍익대학교(서울, 세종), 건국대(서울, 글로컬), 동국대(서울, 제주), 연세대(서울, 미래), 한양대(서울, ERICA)

	로희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원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주교육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충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칼빈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홍익대학교	
전문대학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북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장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벽성대학,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선린대학교, 성심외국어대학,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교, 호산대학교	103
기능대학	한국폴리텍 I 대학 서울정수캠퍼스, 한국폴리텍 I 대학 제주캠퍼스, 한국폴리텍 II 대학 인천캠퍼스, 한국폴리텍 IV 대학 대전캠퍼스, 한국폴리텍 IV 대학 아산캠퍼스, 한국폴리텍 VI 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6
사이버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국제사이버대학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송실사이버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화신사이버대학교	14
각종학교	순복음총회신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2
산업대학	청운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호원대학교	3
대학원대학	경안대학원대학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온석대학원대학교	7

- 예술계열은 전문대학 과정과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 전공 분류법의 소계열 항목에서 차이가 있음. 전문대학 과정에서는 '뷰티아트' 계열이 있으며,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서는 중계열 '미술, 음악' 계열에서 전문대학 과정보다 계열이 세분된 특징을 가짐
- 전문대학의 소계열 항목은 디자인(산업디자인/시각디자인/패션디자인/기타디자인), 응용예술(공예/사진·만화/영상·예술/뷰티아트), 무용·체육(무용/체육), 미술·조형(미술/조형), 연극·영화(연극·영화), 음악(음악/음향)등으로 분류됨
- 대학, 대학원의 소계열 항목은 디자인(디자인 일반/산업디자인/시각디자인/패션디자인/기타디자인), 응용예술(공예/사진·만화/영상·예술), 무용·체육(무용/체육), 미술·조형(순수미술/응용미술/조형), 연극·영화(연극·영화), 음악(음악학/국악/기악/성악/작곡/기타 음악) 등으로 분류됨

2.1 설립 근거별 현황

- 설립 근거별 예술대학은 국립 37개, 공립 5개, 사립 250개로서 사립의 비중이 전체 예술대학에서 약 85%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⁴⁾

[표 2-3] 설립 근거별 예술대학 현황 (출처: 대학알리미)

구분	근거법령	학교 구분	학교 수	국립	공립	사립
고등 교육 법	고등교육법(제2조)	대학교	158	34	1	123
		산업대학	3	0	0	3
		전문대학	103	1	4	98
		사이버대학	14	0	0	14
		각종학교	1	0	0	1
	고등교육법(제30조)	대학원대학	7	0	0	7
소계			286	35	5	246
그 밖에 다른 법률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제1조)	한국예술종합학교	1	1	0	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제1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	1	0	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9조)	한국폴리텍대학	6	0	0	6
소계			8	2	0	6
합계			294	37	5	252

4) 본교와 분교, 부설 대학원(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은 1개교로 분류함. 예) 홍익대(서울), 홍익대(세종), 홍익대 디자인대학원을 구별하지 않고, 홍익대학교로 분류

2.2 학제별 현황

- 학제별 예술대학은 대학 171개, 전문대학 109개, 대학원이 265개, 대학원대학 7개로 집계됨

[표 2-4] 학제별 예술대학 현황 (출처: 대학알리미)

구분	학교 구분	학교 수	국립	공립	사립
대학	대학교	152	26	1	125
	산업대학	3	0	0	3
	사이버대학(대학)	14	0	0	14
	각종학교(대학)	2	1	0	1
전문대학	전문대학	103	1	4	98
	기능대학	6	0	0	6
대학원	일반대학원	121	26	1	94
	전문대학원	19	5	1	13
	특수대학원	125	29	1	95
대학원대학	대학원대학	7	0	0	7

2.3 지역별 현황

- 지역별 예술대학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학교 수가 전체 비율에서 127개로서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5] 지역별 예술대학 현황 (출처: 대학알리미)

구분	국립	공립	사립	국립 대법인	특별법 국립	소계
서울	2	1	56	1	1	61
부산	3	0	19	0	0	22
대구	1	0	11	0	0	12
인천	1	0	8	1	0	10
광주	1	0	10	0	0	11
대전	2	0	11	0	0	13
울산	0	0	1	0	0	1
세종	0	0	2	0	0	2
경기	2	0	54	0	0	56
강원	3	0	11	0	0	14
충북	4	1	11	0	0	16

구분	국립	공립	사립	국립 대법인	특별법 국립	소계
충남	2	1	16	0	1	20
전북	3	0	14	0	0	17
전남	3	1	10	0	0	14
경북	2	0	20	0	0	22
경남	4	1	10	0	0	15
제주	1	0	4	0	0	5
합계	34	5	268	2	2	311

2.4 학생(입학정원, 입학자, 재적학생 수, 졸업자) 및 전임교원, 학과수 현황

-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등교육계열의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예술대학은 그 변화의 폭이 타 계열에 비해 크다고 예측됐음. 10년간 예술대학 입학정원, 입학자, 재적학생수, 졸업자 및 전임교원, 학과수 현황의 양적 수치를 통해 학제 기준으로 실제적인 변화를 살펴봄⁵⁾
- 전체계열에서 모두 감소 폭이 있었으며 인문사회계열에서 가장 큰 감소폭이 있었음. 예술계열도 전체계열 감소 폭의 평균보다 낮음

[표 2-6] 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 산출식 기준

- 재적학생수 : 재학생, 휴학생, 학사학위취득 유예생 포함
 - 학과수 : 재적학생수가 1명 이상인 학과 기준 (폐과된 학과 중 존치기간 내의 학과 포함)
 - 전임교원수 : 총(학)장 및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수입. 휴직자 포함, 퇴직자 제외
 - 학제 구분
 - 전문대학 과정 : 전문대학, 전공대학, 기능대학, 기술대학(전문대학과정), 각종학교(전문대학과정), 사이버대학(전문대학과정),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전문대학과정),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전문대학과정)
 - 대학 과정 : 일반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대학과정), 사이버대학(대학과정),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대학과정),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대학과정)
 - 대학원 과정 : 대학원대학, 대학부설대학원
 - 입학자 : 해당연도 3월 입학자,
 - 졸업자 : 해당연도 2월 및 전년도 8월 졸업자 대상
- ※ 학과의 계열 구분은 학과(전공)분류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른 기준을 사용함

5)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012년, 2016년, 2021년 고등교육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과정 자료를 사용해서 비교분석 하였음

가. 입학정원 수의 변화

- 2012년 고등교육 전체계열(인문, 사회, 공학, 자연, 의학, 교육, 예체능) 전문대학과 대학의 입학정원은 663,435명이고, 10년 후인 2021년에는 578,201명으로 12.85% 감소하였음
- 인문사회계열은 19.57% 감소, 이공계열은 7.5% 감소, 예술계열은 17.06% 감소하였음
- 인문사회계열에서 가장 큰 감소폭이 있었지만, 예술계열도 전체계열 평균치보다 낮은 감소폭을 보이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영향을 입학정원 감소폭으로 드러냄. 특히, 2016년에는 타 계열과 달리 대학과정의 입학정원이 오히려 증가하는 점은 특징적임

[표 2-7] 전체계열 입학정원 변화 추이 (2012, 2016, 2021)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구분	2012년		2016년		2021년	
	전문대학	대학	전문대학	대학	전문대학	대학
전체	224,648	438,787	194,089	418,280	173,091	405,110
인문계열	8,470	76,065	6,285	74,864	4,767	66,034
사회계열	61,713	118,787	49,482	105,877	39,755	102,606
공학계열	58,130	90,232	53,680	91,362	45,905	95,855
자연계열	16,835	51,777	13,986	48,089	13,765	45,183
예술계열	35,076	36,471	32,344	43,200	27,714	31,630

나. 입학자 수의 변화

- 2012년 고등교육 전체계열(인문, 사회, 공학, 자연, 의학, 교육, 예체능) 전문대학과 대학, 대학원의 입학자 수는 817,142명이고, 2021년 697,318명으로 14.66% 감소하였음
- 인문사회계열 22.31% 감소, 이공계열은 9.24% 감소, 예술계열은 14.14% 감소하였음

[표 2-8] 전체계열 입학자 변화 추이 (2012, 2016, 2021)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구분	2012년			2016년			2021년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전체	255,640	435,386	126,116	226,272	403,283	126,972	183,004	383,382	130,932
인문계열	9,392	67,091	16,745	6,946	57,363	17,743	4,262	51,034	17,085
사회계열	70,170	118,236	34,286	57,099	109,331	33,803	39,278	97,763	36,013
공학계열	66,326	96,461	21,507	61,932	93,928	22,448	46,744	100,661	25,617
자연계열	18,266	51,201	11,547	15,873	45,081	12,012	14,442	41,009	12,309
예술계열	37,811	36,139	7,645	36,582	44,380	9,119	29,253	32,142	8,666

다. 재적학생 수의 변화

- 2012년 고등교육 전체계열(인문, 사회, 공학, 자연, 의학, 교육, 예체능) 전문대학과 대학, 대학원 재적학생수는 3,728,802명이고, 2021년 3,201,561명으로 14.14% 감소하였음
- 인문사회계열은 22.74% 감소, 이공계열은 9.3% 감소, 예술계열은 10.6% 감소하였음

[표 2-9] 전체계열 재적학생수 변화 추이 (2012, 2016, 2021)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구분	2012년			2016년			2021년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전체	814,644	2,584,614	329,544	746,269	2,437,570	332,768	623,460	2,250,686	327,415
인문계열	26,327	388,740	45,052	20,280	344,561	48,371	13,726	286,301	47,317
사회계열	197,852	764,242	86,976	167,369	689,525	85,589	122,393	608,755	87,553
공학계열	257,005	608,181	50,512	238,230	593,418	54,365	190,336	603,567	57,553
자연계열	57,125	291,037	27,551	51,775	274,614	29,104	45,417	245,482	29,009
예술계열	112,605	186,844	19,878	113,486	244,055	23,669	86,197	176,710	22,566

라. 졸업자 수의 변화

- 2012년 고등교육 전체계열(인문, 사회, 공학, 자연, 의학, 교육, 예체능) 전문대학과 대학, 대학원 졸업자 수는 665,057명이고, 2021년 656,237명으로 1.33% 감소하였음
- 인문사회계열이 9.89% 감소, 이공계열이 6.12% 증가, 예술계열은 2.23% 감소하였음

[표 2-10] 전체계열 졸업자 변화 추이 (2012, 2016, 2021)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구분	2012년			2016년			2021년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전체	199,783	370,266	95,008	192,847	396,900	95,342	177,974	381,813	96,450
인문계열	7,882	51,068	11,318	6,356	56,141	12,301	4,768	48,937	12,989
사회계열	60,780	113,141	25,854	52,055	116,352	26,074	41,307	107,536	26,792
공학계열	47,114	80,525	17,266	48,362	85,999	17,108	49,095	90,335	17,762
자연계열	13,697	39,974	8,935	13,850	44,672	8,946	13,277	40,703	9,046
예술계열	28,937	29,019	4,664	32,655	40,026	6,006	24,891	30,650	5,682

마. 전임교원 수의 변화

- 2012년 고등교육 전체계열(인문, 사회, 공학, 자연, 의학, 교육, 예체능) 전문대학과 대학, 대학원 전임교원 수는 84,544명이고, 2021년 90,040명으로 1.33% 증가하였음.
- 인문사회계열은 1.54% 감소, 이공계열은 12.59% 증가, 예술계열은 3.36% 감소하였음
-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계열에 따라 인문사회 25명, 자연과학 및 공학 20명, 예체능 20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임교원 확보현황은 대학의 교육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서,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으면 외부 시간제 강사의 비중이 높아지게 됨
- 예술계열의 경우 타 계열보다 전임교원 수가 10년 사이 감소한 것이 교원 임용의 열악한 조건을 나타내는 문제인지, 예술계열 특수성에 기인한 현상과 연계한 비전임 교원 수의 증가 때문인지 확인이 필요함

[표 2-11] 전체계열 전임교원 변화 추이 (2012, 2016, 2021)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구분	2012년			2016년			2021년		
과정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전체	14,051	63,828	6,665	13,858	67,232	8,942	13,014	69,334	7,692
인문계열	596	10,340	723	433	10,441	827	312	10,387	858
사회계열	3,224	10,909	1,709	2,923	11,998	1,707	2,464	11,324	1,733
공학계열	3,966	13,094	514	3,837	14,374	1,220	3,555	15,201	1,599
자연계열	909	8,082	364	877	7,990	1,029	892	7,846	1,227
예술계열	2,068	4,197	192	2,243	5,571	256	1,861	4,138	241

바. 학과수의 변화

- 2012년 고등교육 전체계열(인문, 사회, 공학, 자연, 의학, 교육, 예체능) 전문대학과 대학, 대학원의 학과 수는 34,496개이고, 10년 후인 2021년에는 34,720개로 0.65% 증가하였음
- 인문사회계열은 0.38% 감소, 이공계열은 2.45% 증가, 예술계열은 2.51% 감소하였음
- 예술계열은 전체계열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예술대학이 구조조정 우선순위 대상으로 학과 통폐합이 진행되었음이 확인됨

[표 2-12] 전체계열 학과수 변화 추이 (2012, 2016, 2021)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구분	2012년			2016년			2021년		
과정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전체	6,898	12,610	14,988	6,448	12,496	15,346	6,343	12,862	15,515
인문계열	306	1,714	1,921	240	1,710	2,010	210	1,721	2,047
사회계열	1,966	2,945	3,310	1,767	2,890	3,493	1,644	2,959	3,535
공학계열	1,914	2,903	3,268	1,759	2,837	3,324	1,885	3,153	3,399
자연계열	459	1,810	2,089	469	1,753	2,104	527	1,706	2,078
예술계열	1,382	1,770	1,223	1,285	1,801	1,265	1,149	1,852	1,264

3. 고등예술교육 관련 제도 및 정책

- ◆ 국내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초중고등학교 대상 및 생애주기별에 따른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법령 제정, 실태조사, 부처 협력을 통한 공동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학교예술교육 대상에서 고등예술교육이 제외되어 있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사업 중 부분적으로 참여 가능한 점 등 고등예술교육 지원 제도 및 정책에 있어 한계점이 확인됨

3.1 문화체육관광부

3.1.1 문화체육관광부 법·제도 현황

- ◆ 문화예술정책 상위법인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인력 양성 조항이 존재하나 고등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은 없음
- 「문화기본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에 제정된 문화 분야의 상위법으로서 기능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1972년에 제정되고 1995년에 개정됨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인력양성 관련 내용>

문화기본법 제10조(문화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국가 차원의 문화예술교육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지원법률로서,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 추진하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음. 해당 법률은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으로 나뉘어 있는데,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에서 고등예술교육 과정은 포함되지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이를 통해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법 제5조 제2항)
- ‘학교 문화예술교육’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

육이며, '사회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을 말함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내용〉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 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 ◆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계획한 「문화비전 2030」, 「새예술정책」에서는 예술대학 진흥 및 예술대학생 지원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발표됨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문화예술 분야 중장기 계획인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에서 ‘청년예술가들의 직업훈련’, ‘직업개발을 통한 안정적 사회진출’, ‘신진예술가의 보호와 지원’을 주요 과제로 채택하고 있고, 2018~2022년 5년간의 예술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새 예술정책」에서 ‘예술대학 경쟁 강화방안’으로 내용을 발표함
- 2022년도 110대 국정과제에서 예비예술인의 체계적 양성을 목표로 선언함. 그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함
- ◆ 한국예술종합학교 지원 및 관리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교육부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위탁하고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관련한 전담 부서를 두고 지원 관리하고 있음

3.1.2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 현황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예술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하고,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현장과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있음

[표 2-1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대학 관련 주요 사업

사업	내용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주말예술캠퍼스 프로그램	국내 예술대학의 연구진과 교육 강사가 협력하여 통합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기획,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예비/신규 문화예술교육사에게 현장 경험과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문성과 다양한 특성을 지닌 차별화 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지원함
학교예술 강사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및 특수학교, 대안학교를 포함한 학교에 예술 강사를 배치해 8개 분야(국악·무용·연극·영화·만화·애니메이션·공예·사진·디자인)에 대한 예술교육을 지원하며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예술인들의 예술 창작활동과 교육 활동을 병행하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서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충북), 순천향대학교 문화예술교육연구소(충남),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단(서울), 인하대학교 산학 협력단(인천), 한남대학교 산학 협력단(대전, 세종), 성결대학교 산학 협력단(경기)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음
문화예술교육 예비인력 역량 강화 연수	대학(원)생의 시각으로 일선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제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활동을 기획해보며, 강의자-연수생 간 네트워킹을 경험해볼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차세대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과 무대기술인력 양성 사업, 문화예술매개 인력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표 2-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사업	내용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는 지원사업 사각지대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생애 첫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안정적 예술현장 진입 유도 및 창작환경의 불안정성 해소하고 청년예술가 간 협업 예술 활동 기회 확대, 창작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 작품 준비단계 및 도전적 시행착오 지원을 통한 예술의 다양성 확보,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거주 및 활동 중인 청년예술가 선정 우대하고 있음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통합적인 차세대 예술가 지원사업으로, 만 39세 이하 차세대 예술가의 창작 및 기획 역량을 높이고, 소재 확장과 아이디어 실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
청년예술가국제교류지원	청년예술가의 국제 교류를 위한 사전 조사 단계부터 글로벌 예술 창작 및 발표까지,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의 활동 영역을 국제무대로 확장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

무대기술 인턴십 지원	무대 기계·장치, 무대조명, 무대 음향, 무대 영상 등 무대기술 분야에 입직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인력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 무대기술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공연장이 선발한 인력에게 약 1개월간의 온·오프라인 교육과 소정의 교육참가비를 제공하며, 교육 수료 후 해당 공연장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7개월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음
아르코문화예술전문가코스	예술인력(기획, 경영, 행정) 교육에 대한 단계별, 경로별 체계화 및 제도화를 통해 예비인력 및 종사자들의 경력개발 비전 제공하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하여 문화예술 분야 진입 예비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하는 사업

-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전 분야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미래산업으로 조명받고 있는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위한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융복합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에서 신기술 및 미디어 분야의 예술대학, 기관과 기업이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음

[표 2-15]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재양성사업 및 예술대학 참여 사례

사업	내용 및 예술대학 참여 사례
콘텐츠원캠퍼스 구축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콘텐츠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기술개발과 교육 활동 지원을 통한 고급 R&D 인력 및 현장 실무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문화예술(공연, 미술 등) 단체·기관과 대학·연구소의 첨단기술과 예술융합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분야 고급 현장 실무 연구·개발 인력 양성하는 사업 - 2019년 한국예술종합학교는 VR 등 첨단 미디어의 창·제작 R&D 센터인 '뉴미디어 아트 앤 테크놀로지 센터'와 산학 협력형 통합 교과과정 운용을 통해 첨단 콘텐츠 연구와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메타버스 구축과 관련된 첨단 콘텐츠 허수아비를 제작하고 선도 인력양성을 목표로 진행함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술·과학 융합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공연, 미술 등) 단체·기관과 대학·연구소의 융합 프로젝트(첨단기술 R&D+예술)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분야의 현장 실무 인력 양성하는 사업 - 2021년 서경대학교 공연예술대학은 연구기관인 (주)알마로코와 (주)날다팩토리와 함께 디지털 트윈기술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과 ICT의 결합과 융합을 통해 공연예술의 확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며, 관련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함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 양성 사업 (문화기술 선도 대학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콘텐츠와 첨단기술을 결합한 대학원 중심의 기술개발 및 교육 운영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 문화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 - 2021년 중앙대학교 예술공학대학과 첨단영상대학원은 버추얼 프로덕션 회사인 (주)모팩과 머신러닝 기반의 디지털 휴먼 제작 기술을 버추얼 프로덕션 솔루션과

	융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공지능연구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버추얼 프로덕션 기반 메타버스 콘텐츠 R&D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버추얼 프로덕션 기반 콘텐츠를 제작함
--	--

- ♦ 20개 광역시·도의 문화재단에서는 지역 청년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유형에 따라 창작지원, 활동지원, 창작기반지원, 창업지원, 연구교육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청년 정책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문화예술계에서도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이 등장하게 되었고, 2017년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단 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 문화재단 등에서 청년예술인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문화 정책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청년예술가가 등장했지만, 아직은 나이를 기준으로 한 자격요건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앞으로 청년예술가에 대한 세분화된 사업으로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임

<2021년 경기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예술대학생 관련 사업 추진 내용>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은 예술대학생 당사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기존 지역형 청년예술사업을 고도화시킨 <문화 LAB> 사업을 2021년부터 시작했음. 선정자 중 50%가 예술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공공에서 학생들을 주요한 정책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음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과 동아방송예술대학교는 창의적인 문화콘텐츠 제작 및 경기도 청년예술인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발굴을 공동 추진하기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2021년에 체결함.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인프라와 동아방송예술대학교의 예술교육 및 방송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을 통해 시너지를 기대하며,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도내 예술인의 활동을 경험하고 청년예술인의 시작을 지원함

- 2021년 부산문화재단은 '부산광역시 예술인 실태조사'를 수행하면서 부산지역 예술대학 재학생 460명 대상으로 「부산 예비예술인 실태조사」를 추가 진행하였음. 「부산광역시 예술인 실태조사」는 부산지역 예술인의 활동실태를 파악하고 2030 부산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기초 자료로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예술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진행함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계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 권익 보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내 관련 부서 (취업지원팀, 학생지원센터 등) 및 단과대학 등도 신청 지원 가능함
- 계약·저작권·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예술인의 서면계약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실무 대응능력을 높이고, 직업 세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계약문화 전반에 대한 기본 교육함. 또한 '문화예술계 성 평등·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예술계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 평등 인식 교육도 진행하고 있음

3.2 교육부

3.2.1 교육부 법·제도 현황

- 교육부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년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 선정을 통해 대학의 정원 유연화, 재정지원, 규제혁신을 위한 적정 규모화를 지원을 결정함
- 고등예술교육과정이 대부분 일반대학에 소속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예술대학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정책은 교육부의 고등교육 제도와 평가체계에서 결정되고 관리되고 있음
-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예술대학은 취업률 지표를 제외하는 예외 조항으로 평가를 받음

가.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근거가 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 고등예술교육 과정은 대부분 일반대학에 소속되어 있어서 현재는 교육부의 고등교육제도에서 평가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대학을 등급별로 평가하는 제도로써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입학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평가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 및 재정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데 근거로 활용되는 기준과 정부재정지원사업의 평가 기준이 됨. 이 진단에 따라서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 특수목적 재정지원,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의 기준이 결정되며, 2015년에 처음 시작되어 3년마다 진행되고 있음
-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예술대학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전공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평가지표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옴. 2021년 진단에서 예술학과는 취업률을 제외하고 평가를 받게 되어 계원예술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가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됨

[그림 2-1]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따른 재정지원 가능 범위 (출처 : 대학역량진단센터 홈페이지)

대학 구분		일반재정지원 (대학혁신지원사업)	특수목적 재정지원 (국가, 지자체)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2021년 진단	참여대학			
	선정 대학 (일반재정지원대학)	지원	신청 가능	지원
	미선정 대학	제한	신청 가능	지원
	미참여 대학	제한	일부 제한*/**	지원
진단 참여 자격 제한 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제한	제한	제한

- 2021년에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전에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부터 진행했으며, 예술대학 특수성을 고려한 지표 체계가 마련되어 예술대학 평가에 사용됨.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체 학과구성에서 예술학과가 50% 이상인 학과를 예술대학 평가지표 대상으로 기준을 설정했으며,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종교·예체능계열로 교육부에 사유서를 제출한 학교를 대상으로 예술대학 기준을 설정에 참고함

- 예체능계 대학 등은 그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제외되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대학과 별도 최소 기준('이외 대학' 최소기준의 80%)을 적용하고 매년 최소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2023년 평가 시에는 동일 기준을 적용하게 됨. 2023년 이후에는 취업률을 제외하고 일반 전공과 동일한 평가를 받게 됨

[표 2-16]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평가지표 및 최소기준 (출처: 대학역량진단센터 홈페이지)

구분		대학		전문대학	
		일반대학	(종교계·예체능계)	전문대학	(예체능계)
교육 여건	교육비환원율	127	102	117	94
	전임교원확보율	68	55	54	44
교육 성과	신입생충원율	97	78	90	72
	재학생충원율	86	69	82	66
	졸업생취업률	56	(제외)	61	(제외)
행·재정 책무성	법인 책무성 (법정부담금 부담률, 법인전입금 비율 中 1)	10	8	5	4
	(별도) 대학 책무성	부정·비리 사안 제재, 정원감축 권고 이행 여부 등 페널티			

※ 종교계·예체능계열 학과 위주로 구성된 대학의 최소기준은 (전문)대학 최소기준의 80% 수준에서 설정

나. 예술 체육계열 우수인재 국가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 국내 4년제 대학 예술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1, 3학년을 대상으로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학기당 250만 원)를 지원하는 정부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2022년 기준 예술 체육계열 440여 명 내외가 선정되었음. 인문계열 장학금인 '인문100년 장학금'이 1500명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등록금 수혜에 있어 형평성 고려가 필요해 보임

다. 초중고 학교예술교육 정책과 연계

- 교육부는 학교-지역 협력을 통한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강화를 목표로 매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있음. 기본계획에는 예술대학과 협력하는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술대학 인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의 성격을 가짐

[표 2-17] 2021년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중 예술대학 관련 내용 (출처 : 교육부)

과제 2. 정서적 결손 극복을 위한 학생 예술 활동 기회 확대

②예술 심화 교육 기회 확대

- (예술중점학교) 학생의 예술 심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예술 중점학교 운영 확대 및 일반 학교 연계 추진

- 필수이수 단위 유연화와 함께 인근 중·고 및 예술고, 대학, 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중점형·거점형·위탁형 등으로 운영
- (교육 기부 거점대학) 3개 권역별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청-학교-지역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맞춤형 교육 기부 추진

◁ 교육 기부 거점대학 운영(안) ▷

- (우수 대학동아리 교육 기부) 분야별 대학생 우수 동아리를 발굴하고, 권역 내 학교와 매칭을 하여 학교 여건 및 학생 수요 맞춤형 학교예술교육 지원※ 농어촌, 도심 공동화 지역 등 문화 소외지역 학교와의 매칭 우선 추진
- (진로 체험·탐색 프로그램) 지역의 특색 있는 예술자원을 활용하여 권역 내수준 높은 진로 탐색·체험 프로그램 운영
 - ※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체험 행사, 명사 강의, 토크콘서트 등 운영
- (지역 예술자원 발굴·활용) 개인 교육기부자 발굴,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활동 지원
 - ※ 지역 예술교육협의체(교육지원청), 지역문화 예술교육지원센터(문화재단) 등과 협력 강화

3.2.2 교육부 지원사업 현황

-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독자적인 예술대학 지원 사업은 없음. 예술대학이 보조받는 주 재정 지원사업은 학자금지원사업이고, 각 대학의 역량에 따라서 일반지원사업과 경상운영비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지원받고 있음
- 예술계열도 지원할 수 있게 설계한 인문사회계열 지원사업, 초중고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타계열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하는 공유대학 사업, 기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예술대학이 컨소시엄 사업에서 보조 역할에 머무르거나, 다른 계열 대학과 선정과정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해 미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함. 예술대학 특수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함

[표 2-18] 예술대학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수혜 사례 (※출처: 대학알리미, 2021년 기준)

구분	사업명	지원부처	사업유형
예술대학 A (수도권, 사립, 4년제)	개인기초연구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지원사업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사업	교육부	학자금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_사립대수업료등국고보조	국가보훈처	학자금지원사업
	사립대학강사처우개선사업	교육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한국장학재단출연사업	교육부	학자금지원사업
예술대학 B	국립대학시설확충사업	교육부	학자금지원사업

(수도권, 사립, 2-3년제)	대학온라인강의지원사업	교육부	일반지원사업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사업	교육부	학자금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_사립대수업료등국고보조	국가보훈처	학자금지원사업
	사립대학강사처우개선사업	교육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교육부	일반지원사업
	창업생태계기반구축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일반지원사업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일반지원사업
	콘텐츠산업생태계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일반지원사업
	학교기업지원사업	교육부	학자금지원사업
	한국장학재단출연사업	교육부	학자금지원사업
예술대학 C (지방, 사립, 2-3년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교육부	학자금지원사업
	민간경상 보조사업_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 보조	국가보훈처	학자금지원사업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	교육부	학자금지원사업

가. 인문사회계열 지원사업, BK21+사업

◆ 사업개요

- BK21+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사, 박사과정생 및 신진연구인력(박사후연구원 및 계약 교수)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등교육 인력양성 사업으로서 1999년에 시작한 이후 1단계(1999-2005), 2단계(2006-2012), 3단계(2013-2020) 사업을 거쳐 현재 4단계(2020-2027) 사업임
- 2020년 9월부터 진행되는 4단계 사업에서 사업 유형은 미래인재 양성 사업, 혁신 인재양성사업, 대학원 혁신 사업으로 구성되고, 지원 기간은 7년, 지원 규모는 4,080억 원, 68개 대학의 562개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해서 지원 중

◆ 예술계열 지원 사례

- 4차 산업혁명과 기술 진보에 따른 교육·연구의 변화로 인해 학제 간 교육과 융·복합 연구에 기반한 창의적 혁신적 인재가 요구되고 있음. BK21+사업에서는 디자인·영상 분야를 별도의 사업으로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음
- 디자인·영상 분야는 대학원생의 전시회·공모전·창작 등 지표 비중을 강화하여 실용적인 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함. 참여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대학원생 전시회/공모전(입상)/영화제 환산 창작 건수)과 대학원생 전시회/공모전(입상)/영화제 창작(수상) 실적의 우수성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평가지표를 운영 중

[표 2-19] 미래기반 창의인재 양성형 사업단-인문사회 분야-디자인/영상 평가지표 (출처: BK21플러스 사업백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교육역량 (128점)	교육 비전 및 목표 (15점)	■ 교육 비전 및 목표의 우수성과 구체성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28점)	■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의 우수성 (글로벌 수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교육계획 포함) ■ 학사관리제도 및 수준의 우수성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방안 (33점)	■ 대학원생 확보·배출 및 지원 계획 ■ 대학원생 취업률 현황 및 진로 개발 계획 (취업률, 취업의 질적 우수성, 취업지도/진로 개발 등)
	대학원생 연구역량 (30점)	■ 최근 3년간 대학원생 1인당 연구 실적 (국내외 논문 및 저서 편수, 전시회/영화제 창작 편수, 논문/창작의 질적 우수성,) ■ 대학원생 학술 활동 지원 계획의 우수성 ■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계획
	교육의 국제화 전략 (22점)	■ 학과 구성원의 다양성 (외국인 교수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 ■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연구역량 (127점)	사업단의 연구전망 및 달성 전략 (17점)	■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비전 ■ 연구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연구진 구성의 우수성 (7점)	■ 참여 연구진 구성의 우수성
	연구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21점)	■ 참여교수의 국제 학술 및 연구 활동 참여 실적 ■ 국제화 전략 및 계획의 우수성
	참여교수 연구역량 (82점)	■ 최근 3년간 참여교수 1인당 연구비 수주실적 ■ 최근 3년간 참여교수 1인당 논문/창작 실적 (국내외 논문 및 저서 편수, 전시회/영화제 창작 편수, 논문/창작의 질적 우수성, 저명학술지 우수 논문 향상 계획) ■ 기타연구(수상실적, 산학 협력 등)의 우수성
대학(원) 제도개선 및 지원 (45점)	전략과 비전 (11점)	■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비전 및 전략 ■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체제 구축 ■ 대학원 재정투자 실적 및 계획의 구체성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시스템 개선 방안 (27점)	■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시스템 구성의 우수성 ■ 세계수준의 교육/연구 여건 및 개선 계획 ■ 대학원생 장학지원프로그램 ■ 연구윤리 확보 계획
	사업단 지원 및 육성 (7점)	■ 선정 사업단 지원 및 육성 계획의 우수성

나. 다른 대학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하는 공유대학 사업

- 공유대학은 여러 대학에 흩어져 있는 교육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산업체·연구기관·학회·민간기관 등이 참여하여 국가 수준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협력체계를 구축을 목표로 진행됨
- 2021년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이 시작되었으며, 계원예술대학교가 실감 미디어 분야의 참여대학으로 선정되어 실감 미디어 분야 창의융합 가상캠퍼스 디자인 및 실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다. 초중고 학교예술교육과 연계한 사업

- ‘체육 예술교육 기부 거점대학’은 지역의 예술·체육교육 인프라 구축 목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육 기부 대학생, 예술인, 생활체육인 및 기업 등을 발굴·육성하는 사업단으로서 2021~2022년도는 충청·강원권은 상지대학교, 경상권은 한동대학교, 전라·제주권은 전북대학교가 참여하고 있음
- ‘꿈다리 사다리 학교’ 사업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음악)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미술)이 위탁기관으로 참여함

라. 기타

-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기조인 대학 강점 분야 특성화와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에 맞춰 재정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예술대학은 각자 역량과 의지에 맞춰서 사업에 신청하여 참여하고 있음
- 예술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산학 협력방식과 융복합 방향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혁신을 실험하고 있음. 기초예술교육과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점에서 섬세한 고려가 필요함

[표 2-20] 교육부 대학 지원 사업 및 예술대학 참여 사례

교육부 사업	사업 내용 및 예술대학 참여 사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최대 재정지원사업인 특성화 전문대학 지원사업은 사회·산업 수요 기반 특성화를 통해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 계원예술대학교⁶⁾는 디자인 예술특성화대학으로서, 디자인 산업 혁신 인재(D-innovator) 양성을 목표로 사업에 참여했으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가치 창출 역량을 가진’ 디자이너를 양성과정을 운영함
사회 맞춤형 산학 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산학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서, 대학의 교원·인사제도 개선, 산학 협력 친화적 문화 확산 등 대학의 체질을 산학 협력 친화적으로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함. 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사회 맞춤형 학과 등 산학연계 교육과정을 확산하여 대학생의 취창업 역량을 높이고 산업체의 인재 확보를 목표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도 이바지함 - 동서대학교⁷⁾는 문화콘텐츠 분야를 특화해서 사회 맞춤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사업에 참여함. 사업단의 지원을 받은 뮤지컬 <가야의 노래>에서는 뮤지컬 학과는 배역을 담당하고, 디지털콘텐츠 학부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기술을 활용해 무대 미술을 담당하고, 패션디자인학과는 무대의상을 담당하며 대학 프로덕션 시스템을 통해 뮤지컬을 제작해서 선보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지방대학이 지자체-지방 소재 공공기관-산업계와 협력하여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 지원으로 지속할 수 있는 지역발전 여건 조성을 위하여 2019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역발전의 핵심주체인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가 관련 진무 역량, 특성을 분석하고 협업을 통해 운영 모형 개발 및 지원하고 있음 - 부산권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⁸⁾에서 진행하는 영화 영상 분야는 선도대학인 부산대학교와 협력대학으로 부경대학교와 동의대학교가 함께하고,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문화와 예술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영상처리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영화 영상 IT 융합 전공을 개설하였음.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영화의 전당 등 영화 관련 인프라 및 산업을 구축하고 있는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영화, 미디어 학과들이 협력해서 공동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를 목표로 진행함

6) 출처 : 계원예대 디자인 산업 혁신 인재양성, 2016 SCK 사업선정, 이데일리, 2016.6.17

7) 출처 : 동서대 교수와 학생들 만든 창작 뮤지컬 ‘가야의 노래’, 부산일보, 2019.10.30.

8) 출처 : 부산권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BRC 영화영상트랙 대학 간 융합전공 공동교육과정 개발 연구” 결과보고서, 2022

4. 타 계열 인재양성정책 및 법·제도

- ◆ 인문사회, 이공계열 등은 관련 정부 부처에서 인재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고등교육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 「학술진흥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이 법률을 통하여 각 계열의 현장과 고등교육을 연관지어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으로 연결되고 있음

4.1 이공계열

- ◆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정을 통해 이공계열 기초연구 지원 기반을 마련함
 - 이공계열은 1978년부터 기초연구를 지원해왔으며, 1980년대 중반 대부분의 대학이 연구보다는 교육에 편중해서 운영 중인 현실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1989년에 ‘기초과학기술의 원년’을 선포하며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을 제정하였음
 -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은 기초과학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을 측정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력 양성함으로써 과학문화창달과 신기술 창출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짐
 - 2017년 정부는 기초연구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 2022년에는 2017년 대비 2배 이상의 기초연구비 목표를 달성하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위한 물적 기반 마련, 늘어난 연구비와 확립된 지원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향으로 준비함
 - 2022년부터 지역대학 약화, 연구인력 부족 등 기존 지원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발전적 기초연구 생태계 공고화를 목표로 하는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23~2027년)’을 마련함

[표 2-21] 이공계열 인재양성 관련 진흥법

구분	내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기초연구진흥정책 등) 정부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에 다음 각호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학교수, 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2.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3. 연구교수(연구조교를 포함한다)제도, 교수의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 제도의 활용 4. 대학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지원 5. 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연구집단 형성 지원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열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부처의 주요한 정책 과제로 채택하며, 교육부의 이공계열 학술연구지원사업과 별도로 부처 예산으로 인재양성 사업을 진행
- 대학이 핵심기술 분야별 기초원천기술개발 및 관련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연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 연구역량 강화 및 핵심인력 양성 체계 마련을 위한 신규사업 기획 연구’와 전략 분야별 석/박사급 고급 R&D 인재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혁신 인재양성사업’을 운영 중

[표 2-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과학기술 혁신인재양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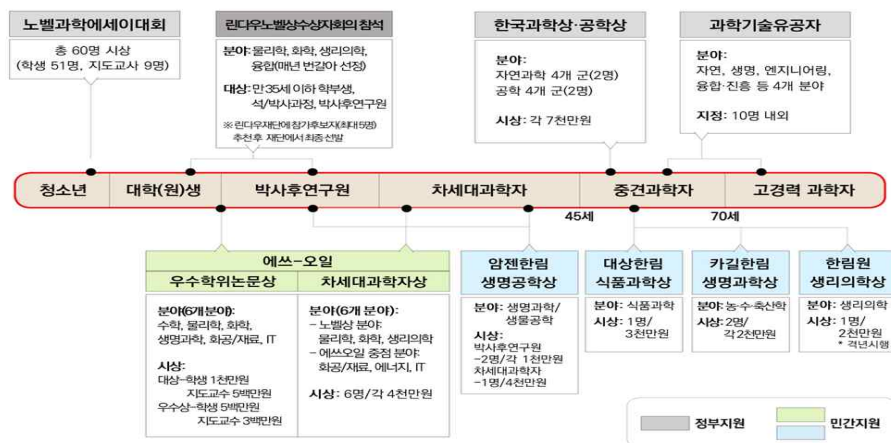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 내용
①데이터사이언스 융합인재양성	데이터사이언스 핵심을 다양한 유망분야에 접목·활용하는 융합인재 양성	(전문인력 양성) T자형 인재양성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설계·운영 및 비즈니스 분야모델을 선도할 수 있는 융합인재 집중 육성
②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조성	폭발적 파급 잠재력을 지닌 양자정보과학 분야에 우수인재가 유입되고 고급인력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성장경로 구축 및 연구 저변 확대	○(체질강화형) 국내 교수급 인력을 대상으로 양자컴퓨팅 분야의 안정적 진입 발판 제공 및 선진적 연구 경험·노하우 축적 등 연구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리더급 연구자로 육성 ○(양성센터) 양자기술 최고급(박사급) 전문인재 양성을 통한 국내 양자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③우주분야 전문인력양성 (미래우주교육센터)	산·학·연 컨소시엄 기반으로, 기존 상식을 뛰어넘어 미래 우주분야 문제를 해결하고 신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문인력 양성	대학교육·연구전담조직(연구센터등)을 구성(기존 조직 가능), 우주기술과 다학제적 지식을 기반으로 미래우주기술 연구 수행, 미래우주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 실시 등
④육해공무인이동체 혁신인재양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무인이동체 개발을 위한 혁신인재 양성	임무 기반 융복합 무인이동체 시스템 설계·제작·실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혁신적 고등전문인력 및 실무형 산업현장인력 양성을 지원
⑤기후기술인재양성 시범사업	탄소중립 기술수요(EU 탄소국경세, 2050 탄소중립 선언 등)를 이해하여 기후난제를 해결할 과학기술적 대안을 제시하는 전략가형 과학인재양성	기후기술 유관정책 이해 기반의 R&D 기획(준비) 및 R&D 수행(수행)의 압축적 교육과정을 통해 대상인재의 전주기 역량 배양

<p>⑥가속기인력양성 및 활용지원</p>	<p>대학원 중심의 강의/실습교육과 대형가속기 현장실습을 연계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우수한 연구역량을 갖춘 가속기 전문인력 양성</p>	<p>대학원 중심의 전문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가속기분야 석사 및 박사 등 인력양성 지원 박사후인력, 인력양성사업 배출인력 등에 대형가속기 현장연수를 통해 대형가속기 구축·운영 실무 투입이 가능한 전문가육성</p>
<p>⑦감염병연구 전문인력양성</p>	<p>국내 백신 개발 및 신변종 감염병 연구 관련 민간 기업·대학 등의 높아진 연구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및 산업 현장형 인력 육성 보급</p>	<p>국내 연구 및 산업 현장에서 신·변종 감염병 분야 연구를 수행할 전문연구 인력 및 생물안전시설 활용 연구서비스 인력양성</p>

◆ 과학자 생애주기별 시상사업 플랫폼 구축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과학기술인 전 생애에 걸친 체계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장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진흥과 국제적 위상 강화, 과학인재 유입 및 단계적 상생을 위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2020년부터 각종 시상사업을 정비하여 ‘과학기술자 생애주기별 시상사업 플랫폼’을 운영중
- 각 단계(생애주기)별 맞춤형 시상을 통해, 청소년기부터 고경력 과학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성장 지원함

[그림 2-2]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자 생애주기별 시상사업 구조



4.2 인문사회계열

- ♦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음
- 2010년대 이후 인문사회 전공 학과 및 입학정원 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공학 계열 중심의 구조 조정 현상이 심화하는 교육환경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옴
- 인문사회 분야의 안정적인 연구 교육 기반 조성에 관한 국회 청원을 (1996년) “인문학 제주 선언” (2001년) “2001 인문학 선언” (2006년) “인문학 선언문” (2020년) 진행하며 인문사회계열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음
- ♦ 2016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인문학법)」을 제정하여 학술연구지원의 기반 마련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인문학법에 따라 5년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 문화 진흥 기본계획’ 제1차(2017-2021)와 제2차(2022-2026)를 발표, 특히 제2차 계획에서는 교육부에서 인문학 진흥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문정신문화 진흥계획을 수립하며 두 중앙 부처가 협력하여 인문학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음

[표 2-23] 2022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출처: 교육부)

지원영역 지원유형	인문사회 기초연구	인문학 · 사회과학		한국학	
1. 개인연구	◆ 학문후속세대 (학술연구교수)				
	◆ 신진 · 중견연구자, 우수학자 지원 ◆ 명저번역 및 저술 · 출판		◆ 고전문헌 국역지원 ◆ 한국학대형기획총서		
	◆ 일반 공동연구 (2인 이상)				
2. 집단연구	◆ 인문사회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		◆ K-학술확산연구소 ◆ 해외한국학	
		사회과학연구(SSK)			
3. 기반구축	인문학대중화	학술단체지원	우수학술도서	학술자원공동 관리체계	연구윤리

♦ 인문학 인재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성장경로별 지원정책 마련

- 교육부는 대학생, 학문 후속세대, 전문연구자로 구분하여 성장경로별 정책을 마련하여 재원을 지원하고 있음

[표 2-24] 제2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2022-2026) 성장경로별 지원내용

대상	지원내용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인문사회계열 우수학생의 안정적 학업을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 ※인문 100년 장학금 : '22년 총 3,773명에게 276억 원 지원
학문 후속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우수 인문학 연구자 양성을 위해 학문 후속세대들의 안정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비 지원 - 인문학 분야에서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석 박사급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 4단계 BK21 사업 : 2022년 인문사회 분야 총 120개 교육연구단(팀)에 대해 연간 446억 원 지원, 대학원생 3,332명 참여 및 지원 - 인문학 분야 비전임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기(최대 5년)·단기(1년) 연구비 지원 ※ 인문사회 분야 학문 후속세대 지원사업('20~) : 인문사회 분야 학문 후속세대의 연구 및 교내외 강연·교육 등 학술 관련 활동 지원
전문연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 분야의 우수 연구자를 양성하고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추진 - '신진연구자지원→중견 연구자지원→우수학자지원'으로 이어지는 인문학 분야 전문연구자에 대한 단계별 지원 추진

♦ 대학 부설 연구소의 연구역량 지원

- 인문학 연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 부설 연구소의 육성 및 안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을 관리함
- 사업 성과가 탁월한 인문학 분야 우수 연구소의 장기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지원함

4.3 체육계열

- ♦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 진흥과 관련해서 인재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스포츠산업을 미래 혁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으로서 제3차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2019년~2023년)을 발표하고 추진 중
- 5대 전략 중 4번째로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출’에서 ‘스포츠 융복합 인재양성 및 활용’을 제시함

[표 2-25] 제3차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2019년~2023년)

<p>(스포츠 융·복합 전문대학원 운영 확대) 스포츠 공학·법학·의학 등 스포츠 융·복합 분야 전문대학원 (석사급) 운영을 확대하여 기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 배출 목표로 인력양성 사업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스포츠 융·복합 전문대학원 운영 : 1개 분야 10억 원 (지방비 3억 원 포함) 규모로 지원. 공모로 대학원 선정하며 학기당 약 20명의 석사 신입생 선발 - 스포츠 빅데이터 분석 및 코치, 스포츠 의학 트레이너 과정, 미래기술 선도 전략 등 융·복합 전문과정을 통해 기업 채용 수요가 높은 전문인력으로 양성

5. 종합 시사점

가. 고등예술교육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예술계열 교육과정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 전통문화대학교를 제외하고, 85% 이상의 예술대학이 일반대학에 소속되어 있어,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의 지원과 관리를 받고 있음

- 전국 예술대학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약 294개로 추정되며, 사립 비중이 85% 이상 차지하고 수도권에 40%가량이 밀집된 것이 확인됨

나. 예술계열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전체계열에서 10년간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현상으로 보임

- 2012년부터 10년 동안 고등교육 전체계열의 입학정원, 입학자, 재적학생 수, 졸업자 수는 감소했으며, 인문사회계열 감소 폭이 가장 큰 편으로 확인됨
- 예술계열은 인문사회계열 다음으로 감소 폭이 컸으며, 전문대학이 대학보다 변화에 더 영향을 받았고 대학원은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됨

다. 국내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초·중·고등학교 대상 및 생애주기별에 따른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고등예술교육은 학교예술교육 대상에서 고등예술교육이 제외되어 있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사업 중 부분적으로 참여 가능한 점 등 고등예술교육 지원 제도 및 정책에 있어 한계점이 확인됨

-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뤄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공공지원과 관심이 전문예술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고등교육기관에서는 학생 개인의 역량에 맡겨지며 국가의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성과가 흩어져버리는 괴리가 발생함. 예비예술인이면서 창조산업의 주체인 예술대학 재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졸업 후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고급예술인력양성을 통한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와 연계해야 함

라. 인문사회, 이공계열은 관련 정부 부처에서 인재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고등교육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예술계열도 예비예술인 양성을 위한 법률과 기본계획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이공계열은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인재를 국가 및 해당 분야의 발전을 위한 핵심 역량으로 인식하고 교육부와 협력하거나 자체적으로 인재양성정책 수립을 통해 재정을 마련하고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음
- 예술계열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고등예술교육과 미래 문화산업과 관련성을 인식하고 예비예술인 양성을 위한 고등예술교육진흥법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야 함



Ⅲ. 예술대학 구성원 의견 조사 분석

1. 예술대학 교육 여건에 대한 기존 논의
2. 심층 인터뷰(FGI) 분석
3. 설문 조사 분석
4. 종합 시사점

1. 예술대학 교육 여건에 대한 기존 논의

1.1 <예술대학 살리기 연속토론회> 개요⁹⁾

- ◆ 2017년부터 예술대학 구성원인 학생들은 예술대학의 차등 및 고액 등록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교육환경 등 예술대학 체질 개선을 요구해옴
- 2019년에는 국회 교육희망포럼의 주최로 <예술대학 교육여건 실태와 지원정책 방향> 토론회가 진행되었으나 이후에 진척상황은 없었음. 2020년 코로나 19는 예술대학 등록금의 불합리성과 예술대학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더욱 드러내며 대학의 모순을 폭발시킨 계기가 됨
- ◆ 2021년 예술대학이 처한 위기와 현실을 진단하고, 대학의 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예술대학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 국회 세미나 <예술대학 살리기 연속토론회>가 진행됨
- 이 행사는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예술대학 살리기 교수와 학생 모임 등이 공동 주최함
- 2021년 8월 9일(1차), 8월 23일(2차), 8월 30일(3차), 9월 14일(4차) 총 4차례,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됨
- 예술대학 살리기 연속토론회 결과자료집에서 현재 예술대학의 현황 파악, 이슈 도출 및 개선지점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함

1.2 예술대학 현실 진단

1.2.1 예술대학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고등예술교육의 위기

- ◆ 급변하는 사회문화 환경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기술 혁신으로 인해 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
 -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이 보편화하면서 고등예술교육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 물리적인 공간과 교육방식을 고집했던 근대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예술교육 일부는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그에 맞는 환경을 구축하는 교육과정의 혁신이 불가피해지고 있음
- ◆ 예술대학의 구조조정
 - 2000년대 들어 대학에서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평가체제가 도입되면서 예술대학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음
 - 대학 본부에서도 예술대학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예술대학이 대학 발전이나 정부의 재정 지원사업 선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게 됨에 따라 구조조정에서 우선시되고 있음. 이로 인해 예술대학 구성원들의 심리적 위축과 예술대학 교육여건의 지속적 악화를 초래함
- ◆ 예술현장의 변화
 - 가상현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과학기술혁명과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의 진화에 따른 기술문

9) <예술대학 살리기 연속토론회 자료집> 내용 발췌 재구성 - 예술대학 네트워크 제공

화환경의 변화로 인해 창작 방식의 변화와 융합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이제는 예술 장르나 전공을 심화하는 방식을 고수하기 어렵게 됨

- 대학의 예술교육이 예술산업의 변화 속도를 함께 따라가야 하지만, 다변화되는 동시대 예술의 현장을 학사제도에 반영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음. 새로운 예술가들과 예술자원을 수급해야 하는 예술대학에서 예비예술인이 배출되지 못하면서, 예비예술인의 공급과 수요 사이에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음

1.2.2 예술대학 교육환경 문제 및 개선 과제

가. 교육환경 여건

◆ 근대적 예술교육의 폐쇄적 문화

- 예술계열은 장르 중심의 기능적인 수업과 소수 예술가 양성을 위한 근대식 교과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질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함
- 예술대학 교육은 교수와 학생 간의 도제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학생들은 위계화된 폭력 관계에 노출되는 빈도수가 높으며, 이는 2018년 미투 운동에서 확인이 됨

◆ 등록금 대비 열악한 교육환경

- 고등교육 전체계열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등록금을 기록하지만, 사용 내용이 공유되지 않고 과도한 사비를 지출하게 만드는 교육 현실을 문제 제기함
- 예술대학 특수성에 대한 이해 및 지원 부족으로 인해 기본적인 물리적인 공간과 시설이 노후화되고 투자가 진행되고 있지 못함
- 예술대학 학생들이 교육환경 중 가장 많이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은 공간 부족이었고,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음

[표 3-1] 예술대학 교육환경 현실 진단 (출처: 2021년 예술대학 살리기 연속 토론회 통합 자료집 정리 및 추가)

의제	내용
대학설립운영규정 미준수 노후화된 기자재 및 안전관리·감독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에서 명시한 교사면적, 교사시설을 지키고 있지 않음 - 기자재 관리가 되지 않아 노후화 - 안전관리에 실습 기사를 고용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하지 않음
고액의 등록금 및 차등 등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산정 기준 및 사용 내용 미공개 - 코로나 이후 비대면 수업 비율이 높아졌지만 코로나 이전과 같은 금액을 납부 중 - 졸업 이후 학자금대출로 인한 부채로 사회진입 시 위험을 학생들이 부담하게 됨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 편성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실습비 책정기준이 모호하고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
불합리한 졸업준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예술대학이 졸업 절차로서 전시, 공연 등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 지원은 거의 없고 개인의 돈으로 진행하고 있음
전임교원과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예체능계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강사법 개정 이후 강사 고용 축소 및

	해고가 진행되며, 전임교원이 부족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며 학습권을 침해함
학사제도	- 예술대학이 종합대학 내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전문예술인을 양성할 차별화된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신규 커리큘럼 개발과 적용에 시간이 소요되고, 행정지원이 현장을 따라가는 속도가 느림
교과목 편성 및 운영	- 커리큘럼 제정 및 예산 편성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학생 평가 시스템	- 기준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평가방식에 위계관계가 더해져 교수의 피드백에 따라 학점이 결정되는 구조로서 기존 예술의 개념과 습성이 수동적으로 습득되는 상황
진로 교육 및 취창업 지원	- 일원화된 진로 방향성과 권리 및 진로 교육의 부재 - 취창업센터는 예술계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재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듣고 있음
도제식 교육을 악용한 위계폭력	- 도제식 교육으로 과도한 교수의 권위가 발생하여 구조적인 위계폭력 및 성폭력에 노출됨

나. 교육과정 혁신 방향

- 동시대 예술과 현장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커리큘럼을 개선해서 다변화되는 예술을 위해 통섭적이고 융합적인 교과과정 개발이 필요함. 예술대학과 현장을 넘나들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장치들이 교과과정 속에서 설계되어야 함
- 교과목 편성에 학생 권한을 강화하고 학생 자율설계 교과과목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함
- 다양한 문화 예비예술인상을 제시하고 연결하는 문화예술매개 인력 과정 개설 및 운영이 필요함

1.2.3 예술대학 구성원별 개선 과제

- 예술대학생은 예술대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며 학습권을 지켜나가야 함. 교수는 학생과 수평적 관계로 마주하며 동시대 예술현장과 교과과정을 연계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함. 대학 본부는 동시대 예술의 흐름에 맞게 학사제도를 개편하고 교수진의 예술 생태계 기반의 교과과정 모형 개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예술대학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문화예술계 현장과 관련 정책 관련자에게 전달해야 함

1.3 예술대학의 현장 연계 방안

가. 현장 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 ◆ **현장형 수업 확대 (인턴십, 캡스톤 디자인 및 콜로키엄 수업)**
 - 예술현장을 교과과정 내에서 경험할 기회를 확대하고, 전형적으로 진행되는 현장실습의 내용을 개선해야 함
 - 현장실습은 근로보다 실습과 학습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정부는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며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예술대학이 예술단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

- 예술대학이 예술단체와 함께 실습, 창작, 제작, 유통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대표적 예가 예일대학교 연극대학과 이 학교가 세운 극단인 예일 레퍼토리 극장이 있음

◆ **문화예술기관이 주도해서 만든 교육과정**

- 문화예술기관이 직접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교육과정 및 인턴십을 운영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시장에 공급하는 방법으로서 영국의 13개 창조산업 기관이 주도한 창조산업학교(National College Creative Industries, NCCI) 사례를 참고해볼 수 있음

나. 산학 협력 프로젝트

- 대학 산학 협력단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산학연계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해서 프로젝트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산학연계 모델로 대학 내 예술레지던시 제도를 통해 우수한 창작자를 대학에 상주하도록 유치하고 교육을 담당하게 해서 현장성을 확보함
- 문화예술 산학연계 활성화를 통해 동시대에 필요한 역량과 기술을 가진 예술 인재를 양성해야 함

다. 지역 문화기관과의 연계 사업

- 문화예술정책의 지방 이양이 확대되면서 예술대학과 지역 내 물적 자원인 인프라에 기반한 파트너십 필요성은 더욱 강화될 것임
- 문화예술 분야도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를 구축하여 문화예술 자산과 인력에 기반한 지역발전 및 혁신 활동에 예술대학과 구성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정부 지자체의 지원확대가 요구됨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사업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발전사업에 예술대학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과 디지털 뉴딜에 예술대학이 참여하는 방안도 제안됨
- 예술대학생 당사자 특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하여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함

◆ **지역재단-예술대학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연계 교과과정 운영**

- 학생들에게 대학 소재 지역의 문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지역 이슈와 문화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경험과 졸업 이후 활동 기반 및 네트워크를 제공해줄 수 있음
- 성북문화재단은 동덕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문화예술연계' 전공을 개설 운영하였음.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졸업 이후에도 성북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늘어남

◆ **지역극장-대학과의 상생 연계 모델**

- 대학이 공연장과 연습실을 비롯한 실습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 공간을 활용하여 전문예술단체와 협력하여 상주단체를 운영하면 학생들과 현장 예술가의 접점을 넓힐 수 있음

1.4 예술대학 미래를 위한 정책 과제

가. 법제도 마련

- 예술대학의 문제는 예술현장의 문제이자 학교 예술교육 현장에도 끼칠 문제로서 예술대학 진흥 기반 마련을 위해 문화예술 인재양성 정책 개발이 필요함.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담당해야 함
- 예술대학의 문제를 개선하고 고등예술교육의 총체적인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고등예술교육법」과 「고등예술교육 진흥법」 제정이 필요함

나. 예술대학 체질 개선

- 근대적 예술대학 교육 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예술대학이 동시대 현장을 인식하고 성찰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야 함
- 예술대학 재학 중 현장 연계형 지원을 강화하고 예술대학 학생들이 협업을 기초로 창·제작을 위한 장르 간 공동 워크숍과 현장 프로젝트 수업이 확대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동시대 예술의 비전 및 예술인의 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교과과정 내에서 프로덕션 시스템의 형태로 설계되는 캡스톤 디자인 수업, 예술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는 인턴십, 현장 이슈를 전달하는 콜로키움 수업이 있겠음

◆ 프로덕션 시스템 구축

- 동시대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 산업은 개인의 창작보다는 협업으로 작업하는 프로덕션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대학의 고등예술교육 안에서 프로덕션을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예술교육이 창작과 제작으로 연계되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설계가 필요함
- 프로덕션은 특정한 창작물을 만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예술계 현장과 소통-연계 가능한 대학 내 프로덕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미래인재에 요구되는 창의융합, 의사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음. 학교에서 배운 역량을 가지고 졸업 이후 예술계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함

◆ 공유대학

- 공유대학은 대학 간 경쟁이 아닌 상생을 통해 대학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고등 예술교육에서도 커리큘럼 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음. 인문학적 예술, 신기술과 결합한 예술 등의 수업은 공동 커리큘럼으로 개발하고, 이를 대학 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금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계속되는 구조조정과 축소로 줄어드는 개설학과와 전임교원으로 진행할 수 없는 수업 등 공유대학 모델로 협력하고 연대해서 개선해나갈 수 있음

◆ 문화예술매개 인력양성과정

- 예술가로 살아가지 못하는 80~90% 학생들을 학교와 현장 모두 챙겨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문화 예술산업에 필요한 기획, 유통, 홍보 등 매개 인력에 예술대학 출신이 더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르떼 아카데미, 지역문화진흥원 지역문화 전

문인력양성과정,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아카데미 등에서 매개 인력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향후 이런 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해서 공동 운영하거나 현장형 예술경영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음

- ◆ 취창업 프로그램 구축 및 진로 교육
 -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분야로의 진로와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예술현장의 산업군과 역량을 이해할 수 있는 진로 경로를 제시하고 관련 탐색 기회 확대가 필요함
 - 예술대학 내에서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이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 환경 구축이 필요함. 대학의 창업센터와 관련 공공기관인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등과 협력하는 방법이 제시됨
 - 문화예술 관련 공공 및 민간사업, 창업 지원, 구인·구직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 마련되어 양질의 문화 일자리가 교환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다. 예술대학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마련

- ◆ 취업률 지표
 - 예술 분야 노동시장은 창작을 통해 새로운 활동 영역이 형성되어 경제활동이 일어나며, 직업의 생성과 소멸이 빠른 특성을 나타내므로 일반적인 노동시장과 큰 차이가 있음
 - 2020년 고등교육 예체능계열 취업률은 62.2%로서 전체 취업률 65.1%보다 낮고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인문계열 53.5%보다 높음. 그러나 개인 창작활동 종사자 비율이 6.7%(인문계열 0.2%)이고 프리랜서가 15.9%(인문계열 10.2%)로서 실제로 전체계열에서 예술계열 졸업자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음¹⁰⁾
 - 단순히 졸업생의 취업률 통계가 아닌 예술교육의 결과와 일치하는 평가 방법이 필요하고, 역량 있는 문화예술 분야 인재를 양성했는지를 지표로 세워야 함
- ◆ 예술대학 평가체계 기준 마련
 - 2014년 시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바탕으로 취업을 사실상 가장 높은 지표로 하여 취업률이 낮은 예술계열을 강도 높게 구조조정을 함.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근거가 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위해 모든 교육과정이 국가직무 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영향을 받고, 획일적으로 진단되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 예술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능력을 고민하여 제시할 필요 있음
 - 예술 강사 미고용으로 인한 예술계열 현장성이 부재한다는 문제 제기를 참고하여 예술대학 내 강사 비율을 대학 지표 중 하나로 구성하는 개선안도 제안됨
 - 예술현장의 여건과 특성, 다양한 고용 형태 등을 고려한 적합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평가가 수월한 논문 중심의 연구업적 평가 대신 작품활동을 기준에 포함한 개선이 필요

라. 지방 고등예술교육 생태계 지원

- 지방대학은 지역민들을 위한 평생 교육기관이며,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배후기관으로, 지역민의 예술 향유의 거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예술교육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방 예술대학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함

10) 교육부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

마.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협력체계 구축

- 현재의 법률 및 정책 체계로는 예술대학생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책임 및 담당 부처가 모호함. 예비예술인양성을 위한 진흥법 및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예술 분야 특수성을 이해하고 예술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 축적과 분석, 인재상, 성장 경로별 방안, 핵심 역량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교육 분야 전문가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의 협력을 통한 방안 구상이 필요함
-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운영하는 예술 관련 교육기구가 설립되어 예술대학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예술대학 구성원의 불만 및 문제점 제기를 수용하고, 예술교육 품질 및 교육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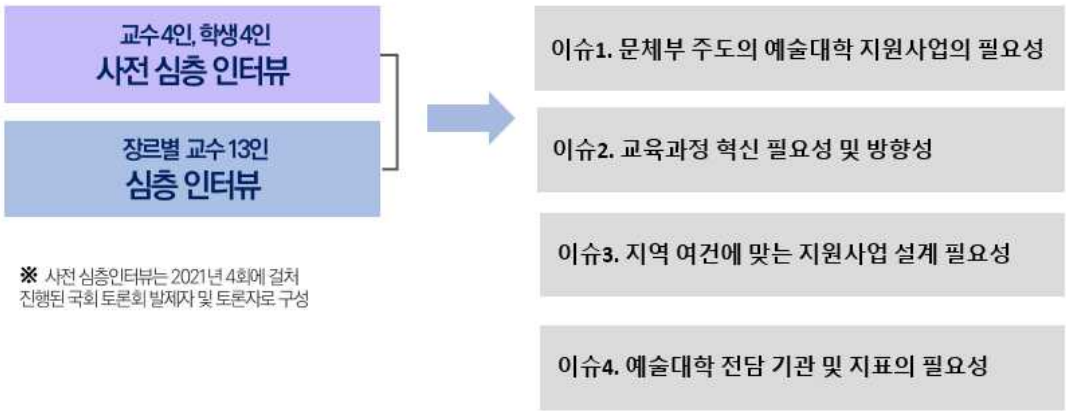
2. 심층 인터뷰(FGI) 분석

2.1 사전 인터뷰

2.1.1 사전 인터뷰 개요

- ◆ 개요
 - <예술대학 살리기 국회토론회> 기획에 참여한 교수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심층 인터뷰를 하기에 앞서 정책 이슈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함
 - 교수 그룹과 학생 그룹(졸업생, 재학생)으로 나눠서 예술대학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방향성과 핵심요소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안을 확인함

[그림 3-1] 예술대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전 인터뷰 구조도



◆ 일시 및 참석자

구분	인터뷰 대상	소속 / 지위	일정
교수	이OO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3.23
	김OO 교수	상명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김OO 교수	청주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고OO 교수	호남대학교 미디어 영상공연학과 교수	
학생 (재학생, 졸업생)	이OO	예술대학 졸업생, 작가	4.4
	신OO	졸업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위원	
	장OO	졸업생, 쏠 계원예술대학교 총학생회장	
	정OO	재학생, 쏠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장	

♦ 사전 인터뷰 대상별 주요 안건

대상	주요 안건
교수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대학 활성화 정책에서 학생들의 자존감과 역량 향상으로 직접 연결될 지원방법이나 수단이 무엇일까요? - 지원정책 분야에서 먼저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 예술대학이 능동적으로 개선이나 혁신에 참여하도록 하는 장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대학이 예비예술인들의 성장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술대학 지원정책 분야에서 먼저 다루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 예술대학 학생이자 예비예술인으로서 사회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제도/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계 현장으로서 예술대학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1.2 사전 인터뷰 주요 이슈

- ♦ 사전 인터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대학을 지원하는 핵심 근거가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일 먼저 논의되었고 이 근거 위에 예술대학 혁신의 필요성이 이야기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사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중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음

1)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대학 지원 근거 제시의 필요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대학 지원정책의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함
- 생애사적으로 볼 때 예술대학 지원은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임. 이에 예술대학 바깥의 청년예술인 지원을 병행하면서도 예술대학에 소속된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음

2) 예술대학 혁신의 필요성

- 동시대 예술의 변화를 수용하고 실험하는 장으로서 예술대학 교과과정을 혁신하여 문화예술현장과 연계해야 함
- 이때 예술대학 전공의 다양성으로 인해 전공별로 세심한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사전 인터뷰 내내 강조되었음
- 예술계열이 참여하는 융복합 지원사업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별개로 예술의 기초를 탄탄히 하기 위한 고등교육과정, 곧 예술대학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커져야 함

3) 예술대학 지원사업 설계 시 고려사항

- 예술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도모하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지원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법제도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술대학 지원사업 전담 추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단일성격의 사업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지원근거가 되는 법률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핵심은 기본계획 수립이다. 이공계열은 국가과학기술 관련 법에서 인재양성 법률조항이 있다. (신OO)

2.2 심층 인터뷰

2.2.1 심층 인터뷰 개요

◆ 기본 전제

- 예술대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술대학 교육환경 진단 및 현황파악, 예술대학생을 위한 창·제작 활동과 성장경로별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방안, 예술대학의 미래 등에 대해 예술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
- 예술대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체계 구상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 심층 인터뷰 개요

- 예술대학 구성원 중 교수, 강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진행방식은 그룹 인터뷰로 3차례 진행하였음
- 다양한 지역 및 장르의 의견 수렴을 위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소재 예술대학 교원을 섭외하였고, 장르별로도 시각예술, 공연예술, 이론 분야 교수로 나누어 선정하였음

〈심층 인터뷰 참여자 명단〉

대상			분야	학교 소재지역	일정	방법
	한국예술종합학교 멀티미디어영상과 교수, 現 기획처장	조OO	영상	서울	4.27	비대면 진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과 교수	김OO	디자인	서울		
	한양여자대학교 무용과 겸임교수	김OO	무용	서울		
	부산대학교 예술문화학과 교수	조OO	예술 이론	부산	5.3	
	동서대학교 뮤지컬학과 교수	오OO	뮤지컬	부산		

중앙대학교 실용음악과 겸임교수	남OO	실용음악	서울			
추계예술대학교 영상비즈니스과 교수, 現 기획처장	안OO	영상	서울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김OO	국악	광주	5.11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이OO	무용	전주			
평택대학교 공연영상콘텐츠학과 교수	서OO	영화	평택	5.30		대면 진행

- 진행방식은 예술대학 X 예비예술인 성장지원 사업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장르별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 해당 학교의 상황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눔

2.2.2 심층 인터뷰 주요 이슈

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는 예술대학 지원사업의 필요성 강조

- 예비예술인 양성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유성을 가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예술대학과 현장을 연계하는 방안을 통해 대학과 현장을 모두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사업에 대한 기대

1) 예술대학 지속가능성의 위기

- 지원자 수 감소로 인해 폐과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폐과까지는 아니라도 전공별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 개설 강의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전공자 숫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막아야 해요. 이걸 못 막으면 이런 정책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지는 시점이 올 겁니다. 예술 영재부터 고등예술까지 연결되는 교육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김OO 교수)

2) 타전공과의 융합 사업의 경우 예술 전공의 주도성 문제

- 융복합 전공에의 지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예술 전공자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부재한 현실

연구재단에서 융합이라는 이름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그 주체가 되는 학과는 공대인 경우가 다수예요. 공대에서 예술대학을 끼워서 하는 융합 사업에 몇 번 참여를 해봤는데요. 사실 너무나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미학적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달라든지, 심지어는 파워포인트를 잘 만들어달라든지 이 정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술대학생의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다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융합이라고 하는 이름이지만 예술대학이 주도되어서 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김OO 교수)

3) 현장 연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 예술대학과 현장을 연계하는 데에 있어 개별 대학이나 개별 전공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됨

대학이 계속 현장을 열어주고, 학생들이 현장을 오가게 해주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중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김OO 교수)

나. 예술대학 교육과정 혁신 방안

1) 예술대학 교육환경 체질 개선 필요

- 예술대학의 기본적인 교육환경 시설이 열악하고 대학 본부의 투자 의지가 부족하며 지방대의 경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
- 실태조사를 통해 장르별 예술학과 교육환경을 조사하고 실제적인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예술대학 커리큘럼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과 통폐합을 막을 수가 없으므로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함

00대에 가서 교육환경에 놀랐습니다. 거의 30~40년 넘은 건물에 있는 연습실 환경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것도 학과 평가 등에 의해 교육환경 개선에서 밀리고 있어요. 예술대학이 학교에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무용 예술에서 융합창작을 위해서는 디지털화된 연습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 기본적인 연습실도 부족한 상태예요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어 있어요. (이OO 교수)

예술계열 교수님을 보면 자기 것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높아요. 예를 들면 동양화, 서양화, 판화의 융합도 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깨는 방법은 지원방식이라고 보거든요. 새로운 형태의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형식이면 구성원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OO 교수)

2) 문화예술매개 인력 양성과정 개설 및 운영의 필요성

- 문화예술매개 인력양성 교과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침과 지원금을 요청함
- 고등예술교육의 다양성이라는 면에서 학생들의 학습 수요를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문화예술매개 인력 교과과정 개설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경로를 알려주고 예술현장 실무와 연결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함

예술대학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예술가로만 키우려는 목표가 강하지 학생들이 취업한다거나 예술가가 아닌 다른 경로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분이 많아요. 학교로서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최대한 다양한 경로를 보여주고 열어주는 게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안OO 교수)

단위 대학에서는 소수의 인원을 위해서 과목을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부분은 몇 개 대학을 묶으면 그 친구들이 열 몇 명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사회적 수요를 예측해서 만들어놓은 전형적인 커리큘럼에서 소외된 부분에 대한 인력들을 교육할 수 있는 좋은 네트워크 프레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OO 교수)

3)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자원을 공유하는 시스템: 예술 분야 공유대학

- 문화예술 관련 현장 연계가 비교적 수월한 수도권 예술대학과 물리적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는 지방 예술대학이 공유대학을 통해 서로가 가진 자원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방식이 지방 예술대학이 자생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저는 랩(LAB)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랩은 교수님들이 주도하는 어떤 그룹이 아니고, 실험실이죠. 그게 꼭 대학 안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대학과 연계해서 운영될 수 있다고 봐요. 내가 한예종인지, 서울예대인지, 서울과기대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 랩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3학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참여한 학생들 사이에 동료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김OO 교수)

다른 분야에서 잘 운영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시행착오를 당연히 거쳤을 것이고, 그 과정을 몇 년 지나고 나면 가능한 부분을 찾겠죠. 왜냐하면 개별 대학에서 안 되는 거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모든 시설을 갖추 수도 없고, 그러므로 한두 상자라도 건져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OO 교수)

공유대학을 제도로 활용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서울수도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교두보도 되고, 실제로 공부해 보니 나는 지역에서 더 큰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OO 교수)

부산지역에 공동으로 영화 주제로 융합 전공을 하자는 사업에 있었어요. 각 학교가 분담해서 자기네가 특화된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이 그 수업을 이수하면 복수전공 비슷하게 자기 학과의 졸업장만이 아니라 영화 영상 ICT 콘텐츠 융합 전공이라는 이름의 학위를 더 받을 수 있게 돼요. (조OO 교수)

4) 실제적 현장 연계 방안의 필요성

- 학생들이 예술대학과 현장을 오가면서 공부하고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예술대학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예술대학이 현장과 학생들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한다면 고등교육예술기관으로서 현재보다 더 나은 방식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현장 연계가 학점에 적용될 수 있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임

저는 대학교 문을 열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학생들이 현장을 오가면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김OO 교수)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현장과 연계해서 학점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김OO 교수)

- 도제식 학습의 전통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있다고 해도 현장 연계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함

학교가 1, 2학년 학생들의 외부활동을 못 하게 하기도 해요. 도제식 교육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그 부분이 참 안 열리는 부분이에요. 이런 폐쇄적인 구조에서 과연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른 교수를 만나고 현장을 경험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가 숙제 같아요. (김OO 교수)

5)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 지역의 문화기관과 예술대학이 컨소시엄 형태로 결합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운영
- 문화시설은 공공의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며, 예술대학과 지역민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도 제안됨

- 지역의 공연장 인프라와 대학의 프로덕션 시스템들이 접목될 수 있다면 지역대학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 문화재단과 업무협약(MOU)체결이 되어 있지만, 예술대학에 특화된 실습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저는 지역극장이 학생들의 졸업작품을 프로덕션을 해준다면, 학교는 학생들에게 무대에 서는 기회를 제공하고, 극장에서는 하나의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갈 수 있고, 지역민들이 작품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졸업작품을 후속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것까지도 극장과 연계된다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OO 교수)

지역에 비어있는 연습실과 극장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학과 연결한 풀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대학은 늘 그런 공간이 부족해요. 마룻바닥이 있고, 거울이 있는 공간이 지원되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서OO 교수)

제가 지방대학에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예술대학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역의 예술대학이 그 지역의 문화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하고, 창·제작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도 지역과 연계된 지원이 있을 때 훨씬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학생들이 그냥 서울로 가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학교에서만 노력해서는 되지 않는 거죠. (이OO 교수)

6) 졸업작품 준비 및 발표 지원

- 졸업작품을 제작할 때 학생들이 개인 부담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학교의 지원금이 절실함
- 전국 예술대학생의 졸업작품을 공동으로 선보이고, 현장과 연계시키는 쇼케이스 성격의 무대를 제공하고 작품의 완성도를 갖추기 위한 후속 지원제도의 필요성이 제시됨
- 졸업작품을 학교의 자산으로 접근해서 아카이빙하고 관리하는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학생들이 졸업작품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 거라 자꾸 개인 돈을 쓰게 되더라고요. 장소 대관비도 그렇고, 기차 감당하기만도 힘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면 학생들로서는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해요. (서OO 교수)

학생들이 졸업작품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걱정이더군요. 학교에 기증하자니 학교에도 공간이 없고, 일부는 학교에서 장기 대여라든지 구매하기도 합니다. 아주 저렴한 비용이죠. 근데 학생으로서 작품은 집에 가져갈 수도 없고, 판매를 당장 할 수가 없어서 고민이죠. (김OO 교수)

다. 지역의 여건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예술대학 지원사업 설계가 필요

- 각 예술대학이 처한 위상이 다르므로 수도권과 지방, 국립과 사립, 일반대학과 예술특성화 대학 사이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지역별, 학교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지원사업으로 인해 학교 간의 불균형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도 있었음

학교마다 예술대학이 처해 있는 위상이 달라요. OO 대는 예술 부분이 높겠지만 OO 대는 그야말로 종합대학이고 여기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학과가 있어요. 예술대학은 정말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술대학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술대학은 여기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교수들 숫자도 아주 작아요. 학교가 예술대학을 위해서 별도로 투자하기를 바라기는 사실 힘들어요. 만약에 문화체육관광부나 교육부가 예술대학만을 위한 투자를 지원해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조OO 교수)

1) 지방 예술대학의 위기

- 전체 예술대학이 위기 상황에 있지만, 특히 지방대학이 수도권보다 더 심각한 편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 고등예술교육에도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정부 지원 및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지방 예술대학이 수도권 컨서바토리 과정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현상은 지방 예술대학의 존폐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안이라는 점을 피력함
- 대학의 재정 악화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예술계열의 기초학문 성격을 띤 전공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임. 예술학과를 보호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지방 예술대학이 자생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학교가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해도 오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코로나가 그걸 더 당겼죠. 왜냐하면 실기 수업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버티었는데 코로나 19 이후 실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해 보니, 그게 가능해지면서 지역 대학이 힘이 빠진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겹치면서 지역대학도 색깔을 바꿔야 하는 시점이긴 한데, 수도권 컨서바토리에서 반수하고 편입해서 들어가는 게 공식적인 루틴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지역대학이 버틸 힘이 너무 없어진 거죠. (오OO 교수)

2) 예술계열 장르별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사업 설계가 필요

- 1:1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비율이 높은 전공에서는 현실적인 지원책으로서 강사료 지원을 요청함
- 현장과 연계되는 방안으로서 창·제작(프로덕션)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구성원이 많았으며, 공연예술의 경우 현실 가능성이 커서 고려해볼 수 있겠다는 의견이 제시됨

지방학교에서는 지금 보컬만 많고 기악이 없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보컬이 반주를 틀고 공연하면서 다양한 합주 경험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되었어요. 연주 조교를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남OO 교수)

라. 기타

1) 예술대학 전담 기관의 필요

- 예술대학 정책 연구 및 선도사업을 전담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추진단이 있으면 좋겠고, BK21+사업처럼 대학마다 사업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원구조를 설계하는 방안도 있음

지속해서 예술대학을 지원하고 정책을 연구하는 담당 기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대 공연예술 쪽만 해도 졸업생이 한 해에 2,000여 명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일 년에 몇 명도 안 되거든요. 이런 구조 논리에서 예술대학이 존립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리고 비싼 학비를 받고 운영되면서 학생들의 만족도는 되게 떨어지거든요. (김OO 교수)

2) 예술계열 집행기준 및 평가지표 마련

- 공대 기준으로 설계된 국책사업이 예술계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예술대학에 맞는 기준과 지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예술 활동을 인정해주는 취업률 지표가 학교 공식지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함

제가 계속 싸웠던 것 중의 하나가 비용을 집행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영화과에 제일 필요한 게 뭐니, 지금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니, 그러면 야외촬영 나갈 차를 빌려야 되는데 차를 빌릴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그리고 재료비는 원재료를 사다가 그걸로 제품을 만드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 의상을 완제품으로 살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오OO 교수)

뮤지컬 한 학기 동안 한편의 작품 창작이 가능합니다. 그게 과연 지역문화에서 자생력 있는 공연으로 만들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다음 단계로 가는데 또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가기 힘들죠. 지원사업에서는 너희 지난번에 이 프로젝트로 지원받았잖니? 그러면서 후반 작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중복지원이라고 거절해요. 서로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른 거죠. (오OO 교수)

저희도 구조조정이 한차례 굉장히 몰아쳤었고, 그때 예술대학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됐었거든요. 예술대학이 우리 학교 평군을 깎아 먹는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너무 화가 나서 우리가 독립해서 나가자는 말까지 있었는데, 지표문제는 매우 심각해요. (조OO 교수)

2.3 심층 인터뷰 이슈 종합

- 예술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결과 도출된 이슈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예술인양성을 위한 지원 방향성

◆ 예비예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예비예술인들이 모여 있는 집단인 예술대학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근거로서 고등예술교육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를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한국 문화예술계 경쟁력 강화와 연계가 필요함
-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재정의 악화로 인해 위기에 처한 기초 전공 예술학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함

◆ 문화예술계 현장과 학생들을 연결하는 예술대학의 역할 수행을 지원

- 예술대학이 학생들과 현장의 연결을 돕고 사회진출을 위한 다양한 경로를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하며, 대학과 문화예술계 현장 모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함

◆ 지역의 특성과 예술대학 여건, 장르를 고려한 지원정책 설계 필요

- 예술대학 실태조사를 통해 다양한 전공별 교육여건에 맞는 실제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함
- 전체 예술대학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대, 지방 국립대보다 지방 사립대가 더 열악한 편임. 학교마다 예술대학이 처한 위상이 다름을 이해하고 지원정책 설계에 반영되어야 함

나. 현장과 연계되는 예술대학 X 예비예술인 지원사업 방안

- ◆ **예술대학 맞춤 산학협력, 인턴십, 캡스톤 디자인 설계 필요**
 - 예술대학 맞춤 현장실습 기관을 발굴·선정하고 학점과 연계된 인턴십, 캡스톤 디자인을 운영해야 함
 - 영상, 신기술 분야에서 주로 진행되는 예술대학 산학협력 프로젝트의 내용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 ◆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경로를 알려주는 문화예술매개 인력 양성과정**
 - 문화예술매개 교과목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경로를 알려주는 체험과 경력을 제공하며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어야 함
- ◆ **예술대학 공유대학 체계 구축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하는 방식**
 - 문화예술 인프라가 밀집된 수도권 예술대학과 지방 예술대학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방법으로써 공유대학 방식을 통해 문화예술생태계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
 - 이론, 행정 등 문화예술매개 과목을 공동 과정으로 개설하여 다양한 경로로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예술대학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고등예술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함
 - 교양과목 자원이 부족한 예술대학의 경우 공유대학 방식으로 ‘교양 교과목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핵심 역량에 필요한 수업을 원격(K-MOOC)으로 제작 지원함
- ◆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와 예술대학을 연계해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방식**
 - 지역의 문화재단, 문화기관/기업, 예술대학이 컨소시엄 형태로 결합하여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문화예술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함
 - 지방 예술대학을 자생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공간과 학생들의 작품을 제작·발표하는 프로젝트션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에게는 현장을 제공하고, 현장에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민에게는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예술대학생이 졸업 이후에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반을 가질 수 있게 지역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함
- ◆ **예술대학 졸업작품 지원제도**
 - 학생들에게 창작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비로 지출되고 있는 예술대학 졸업작품 제작 여건을 개선하고 그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고 후반 작업을 지원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서 차세대 예술인으로서 사회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
 - 전국 예술대학 졸업작품을 등록, 관리하는 국가 아카이브 포털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 홍보하고 예술대학의 교육자산으로써 활용할 수 있게 함

다. 고등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 ◆ 예술대학 전담기관이 개설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 현재 국책사업에서 집행방법 및 평가지표가 예술계열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음.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예술대학 맞춤 평가지표체계가 필요함

3. 설문조사 분석

3.1 설문조사 개요

3.1.1 설문조사 배경 및 목적

- 본 조사는 예비예술인들의 성장 및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기관이자 중장기적으로 한국 문화예술계의 중요한 현장인 예술대학의 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로써 진행됐으며, 예술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졸업생 포함)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본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는 향후 예술대학의 교육에 대한 변화와 수요를 반영한 정책수립과 집행에 참조할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3.1.2 조사설계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예술대학 재학 중인 학생(졸업생 포함) 및 재직 중인 교직원
표본크기	567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에 기반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기간	2022년 06월 21일 ~ 06월 27일 (총 7일간)

3.1.3 조사내용

구 분	내 용
예술대학 현황 및 교육환경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대학의 예술인 성장 지원 역할 수행 정도 • 예술대학이 역할 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 • 예술대학 교육환경 만족도(교육시설/기자재, 교과과정, 교원, 창·제작 지원, 사회진출) • 예술대학 활성화를 위한 공간(시설) 보안 및 개선에 필요한 것
예술대학생의 창·제작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대학 창·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영역 • 재직/재학 중인 예술대학 내 창·제작 및 기획을 지원하는 기관 운영 유무 • 예술대학 내 창·제작 및 기획 지원하는 기관의 유형 • (학생/졸업생 대상 문항) 전공관련 졸업작품 제작/전시/공연 예정/경험 유무 • (학생/졸업생 대상 문항) 졸업작품 제작 시 소요되는 기간 • (학생/졸업생 대상 문항) 졸업작품 제작 시 지출되는 비용
예술대학생의 성장경로별 사회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대학생 사회진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 예술대학 현장실습과 학점 연계의 필요성 • 현장실습과 학점을 연계할 경우 인정해야 되는 최대 학점 • 현장실습과 학점이 연계되어 진행 될 경우 개선되어야 할 지점 • 문화예술 기획 및 홍보 등의 문화예술매개인력 양성과정 개설 필요도 • (학생/졸업생 대상 문항)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졸업이후 활동하고 있는 분야 • (학생/졸업생 대상 문항) 재학 중 인턴십으로 일해보고 싶은 기관/ 일해본 기관

구 분	내 용
예술대학 교·강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비전임 교원 대상 문항) 예술대학 활성화를 위해 교원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요소 • (전임/비전임 교원 대상 문항) 타대학 예술전공/타분야와의 융복합 혹은 협업작업을 시도 할 경우 우려되는 점 • (전임/비전임 교원 대상 문항) 예술현장과의 연계를 활용한 실습 과목 운영 상의 어려움 점
고등예술교육 및 예술대학의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으로서 예술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 • 예술대학 지원정책 중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 • 예술대학 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1.4 응답자 특성

□ 전체 응답자 특성

		사례수	%
전 체		567	100.0
소속	학부 재학	393	69.3
	대학원 재학	37	6.5
	졸업생	61	10.8
	전임 교원(교수)	45	7.9
	비전임 교원(강사)	22	3.9
	기타	9	1.6
학제유형	일반대학(4년제)	46	82.4
	전문대학(2,3년제)	26	4.6
	예술특성화 대학	64	11.3
	사이버대학	2	0.4
	기타	8	1.4
설립유형	국공립	162	28.6
	사립	405	71.4
전공	문학	18	3.2
	시각예술	283	49.9
	연극	47	8.3
	무용	20	3.5

		사례수	%
전 체		567	100.0
전공	음악	76	13.4
	국악	34	6.0
	영상/미디어	60	10.6
	기타	29	5.1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92	69.1
	충청/대전/세종	103	18.2
	경상/대구/부산/울산	21	3.7
	전라/광주/전주	36	6.3
성별	강원/제주	15	2.6
	남자	106	18.7
	여자	458	80.8
연령	기타	3	0.5
	20세 이하	84	14.8
	21-24세	271	47.8
	25-29세	96	16.9
	30-39세	41	7.2
	40-49세	32	5.6
	50세 이상	43	7.6

3.1.5 세부 응답자 특성

□ 서울/경기/인천

		사례수	%
전 체		392	100.0
소속	학부 재학	278	70.9
	대학원 재학	32	8.2
	졸업생	37	9.4
	전임 교원(교수)	23	5.9
	비전임 교원(강사)	16	4.1
	기타	6	1.5
학제유형	일반대학(4년제)	304	77.6
	전문대학(2,3년제)	18	4.6
	예술특성화 대학	60	15.3
	사이버대학	2	0.5
	기타	8	2.0
설립유형	국공립	93	23.7
	사립	299	76.3
전공	문학	13	3.3
	시각예술	199	50.8
	연극	41	10.5
	무용	13	3.3
	음악	69	17.6
	국악	18	4.6
	영상/미디어	19	4.8
	기타	20	5.1
성별	남자	61	15.6
	여자	330	84.2
	기타	1	0.3
연령	20세 이하	50	12.8
	21-24세	204	52.0
	25-29세	59	15.1
	30-39세	34	8.7
	40-49세	20	5.1
	50세 이상	25	6.4

□충청/대전/세종

		사례수	%
전 체		103	100.0
소속	학부 재학	91	88.3
	대학원 재학	2	1.9
	졸업생	6	5.8
	전임 교원(교수)	4	3.9
	비전임 교원(강사)	0	0.0
학제유형	일반대학(4년제)	101	98.1
	전문대학(2,3년제)	2	1.9
설립유형	국공립	37	35.9
	사립	66	64.1
전공	시각예술	55	53.4
	연극	3	2.9
	무용	2	1.9
	음악	2	1.9
	국악	1	1.0
	영상/미디어	34	33.0
	기타	6	5.8
	기타	0	0.0
성별	남자	24	23.3
	여자	77	74.8
	기타	2	1.9
연령	20세 이하	30	29.1
	21-24세	50	48.5
	25-29세	17	16.5
	30-39세	2	1.9
	40-49세	1	1.0
	50세 이상	3	2.9
	기타	0	0.0
	기타	0	0.0

□ 경상/대구/부산/울산

		사례수	%
전 체		21	100.0
소속	학부 재학	4	19.0
	대학원 재학	11	52.4
	졸업생	5	23.8
	전임 교원(교수)	1	4.8
	비전임 교원(강사)	0	0.0
학제유형	일반대학(4년제)	13	61.9
	전문대학(2,3년제)	5	23.8
	예술특성화 대학	3	14.3
설립유형	국공립	10	47.6
	사립	11	52.4
전공	문학	3	14.3
	시각예술	4	19.0
	연극	1	4.8
	무용	3	14.3
	음악	3	14.3
	국악	3	14.3
	영상/미디어	3	14.3
	기타	1	4.8
	미예	0	0.0
성별	남자	6	28.6
	여자	15	71.4
연령	21-24세	5	23.8
	25-29세	9	42.9
	30-39세	3	14.3
	40-49세	2	9.5
	50세 이상	2	9.5
	미예	0	0.0

□ 전라/광주/전주

		사례수	%
전 체		36	100.0
소속	학부 재학	10	27.8
	대학원 재학	3	8.3
	졸업생	5	13.9
	전임 교원(교수)	11	30.6
	비전임 교원(강사)	5	13.9
	기타	2	5.6
	미예	0	0.0
학제유형	일반대학(4년제)	34	94.4
	전문대학(2,3년제)	1	2.8
	예술특성화 대학	1	2.8
설립유형	국공립	18	50.0
	사립	18	50.0
전공	문학	2	5.6
	시각예술	12	33.3
	연극	2	5.6
	무용	2	5.6
	음악	2	5.6
	국악	12	33.3
	영상/미디어	3	8.3
	기타	1	2.8
	미예	0	0.0
성별	남자	10	27.8
	여자	26	72.2
연령	20세 이하	1	2.8
	21-24세	7	19.4
	25-29세	8	22.2
	30-39세	1	2.8
	40-49세	8	22.2
	50세 이상	11	30.6

□ 강원/제주 응답자 특성

		사례수	%
전 체		15	100.0
소속	학부 재학	10	66.7
	졸업생	2	13.3
	전임 교원(교수)	2	13.3
	비전임 교원(강사)	1	6.7
학제유형	일반대학(4년제)	15	100.0
설립유형	국공립	4	26.7
	사립	11	73.3
전공	시각예술	13	86.7
	영상/미디어	1	6.7
	기타	1	6.7
성별	남자	5	33.3
	여자	10	66.7
연령	20세 이하	3	20.0
	21-24세	5	33.3
	25-29세	3	20.0
	30-39세	1	6.7
	40-49세	1	6.7
	50세 이상	2	13.3

3.1.6 자료 처리 및 분석

- 최종 조사된 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검증을 확인하는 에디팅(Editing) 과정을 거치며, 오픈문항(주관식 형태)으로 입력된 데이터는 부호화 작업인 코딩(Coding) 과정을 진행함
- 이후 전체적인 데이터는 입력 자료의 오류를 검색하는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분석에 사용
- 응답자 특성별 분석의 경우 유의미한 사례수(사례수 30개)보다 미달된 사례수를 가진 특성의 경우 분석하지 않음

3.2 설문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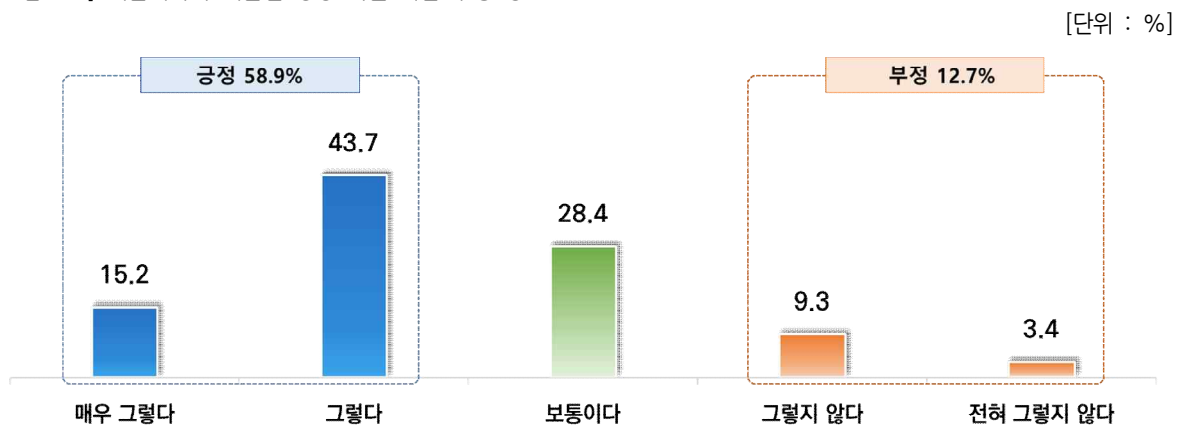
3.2.1 예술대학 현황 및 교육환경 진단

1) 예술대학의 예술인 성장 지원 역할 수행 정도

조사 결과

- 예술대학이 예술인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라는 긍정 응답이 58.9%(매우 그렇다 15.2% + 그렇다 43.7%)로 ‘그렇지 않다’는 부정 응답 12.7%(전혀 그렇지 않다 3.4% + 그렇지 않다 9.3%)보다 46.2%p 높게 나타났음
- 5점 평균은 3.58점, 100점 평균은 64.5점으로 나타났음

[그림 3-2] 예술대학의 예술인 성장 지원 역할 수행 정도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예술대학의 예술인 성장 지원 역할 수행 정도’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학생그룹(학부재학+대학원재학)이 교원그룹(전임교원+비전임교원)보다 상대적으로 긍정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대학원생(66.9점), 대학생(65.3점), 연극(71.8점), 여자(64.7점), 20세 이하(70.8점)에서 상대적으로 평점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2] 예술대학의 예술인 성장 지원 역할 수행 정도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부정	5점 척도	100점 척도
전 체		(567)	15.2	43.7	28.4	9.3	3.4	58.9	12.7	3.58	64.5
소속	학부 재학	(393)	14.5	46.1	28.8	7.6	3.1	60.6	10.7	3.61	65.3
	대학원 재학	(37)	24.3	35.1	29.7	5.4	5.4	59.5	10.8	3.68	66.9
	졸업생	(61)	6.6	44.3	32.8	11.5	4.9	50.8	16.4	3.36	59.0
	전임 교원(교수)	(45)	22.2	31.1	24.4	22.2	0.0	53.3	22.2	3.53	63.3
	비전임 교원(강사)	(22)	13.6	40.9	22.7	18.2	4.5	54.5	22.7	3.41	60.2
	기타	(9)	33.3	44.4	11.1	0.0	11.1	77.8	11.1	3.89	72.2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67)	15.0	41.3	29.6	10.1	4.1	56.3	14.1	3.53	63.3
	전문대학(2,3년제)	(26)	7.7	73.1	15.4	3.8	0.0	80.8	3.8	3.85	71.2
	예술특성화 대학	(64)	20.3	48.4	25.0	6.3	0.0	68.8	6.3	3.83	70.7
	사이버대학	(2)	0.0	100.0	0.0	0.0	0.0	100.0	0.0	4.00	75.0
	기타	(8)	12.5	37.5	37.5	12.5	0.0	50.0	12.5	3.50	62.5
설립 유형	국공립	(162)	16.0	43.2	32.1	6.8	1.9	59.3	8.6	3.65	66.2
	사립	(405)	14.8	44.0	26.9	10.4	4.0	58.8	14.3	3.55	63.8
전공	문학	(18)	22.2	50.0	27.8	0.0	0.0	72.2	0.0	3.94	73.6
	시각예술	(283)	16.6	44.2	27.9	7.8	3.5	60.8	11.3	3.63	65.6
	연극	(47)	27.7	42.6	21.3	6.4	2.1	70.2	8.5	3.87	71.8
	무용	(20)	20.0	45.0	30.0	5.0	0.0	65.0	5.0	3.80	70.0
	음악	(76)	11.8	40.8	25.0	17.1	5.3	52.6	22.4	3.37	59.2
	국악	(34)	8.8	32.4	32.4	20.6	5.9	41.2	26.5	3.18	54.4
	영상/미디어	(60)	5.0	53.3	31.7	8.3	1.7	58.3	10.0	3.52	62.9
	기타	(29)	10.3	37.9	41.4	6.9	3.4	48.3	10.3	3.45	61.2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92)	17.9	44.4	25.0	9.4	3.3	62.2	12.8	3.64	66.0
	충청/대전/세종	(103)	6.8	46.6	34.0	9.7	2.9	53.4	12.6	3.45	61.2
	경상/대구/부산/울산	(21)	4.8	38.1	47.6	0.0	9.5	42.9	9.5	3.29	57.1
	전라/광주/전주	(36)	22.2	27.8	33.3	13.9	2.8	50.0	16.7	3.53	63.2
	강원/제주	(15)	0.0	53.3	40.0	6.7	0.0	53.3	6.7	3.47	61.7
성별	남자	(106)	17.0	41.5	24.5	12.3	4.7	58.5	17.0	3.54	63.4
	여자	(458)	14.8	44.1	29.3	8.7	3.1	59.0	11.8	3.59	64.7
	기타	(3)	0.0	66.7	33.3	0.0	0.0	66.7	0.0	3.67	66.7
연령	20세 이하	(84)	25.0	44.0	22.6	6.0	2.4	69.0	8.3	3.83	70.8
	21-24세	(271)	13.3	45.8	30.6	7.4	3.0	59.0	10.3	3.59	64.8
	25-29세	(96)	5.2	43.8	36.5	10.4	4.2	49.0	14.6	3.35	58.9
	30-39세	(41)	19.5	39.0	19.5	12.2	9.8	58.5	22.0	3.46	61.6
	40-49세	(32)	12.5	43.8	21.9	18.8	3.1	56.3	21.9	3.44	60.9
	50세 이상	(43)	27.9	34.9	20.9	16.3	0.0	62.8	16.3	3.74	6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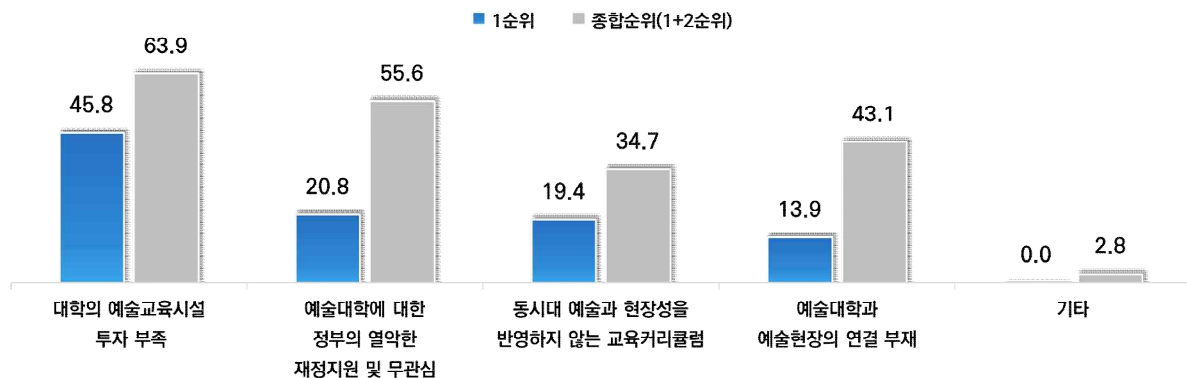
1-1) 예술대학이 역할 수행을 못하는 원인

조사 결과

- 예술대학이 예술인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응답자(n=72)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대학의 예술교육시설 투자 부족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대학에 대한 정부의 열악한 재정지원 및 무관심(20.8%), 동시대 예술과 현장성을 반영하지 않는 교육커리큘럼(19.4%), 예술대학과 예술현장의 연결 부재(13.9%) 순으로 나타났음(1순위 기준)

[그림 3-3] 예술 대학이 역할 수행을 못하는 원인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예술대학의 성장을 저하하는 요인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학부 재학생(54.8%)은 '대학의 예술교육시설 투자 부족'의 응답율이 가장 높은(54.8%) 반면, 전임교원은 '예술대학에 대한 정부의 열악한 재정지원 및 무관심'의 응답율이 가장 높음(40.0%)
- 연령 특성별로 살펴보면, 20세이하(57.1%), 21-24세(64.3%)는 '대학의 예술교육시설 투자 부족'을, 25-29세(35.7%), 30-39세(44.4%), 40-49세(42.9%)는 '동시대 예술과 현장성을 반영하지 않는 교육커리큘럼'의 응답율이 가장 높음

[표 3-3] 예술대학이 역할 수행을 못하는 원인-1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대학의 예술교육시설 투자 부족	예술대학에 대한 정부의 열악한 재정지원 및 무관심	동시대 예술과 현장성을 반영하지 않는 교육커리큘럼	예술대학과 예술현장의 연결 부재
전 체		(72)	45.8	20.8	19.4	13.9
소속	학부 재학	(42)	54.8	23.8	7.1	14.3
	대학원 재학	(4)	50.0	0.0	25.0	25.0
	졸업생	(10)	30.0	0.0	40.0	30.0
	전임 교원(교수)	(10)	30.0	40.0	30.0	0.0
	비전임 교원(강사)	(5)	40.0	20.0	40.0	0.0
	기타	(1)	0.0	0.0	100.0	0.0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66)	45.5	22.7	16.7	15.2
	전문대학(2,3년제)	(1)	100.0	0.0	0.0	0.0
	예술특성화 대학	(4)	25.0	0.0	75.0	0.0
	기타	(1)	100.0	0.0	0.0	0.0
설립 유형	국공립	(14)	35.7	21.4	28.6	14.3
	사립	(58)	48.3	20.7	17.2	13.8
전공	시각예술	(32)	50.0	18.8	18.8	12.5
	연극	(4)	25.0	0.0	50.0	25.0
	무용	(1)	100.0	0.0	0.0	0.0
	음악	(17)	47.1	41.2	0.0	11.8
	국악	(9)	44.4	11.1	33.3	11.1
	영상/미디어	(6)	50.0	0.0	16.7	33.3
	기타	(3)	0.0	33.3	66.7	0.0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50)	48.0	20.0	18.0	14.0
	충청/대전/세종	(13)	46.2	15.4	23.1	15.4
	경상/대구/부산/울산	(2)	0.0	0.0	100.0	0.0
	전라/광주/전주	(6)	50.0	33.3	0.0	16.7
	강원/제주	(1)	0.0	100.0	0.0	0.0
성별	남자	(18)	27.8	16.7	44.4	11.1
	여자	(54)	51.9	22.2	11.1	14.8
연령	20세 이하	(7)	57.1	28.6	0.0	14.3
	21-24세	(28)	64.3	21.4	3.6	10.7
	25-29세	(14)	21.4	14.3	35.7	28.6
	30-39세	(9)	33.3	0.0	44.4	22.2
	40-49세	(7)	28.6	28.6	42.9	0.0
	50세 이상	(7)	42.9	42.9	14.3	0.0

[표 3-4] 예술대학이 역할 수행을 못하는 원인-종합순위(1+2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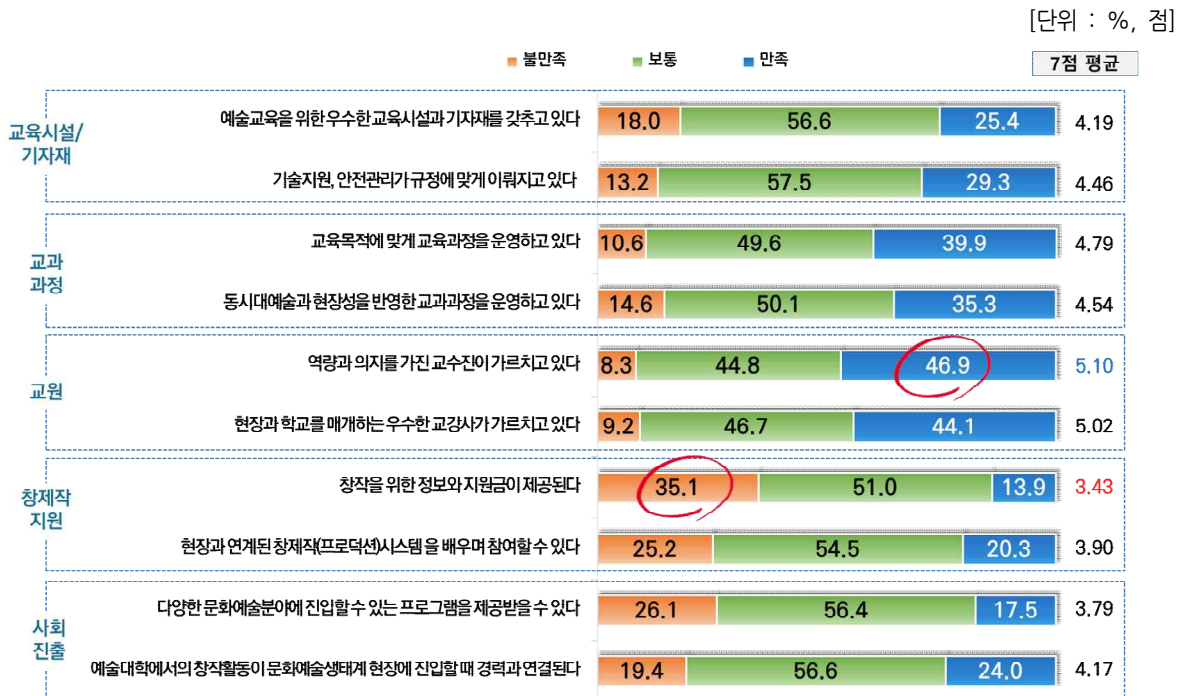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대학의 예술교육시설 투자 부족	예술대학에 대한 정부의 열악한 재정지원 및 무관심	예술대학과 예술현장의 연결 부재	동시대 예술과 현장성을 반영하지 않는 교육커리큘럼	기타
전 체		(72)	63.9	55.6	43.1	34.7	2.8
소속	학부 재학	(42)	76.2	66.7	35.7	19.0	2.4
	대학원 재학	(4)	50.0	25.0	75.0	50.0	0.0
	졸업생	(10)	30.0	30.0	60.0	70.0	10.0
	전임 교원(교수)	(10)	60.0	70.0	30.0	40.0	0.0
	비전임 교원(강사)	(5)	60.0	20.0	60.0	60.0	0.0
	기타	(1)	0.0	0.0	100.0	100.0	0.0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66)	63.6	57.6	43.9	31.8	3.0
	전문대학(2,3년제)	(1)	100.0	100.0	0.0	0.0	0.0
	예술특성화 대학	(4)	50.0	25.0	50.0	75.0	0.0
	기타	(1)	100.0	0.0	0.0	100.0	0.0
설립 유형	국공립	(14)	57.1	64.3	42.9	35.7	0.0
	사립	(58)	65.5	53.4	43.1	34.5	3.4
전공	시각예술	(32)	65.6	53.1	40.6	34.4	6.3
	연극	(4)	50.0	50.0	25.0	75.0	0.0
	무용	(1)	100.0	0.0	100.0	0.0	0.0
	음악	(17)	82.4	70.6	41.2	5.9	0.0
	국악	(9)	44.4	44.4	55.6	55.6	0.0
	영상/미디어	(6)	50.0	66.7	50.0	33.3	0.0
	기타	(3)	33.3	33.3	33.3	100.0	0.0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50)	66.0	54.0	42.0	36.0	2.0
	충청/대전/세종	(13)	69.2	61.5	38.5	30.8	0.0
	경상/대구/부산/울산	(2)	0.0	50.0	50.0	100.0	0.0
	전라/광주/전주	(6)	66.7	50.0	66.7	16.7	0.0
	강원/제주	(1)	0.0	100.0	0.0	0.0	100.0
성별	남자	(18)	38.9	33.3	55.6	61.1	11.1
	여자	(54)	72.2	63.0	38.9	25.9	0.0
연령	20세 이하	(7)	71.4	57.1	42.9	28.6	0.0
	21-24세	(28)	89.3	71.4	25.0	14.3	0.0
	25-29세	(14)	28.6	42.9	64.3	50.0	14.3
	30-39세	(9)	33.3	33.3	77.8	55.6	0.0
	40-49세	(7)	57.1	42.9	42.9	57.1	0.0
	50세 이상	(7)	71.4	57.1	28.6	42.9	0.0

2)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전체 비교

조사 결과

-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를 항목별로 비교해보면, 역량과 의지를 가진 교수진이 가르치고 있다는 항목이 5.10점(7점 평균)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현장과 학교를 매개하는 우수한 교·강사가 가르치고 있다(5.02점), 교육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4.79점), 동시대예술과 현장성을 반영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4.5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한편, 창작을 위한 정보와 지원금이 제공된다는 항목이 3.43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3.79점), 현장과 연계된 창·제작(프로덕션)시스템을 배우며 참여할 수 있다(3.90점)는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그림 3-4]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전체 비교



[표 3-5]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전체 비교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불만족 (①+②)	보통 (③+④+⑤)	만족 (⑥+⑦)	7점 평균	100점 평균
교육시설/ 기자재	예술교육을 위한 우수한 교육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다	(567)	18.0	56.6	25.4	4.19	53.2
	기술지원, 안전관리가 규정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	(567)	13.2	57.5	29.3	4.46	57.6
교과과정	교육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567)	10.6	49.6	39.9	4.79	63.2
	동시대예술과 현장성을 반영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567)	14.6	50.1	35.3	4.54	58.9
교원	역량과 의지를 가진 교수진이 가르치고 있다	(567)	8.3	44.8	46.9	5.10	68.3
	현장과 학교를 매개하는 우수한 교·강사가 가르치고 있다	(567)	9.2	46.7	44.1	5.02	66.9
창·제작 지원	창작을 위한 정보와 지원금이 제공된다	(567)	35.1	51.0	13.9	3.43	40.4
	현장과연계된 창·제작(프로덕션)시스템을 배우며 참여할 수 있다	(567)	25.2	54.5	20.3	3.90	48.4
사회진출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567)	26.1	56.4	17.5	3.79	46.5
	예술대학에서의 창작활동이 문화예술생태계 현장에 진입할 때 경력과 연결된다	(567)	19.4	56.6	24.0	4.17	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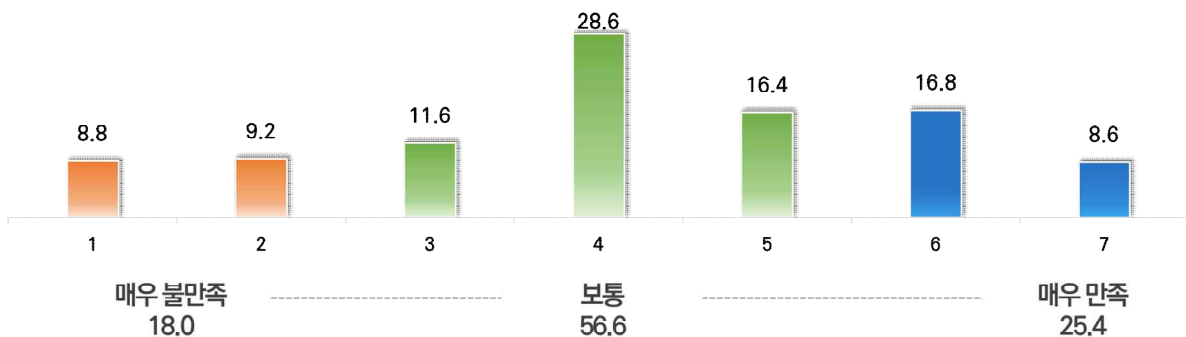
2-1)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 - 예술교육을 위한 우수한 교육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다

조사 결과

- 예술교육을 위한 우수한 교육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는 긍정 응답 비율이 25.4%(⑥ 16.8% + ⑦ 8.6%), ‘불만족’ 한다는 부정 응답 비율은 18.0%(① 8.8% + ② 9.2%)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응답 비율은 56.6%(③ 11.6% + ④ 28.6% + ⑤ 16.4%)로 나타났음
- 7점 평균은 4.19점, 100점 평균은 53.2점으로 나타났음

[그림 3-5]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예술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및 기자재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예술교육을 위한 교육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다’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 보면, 대학생(54.7점), 전임 교원(교수)(53.0점), 영상/미디어(54.2점), 시각예술(54.1점), 남자(54.4점), 20세 이하(64.5점)에서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3-6]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예술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및 기자재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불만 족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만족 ⑦	불만족	보통	만족	7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567)	8.8	9.2	11.6	28.6	16.4	16.8	8.6	18.0	56.6	25.4	4.19	53.2
소속	학부 재학	(393)	7.4	9.7	12.5	24.9	18.6	17.6	9.4	17.0	56.0	27.0	4.28	54.7
	대학원 재학	(37)	16.2	8.1	13.5	37.8	8.1	10.8	5.4	24.3	59.5	16.2	3.68	44.6
	졸업생	(61)	9.8	8.2	13.1	31.1	11.5	14.8	11.5	18.0	55.7	26.2	4.16	52.7
	전임 교원(교수)	(45)	11.1	6.7	4.4	40.0	13.3	17.8	6.7	17.8	57.8	24.4	4.18	53.0
	비전임 교원(강사)	(22)	13.6	9.1	9.1	36.4	13.6	18.2	0.0	22.7	59.1	18.2	3.82	47.0
	기타	(9)	11.1	11.1	0.0	55.6	11.1	11.1	0.0	22.2	66.7	11.1	3.78	46.3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67)	9.0	10.3	12.6	26.8	16.3	17.1	7.9	19.3	55.7	25.1	4.14	52.4
	전문대학(2,3년제)	(26)	11.5	3.8	0.0	42.3	30.8	3.8	7.7	15.4	73.1	11.5	4.19	53.2
	예술특성화 대학	(64)	4.7	3.1	9.4	34.4	14.1	20.3	14.1	7.8	57.8	34.4	4.67	61.2
	사이버대학	(2)	0.0	0.0	0.0	50.0	0.0	50.0	0.0	0.0	50.0	50.0	5.00	66.7
	기타	(8)	25.0	12.5	12.5	37.5	0.0	0.0	12.5	37.5	50.0	12.5	3.25	37.5
설립 유형	국공립	(162)	5.6	8.0	12.3	31.5	13.6	17.3	11.7	13.6	57.4	29.0	4.38	56.4
	사립	(405)	10.1	9.6	11.4	27.4	17.5	16.5	7.4	19.8	56.3	24.0	4.12	52.0
전공	문학	(18)	5.6	0.0	11.1	16.7	27.8	22.2	16.7	5.6	55.6	38.9	4.94	65.7
	시각예술	(283)	8.8	9.2	14.1	23.3	16.3	17.3	11.0	18.0	53.7	28.3	4.25	54.1
	연극	(47)	6.4	17.0	10.6	27.7	14.9	14.9	8.5	23.4	53.2	23.4	4.06	51.1
	무용	(20)	10.0	0.0	5.0	45.0	20.0	15.0	5.0	10.0	70.0	20.0	4.30	55.0
	음악	(76)	11.8	9.2	14.5	26.3	15.8	18.4	3.9	21.1	56.6	22.4	3.96	49.3
	국악	(34)	11.8	5.9	8.8	41.2	14.7	8.8	8.8	17.6	64.7	17.6	4.03	50.5
	영상/미디어	(60)	6.7	11.7	6.7	33.3	15.0	20.0	6.7	18.3	55.0	26.7	4.25	54.2
	기타	(29)	6.9	6.9	0.0	58.6	17.2	10.3	0.0	13.8	75.9	10.3	4.03	50.6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92)	9.4	8.4	12.8	25.8	18.1	15.3	10.2	17.9	56.6	25.5	4.21	53.6
	충청/대전/세종	(103)	8.7	9.7	10.7	27.2	12.6	25.2	5.8	18.4	50.5	31.1	4.24	54.0
	경상/대구/부산/울산	(21)	4.8	23.8	0.0	33.3	19.0	9.5	9.5	28.6	52.4	19.0	4.05	50.8
	전라/광주/전주	(36)	5.6	5.6	11.1	47.2	11.1	16.7	2.8	11.1	69.4	19.4	4.14	52.3
	강원/제주	(15)	6.7	13.3	6.7	60.0	6.7	6.7	0.0	20.0	73.3	6.7	3.67	44.4
성별	남자	(106)	8.5	10.4	9.4	31.1	8.5	22.6	9.4	18.9	49.1	32.1	4.26	54.4
	여자	(458)	9.0	9.0	12.2	27.7	18.3	15.3	8.5	17.9	58.3	23.8	4.17	52.9
	기타	(3)	0.0	0.0	0.0	66.7	0.0	33.3	0.0	0.0	66.7	33.3	4.67	61.1
연령	20세 이하	(84)	4.8	2.4	10.7	26.2	13.1	25.0	17.9	7.1	50.0	42.9	4.87	64.5
	21-24세	(271)	8.9	10.7	13.3	24.7	19.2	16.2	7.0	19.6	57.2	23.2	4.11	51.9
	25-29세	(96)	7.3	11.5	13.5	31.3	17.7	10.4	8.3	18.8	62.5	18.8	4.05	50.9
	30-39세	(41)	17.1	12.2	9.8	31.7	9.8	14.6	4.9	29.3	51.2	19.5	3.68	44.7
	40-49세	(32)	9.4	3.1	3.1	46.9	9.4	25.0	3.1	12.5	59.4	28.1	4.31	55.2
	50세 이상	(43)	11.6	9.3	7.0	34.9	14.0	14.0	9.3	20.9	55.8	23.3	4.09	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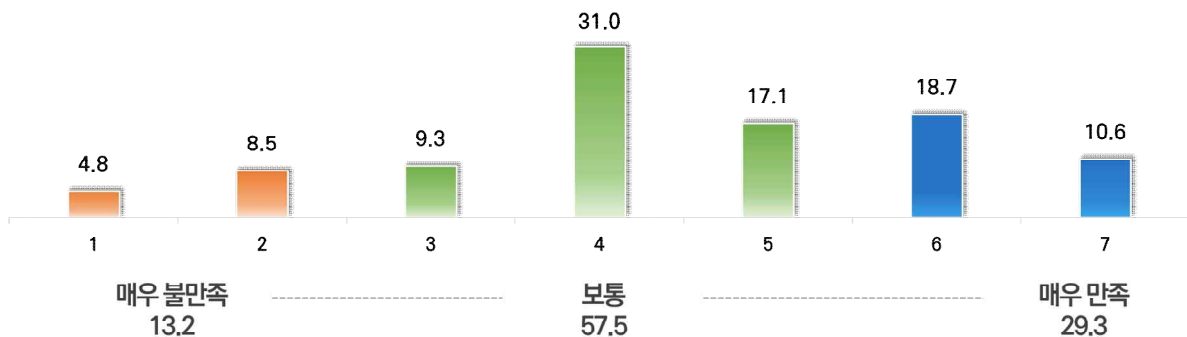
2-2)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 - 기술지원, 안전관리가 규정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

조사 결과

- 기술지원, 안전관리가 규정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는 긍정 응답 비율이 29.3%(⑥ 18.7% + ⑦ 10.6%), '불만족'한다는 부정 응답 비율은 13.2%(① 4.8% + ② 8.5%)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응답 비율은 57.5%(③ 9.3% + ④ 31.0% + ⑤ 17.1%)로 나타났음
- 7점 평균은 4.46점, 100점 평균은 57.6점으로 나타났음

[그림 3-6]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기술지원/안전관리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기술지원, 안전관리가 규정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생(59.8점), 전임 교원(교수)(54.8점), 영상/미디어(60.0점), 시각예술(59.0점), 남자(57.7점), 20세 이하(67.5점)에서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3-7]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기술지원/안전관리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불만 족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만족 ⑦	불만족	보통	만족	7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567)	4.8	8.5	9.3	31.0	17.1	18.7	10.6	13.2	57.5	29.3	4.46	57.6
소속	학부 재학	(393)	3.6	7.4	9.4	29.8	18.1	19.6	12.2	10.9	57.3	31.8	4.59	59.8
	대학원 재학	(37)	5.4	13.5	16.2	32.4	8.1	16.2	8.1	18.9	56.8	24.3	4.05	50.9
	졸업생	(61)	6.6	11.5	6.6	32.8	16.4	18.0	8.2	18.0	55.7	26.2	4.28	54.6
	전임 교원(교수)	(45)	8.9	8.9	6.7	33.3	13.3	20.0	8.9	17.8	53.3	28.9	4.29	54.8
	비전임 교원(강사)	(22)	13.6	9.1	9.1	31.8	27.3	9.1	0.0	22.7	68.2	9.1	3.77	46.2
	기타	(9)	0.0	11.1	11.1	55.6	11.1	11.1	0.0	11.1	77.8	11.1	4.00	50.0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67)	4.9	8.1	10.3	31.3	16.3	17.6	11.6	13.1	57.8	29.1	4.45	57.5
	전문대학(2,3년제)	(26)	11.5	3.8	3.8	19.2	34.6	19.2	7.7	15.4	57.7	26.9	4.50	58.3
	예술특성화 대학	(64)	1.6	10.9	4.7	34.4	17.2	26.6	4.7	12.5	56.3	31.3	4.53	58.9
	사이버대학	(2)	0.0	0.0	0.0	50.0	50.0	0.0	0.0	0.0	100.0	0.0	4.50	58.3
	기타	(8)	0.0	25.0	12.5	25.0	0.0	25.0	12.5	25.0	37.5	37.5	4.25	54.2
설립 유형	국공립	(162)	5.6	3.7	6.2	34.6	16.7	18.5	14.8	9.3	57.4	33.3	4.68	61.3
	사립	(405)	4.4	10.4	10.6	29.6	17.3	18.8	8.9	14.8	57.5	27.7	4.37	56.1
전공	문학	(18)	5.6	0.0	0.0	22.2	22.2	38.9	11.1	5.6	44.4	50.0	5.17	69.4
	시각예술	(283)	3.9	9.5	8.5	30.0	17.0	17.0	14.1	13.4	55.5	31.1	4.54	59.0
	연극	(47)	4.3	14.9	4.3	29.8	19.1	21.3	6.4	19.1	53.2	27.7	4.34	55.7
	무용	(20)	15.0	0.0	5.0	45.0	15.0	15.0	5.0	15.0	65.0	20.0	4.10	51.7
	음악	(76)	6.6	7.9	14.5	23.7	18.4	19.7	9.2	14.5	56.6	28.9	4.36	55.9
	국악	(34)	11.8	11.8	2.9	35.3	14.7	20.6	2.9	23.5	52.9	23.5	4.03	50.5
	영상/미디어	(60)	1.7	5.0	10.0	36.7	16.7	21.7	8.3	6.7	63.3	30.0	4.60	60.0
	기타	(29)	0.0	3.4	27.6	41.4	13.8	10.3	3.4	3.4	82.8	13.8	4.10	51.7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92)	4.6	9.7	9.2	27.8	18.6	18.6	11.5	14.3	55.6	30.1	4.48	58.0
	충청/대전/세종	(103)	4.9	2.9	11.7	34.0	17.5	19.4	9.7	7.8	63.1	29.1	4.53	58.9
	경상/대구/부산/울산	(21)	9.5	19.0	4.8	38.1	9.5	9.5	9.5	28.6	52.4	19.0	3.86	47.6
	전라/광주/전주	(36)	5.6	5.6	5.6	50.0	5.6	19.4	8.3	11.1	61.1	27.8	4.36	56.0
	강원/제주	(15)	0.0	6.7	13.3	40.0	13.3	26.7	0.0	6.7	66.7	26.7	4.40	56.7
성별	남자	(106)	6.6	9.4	8.5	29.2	13.2	18.9	14.2	16.0	50.9	33.0	4.46	57.7
	여자	(458)	4.4	8.3	9.6	31.2	18.1	18.6	9.8	12.7	59.0	28.4	4.45	57.6
	기타	(3)	0.0	0.0	0.0	66.7	0.0	33.3	0.0	0.0	66.7	33.3	4.67	61.1
연령	20세 이하	(84)	3.6	2.4	6.0	26.2	19.0	21.4	21.4	6.0	51.2	42.9	5.05	67.5
	21-24세	(271)	3.3	8.9	8.5	32.5	18.1	18.8	10.0	12.2	59.0	28.8	4.49	58.2
	25-29세	(96)	3.1	10.4	14.6	28.1	17.7	16.7	9.4	13.5	60.4	26.0	4.34	55.7
	30-39세	(41)	14.6	12.2	14.6	29.3	9.8	19.5	0.0	26.8	53.7	19.5	3.66	44.3
	40-49세	(32)	6.3	9.4	6.3	43.8	9.4	18.8	6.3	15.6	59.4	25.0	4.22	53.6
	50세 이상	(43)	9.3	9.3	7.0	30.2	18.6	16.3	9.3	18.6	55.8	25.6	4.26	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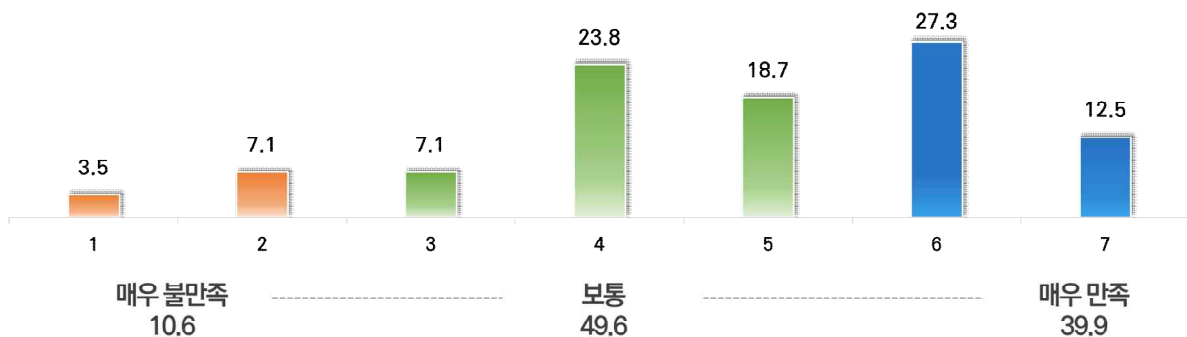
2-3)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 - 교육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

- 교육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는 긍정 응답 비율이 39.9%(⑥ 27.3% + ⑦ 12.5%), ‘불만족’한다는 부정 응답 비율은 10.6%(① 3.5% + ② 7.1%)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응답 비율은 49.6%(③ 7.1% + ④ 23.8% + ⑤ 18.7%)로 나타났음
- 7점 평균은 4.79점, 100점 평균은 63.2점으로 나타났음

[그림 3-7]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교육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교육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65.3점), 전임 교원(교수)(64.1점), 시각예술(64.5점), 영상/미디어(62.5점), 연극(62.4점) 여자(64.1점), 20세 이하(73.2점)에서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예술특성화 대학 5.23점

[표3-8]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교육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불만 족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만족 ⑦	불만족	보통	만족	7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567)	3.5	7.1	7.1	23.8	18.7	27.3	12.5	10.6	49.6	39.9	4.79	63.2
소속	학부 재학	(393)	3.1	6.1	6.1	23.9	18.1	27.0	15.8	9.2	48.1	42.7	4.92	65.3
	대학원 재학	(37)	2.7	8.1	8.1	27.0	13.5	32.4	8.1	10.8	48.6	40.5	4.70	61.7
	졸업생	(61)	8.2	8.2	8.2	26.2	19.7	24.6	4.9	16.4	54.1	29.5	4.34	55.7
	전임 교원(교수)	(45)	2.2	2.2	13.3	17.8	24.4	35.6	4.4	4.4	55.6	40.0	4.84	64.1
	비전임 교원(강사)	(22)	0.0	22.7	4.5	22.7	22.7	27.3	0.0	22.7	50.0	27.3	4.27	54.5
	기타	(9)	11.1	22.2	11.1	22.2	22.2	0.0	11.1	33.3	55.6	11.1	3.67	44.4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67)	3.9	8.1	7.1	25.1	16.3	27.0	12.6	12.0	48.4	39.6	4.73	62.2
	전문대학(2,3년제)	(26)	3.8	0.0	7.7	15.4	50.0	15.4	7.7	3.8	73.1	23.1	4.85	64.1
	예술특성화 대학	(64)	1.6	3.1	4.7	17.2	21.9	37.5	14.1	4.7	43.8	51.6	5.23	70.6
	사이버대학	(2)	0.0	0.0	0.0	50.0	50.0	0.0	0.0	0.0	100.0	0.0	4.50	58.3
	기타	(8)	0.0	0.0	25.0	25.0	25.0	12.5	12.5	0.0	75.0	25.0	4.63	60.4
설립 유형	국공립	(162)	3.1	8.0	7.4	18.5	20.4	29.0	13.6	11.1	46.3	42.6	4.86	64.4
	사립	(405)	3.7	6.7	6.9	25.9	18.0	26.7	12.1	10.4	50.9	38.8	4.76	62.7
전공	문학	(18)	5.6	0.0	5.6	16.7	22.2	33.3	16.7	5.6	44.4	50.0	5.17	69.4
	시각예술	(283)	3.5	6.7	7.8	22.3	18.0	24.4	17.3	10.2	48.1	41.7	4.87	64.5
	연극	(47)	6.4	4.3	6.4	23.4	14.9	40.4	4.3	10.6	44.7	44.7	4.74	62.4
	무용	(20)	0.0	5.0	20.0	20.0	20.0	25.0	10.0	5.0	60.0	35.0	4.70	61.7
	음악	(76)	3.9	7.9	5.3	35.5	17.1	22.4	7.9	11.8	57.9	30.3	4.53	58.8
	국악	(34)	2.9	14.7	2.9	20.6	14.7	38.2	5.9	17.6	38.2	44.1	4.68	61.3
	영상/미디어	(60)	1.7	10.0	6.7	20.0	23.3	31.7	6.7	11.7	50.0	38.3	4.75	62.5
	기타	(29)	3.4	3.4	3.4	27.6	27.6	24.1	10.3	6.9	58.6	34.5	4.86	64.4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92)	3.3	5.1	7.7	24.0	17.6	27.0	15.3	8.4	49.2	42.3	4.90	65.0
	충청/대전/세종	(103)	4.9	8.7	4.9	25.2	18.4	29.1	8.7	13.6	48.5	37.9	4.66	61.0
	경상/대구/부산/울산	(21)	4.8	9.5	9.5	14.3	33.3	23.8	4.8	14.3	57.1	28.6	4.52	58.7
	전라/광주/전주	(36)	2.8	16.7	2.8	19.4	22.2	33.3	2.8	19.4	44.4	36.1	4.53	58.8
	강원/제주	(15)	0.0	20.0	13.3	33.3	20.0	13.3	0.0	20.0	66.7	13.3	3.93	48.9
성별	남자	(106)	7.5	7.5	10.4	22.6	12.3	29.2	10.4	15.1	45.3	39.6	4.54	59.0
	여자	(458)	2.6	7.0	6.3	24.0	20.3	26.6	13.1	9.6	50.7	39.7	4.85	64.1
	기타	(3)	0.0	0.0	0.0	33.3	0.0	66.7	0.0	0.0	33.3	66.7	5.33	72.2
연령	20세 이하	(84)	1.2	3.6	4.8	19.0	16.7	26.2	28.6	4.8	40.5	54.8	5.39	73.2
	21-24세	(271)	3.3	7.0	5.5	22.9	19.9	27.3	14.0	10.3	48.3	41.3	4.87	64.5
	25-29세	(96)	4.2	7.3	8.3	32.3	18.8	26.0	3.1	11.5	59.4	29.2	4.45	57.5
	30-39세	(41)	9.8	9.8	12.2	24.4	9.8	29.3	4.9	19.5	46.3	34.1	4.22	53.7
	40-49세	(32)	6.3	15.6	9.4	21.9	15.6	28.1	3.1	21.9	46.9	31.3	4.22	53.6
	50세 이상	(43)	0.0	4.7	11.6	20.9	25.6	30.2	7.0	4.7	58.1	37.2	4.86	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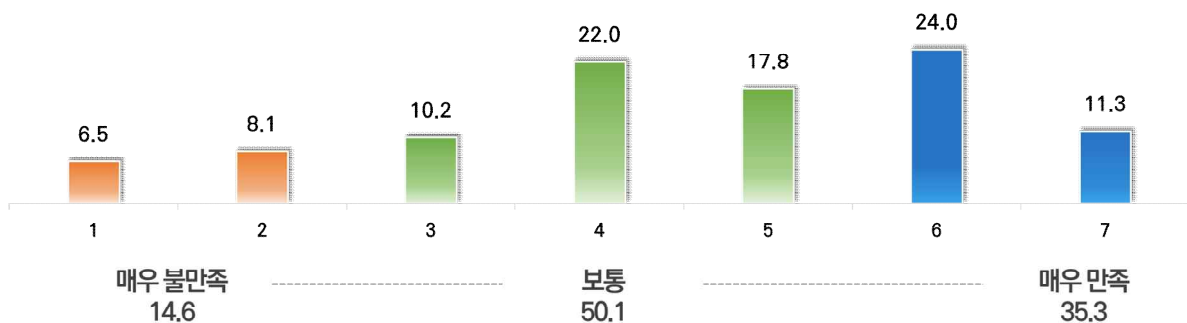
2-4)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 - 동시대예술과 현장성을 반영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

- 동시대예술과 현장성을 반영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는 긍정 응답 비율이 35.3%(⑥ 24.0% + ⑦ 11.3%), ‘불만족’한다는 부정 응답 비율은 14.6% (① 6.5% + ② 8.1%)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응답 비율은 50.1%(③ 10.2% + ④ 22.0% + ⑤ 17.8%)로 나타났음
- 7점 평균은 4.54점, 100점 평균은 58.9점으로 나타났음

[그림 3-8]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현장성을 반영한 교과과정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동시대예술과 현장성을 반영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생(61.4점), 대학원생(57.2점), 시각예술(61.8점), 영상/미디어(61.1점), 국악(56.9점) 여자(59.0점), 20세 이하(68.7점)에서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3-9]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현장성을 반영한 교과과정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불만 족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만족 ⑦	불만족	보통	만족	7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567)	6.5	8.1	10.2	22.0	17.8	24.0	11.3	14.6	50.1	35.3	4.54	58.9
소속	학부 재학	(393)	5.1	6.4	10.9	21.9	17.6	24.7	13.5	11.5	50.4	38.2	4.68	61.4
	대학원 재학	(37)	5.4	13.5	5.4	29.7	13.5	18.9	13.5	18.9	48.6	32.4	4.43	57.2
	졸업생	(61)	9.8	14.8	11.5	18.0	23.0	16.4	6.6	24.6	52.5	23.0	4.05	50.8
	전임 교원(교수)	(45)	11.1	6.7	6.7	24.4	13.3	33.3	4.4	17.8	44.4	37.8	4.40	56.7
	비전임 교원(강사)	(22)	9.1	13.6	9.1	22.7	22.7	22.7	0.0	22.7	54.5	22.7	4.05	50.8
	기타	(9)	22.2	11.1	11.1	11.1	22.2	22.2	0.0	33.3	44.4	22.2	3.67	44.4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67)	7.7	7.5	11.3	22.5	17.6	21.8	11.6	15.2	51.4	33.4	4.46	57.7
	전문대학(2,3년제)	(26)	0.0	3.8	7.7	34.6	26.9	19.2	7.7	3.8	69.2	26.9	4.73	62.2
	예술특성화 대학	(64)	1.6	14.1	4.7	9.4	15.6	42.2	12.5	15.6	29.7	54.7	5.00	66.7
	사이버대학	(2)	0.0	0.0	0.0	50.0	50.0	0.0	0.0	0.0	100.0	0.0	4.50	58.3
	기타	(8)	0.0	12.5	0.0	50.0	12.5	25.0	0.0	12.5	62.5	25.0	4.38	56.3
설립 유형	국공립	(162)	6.2	10.5	8.0	22.2	14.8	24.7	13.6	16.7	45.1	38.3	4.57	59.6
	사립	(405)	6.7	7.2	11.1	22.0	19.0	23.7	10.4	13.8	52.1	34.1	4.52	58.7
전공	문학	(18)	0.0	11.1	0.0	16.7	22.2	50.0	0.0	11.1	38.9	50.0	5.00	66.7
	시각예술	(283)	6.4	7.4	9.9	18.7	17.0	24.4	16.3	13.8	45.6	40.6	4.71	61.8
	연극	(47)	6.4	17.0	2.1	25.5	17.0	25.5	6.4	23.4	44.7	31.9	4.32	55.3
	무용	(20)	0.0	15.0	20.0	30.0	10.0	20.0	5.0	15.0	60.0	25.0	4.15	52.5
	음악	(76)	10.5	3.9	21.1	31.6	11.8	14.5	6.6	14.5	64.5	21.1	4.00	50.0
	국악	(34)	8.8	11.8	5.9	20.6	20.6	20.6	11.8	20.6	47.1	32.4	4.41	56.9
	영상/미디어	(60)	3.3	8.3	10.0	16.7	26.7	28.3	6.7	11.7	53.3	35.0	4.67	61.1
	기타	(29)	10.3	0.0	3.4	34.5	24.1	24.1	3.4	10.3	62.1	27.6	4.48	58.0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92)	7.1	8.2	10.2	20.2	16.6	25.0	12.8	15.3	46.9	37.8	4.57	59.5
	충청/대전/세종	(103)	4.9	3.9	11.7	24.3	21.4	24.3	9.7	8.7	57.3	34.0	4.65	60.8
	경상/대구/부산/울산	(21)	9.5	4.8	4.8	23.8	23.8	28.6	4.8	14.3	52.4	33.3	4.52	58.7
	전라/광주/전주	(36)	5.6	13.9	8.3	27.8	22.2	16.7	5.6	19.4	58.3	22.2	4.19	53.2
	강원/제주	(15)	0.0	26.7	13.3	40.0	6.7	6.7	6.7	26.7	60.0	13.3	3.73	45.6
성별	남자	(106)	8.5	9.4	10.4	18.9	14.2	25.5	13.2	17.9	43.4	38.7	4.50	58.3
	여자	(458)	6.1	7.9	10.3	22.7	18.6	23.6	10.9	14.0	51.5	34.5	4.54	59.0
	기타	(3)	0.0	0.0	0.0	33.3	33.3	33.3	0.0	0.0	66.7	33.3	5.00	66.7
연령	20세 이하	(84)	3.6	0.0	8.3	23.8	15.5	31.0	17.9	3.6	47.6	48.8	5.12	68.7
	21-24세	(271)	4.8	7.7	10.7	20.7	18.8	24.4	12.9	12.5	50.2	37.3	4.66	60.9
	25-29세	(96)	9.4	10.4	12.5	26.0	19.8	12.5	9.4	19.8	58.3	21.9	4.11	51.9
	30-39세	(41)	9.8	17.1	12.2	14.6	14.6	26.8	4.9	26.8	41.5	31.7	4.07	51.2
	40-49세	(32)	18.8	12.5	3.1	25.0	18.8	18.8	3.1	31.3	46.9	21.9	3.81	46.9
	50세 이상	(43)	4.7	9.3	9.3	23.3	14.0	34.9	4.7	14.0	46.5	39.5	4.56	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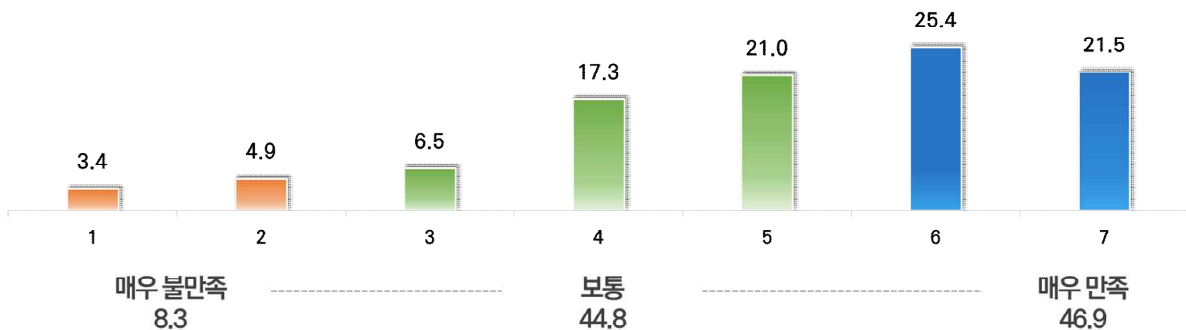
2-5)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 - 역량과 의지를 가진 교수진이 가르치고 있다

조사 결과

- 역량과 의지를 가진 교수진이 가르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는 긍정 응답 비율이 46.9%(⑥ 25.4% + ⑦ 21.5%), ‘불만족’한다는 부정 응답 비율은 8.3%(① 3.4% + ② 4.9%)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응답 비율은 44.8%(③ 6.5% + ④ 17.3% + ⑤ 21.0%)로 나타났음
- 7점 평균은 5.10점, 100점 평균은 68.3점으로 나타났음

[그림 3-9]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역량과 의지를 가진 교수진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역량과 의지를 가진 교수진이 가르치고 있다’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생(71.2점), 전임 교원(교수)(68.9점), 시각예술(71.7점), 연극(68.4점), 남자(70.6점), 20세 이하(77.8점)에서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3-10]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역량과 의지를 가진 교수진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불만 족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만족 ⑦	불만족	보통	만족	7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567)	3.4	4.9	6.5	17.3	21.0	25.4	21.5	8.3	44.8	46.9	5.10	68.3
소속	학부 재학	(393)	2.8	4.8	5.3	14.8	20.6	25.2	26.5	7.6	40.7	51.7	5.27	71.2
	대학원 재학	(37)	5.4	10.8	5.4	16.2	13.5	27.0	21.6	16.2	35.1	48.6	4.89	64.9
	졸업생	(61)	4.9	3.3	13.1	31.1	24.6	21.3	1.6	8.2	68.9	23.0	4.38	56.3
	전임 교원(교수)	(45)	2.2	4.4	8.9	11.1	22.2	37.8	13.3	6.7	42.2	51.1	5.13	68.9
	비전임 교원(강사)	(22)	4.5	4.5	4.5	36.4	22.7	18.2	9.1	9.1	63.6	27.3	4.59	59.8
	기타	(9)	11.1	0.0	11.1	22.2	33.3	11.1	11.1	11.1	66.7	22.2	4.44	57.4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67)	3.9	5.1	6.9	17.8	20.6	23.6	22.3	9.0	45.2	45.8	5.06	67.6
	전문대학(2,3년제)	(26)	0.0	0.0	0.0	26.9	38.5	26.9	7.7	0.0	65.4	34.6	5.15	69.2
	예술특성화 대학	(64)	1.6	4.7	6.3	12.5	12.5	37.5	25.0	6.3	31.3	62.5	5.42	73.7
	사이버대학	(2)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0.0	5.00	66.7
	기타	(8)	0.0	12.5	12.5	0.0	37.5	37.5	0.0	12.5	50.0	37.5	4.75	62.5
설립 유형	국공립	(162)	4.9	4.3	6.8	17.9	18.5	24.7	22.8	9.3	43.2	47.5	5.06	67.7
	사립	(405)	2.7	5.2	6.4	17.0	22.0	25.7	21.0	7.9	45.4	46.7	5.11	68.6
전공	문학	(18)	0.0	5.6	5.6	16.7	27.8	33.3	11.1	5.6	50.0	44.4	5.11	68.5
	시각예술	(283)	1.8	6.0	5.7	14.1	20.8	22.3	29.3	7.8	40.6	51.6	5.30	71.7
	연극	(47)	2.1	4.3	4.3	23.4	21.3	25.5	19.1	6.4	48.9	44.7	5.11	68.4
	무용	(20)	5.0	10.0	15.0	10.0	25.0	10.0	25.0	15.0	50.0	35.0	4.70	61.7
	음악	(76)	6.6	3.9	13.2	17.1	18.4	30.3	10.5	10.5	48.7	40.8	4.70	61.6
	국악	(34)	5.9	8.8	0.0	29.4	8.8	35.3	11.8	14.7	38.2	47.1	4.79	63.2
	영상/미디어	(60)	8.3	0.0	5.0	26.7	21.7	25.0	13.3	8.3	53.3	38.3	4.82	63.6
	기타	(29)	0.0	0.0	6.9	10.3	34.5	37.9	10.3	0.0	51.7	48.3	5.34	72.4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92)	2.3	5.1	7.4	14.8	20.7	24.7	25.0	7.4	42.9	49.7	5.21	70.1
	충청/대전/세종	(103)	6.8	3.9	5.8	19.4	19.4	27.2	17.5	10.7	44.7	44.7	4.92	65.4
	경상/대구/부산/울산	(21)	9.5	0.0	0.0	33.3	28.6	28.6	0.0	9.5	61.9	28.6	4.57	59.5
	전라/광주/전주	(36)	2.8	11.1	5.6	27.8	13.9	30.6	8.3	13.9	47.2	38.9	4.64	60.6
	강원/제주	(15)	0.0	0.0	0.0	20.0	46.7	13.3	20.0	0.0	66.7	33.3	5.33	72.2
성별	남자	(106)	2.8	1.9	7.5	19.8	15.1	30.2	22.6	4.7	42.5	52.8	5.24	70.6
	여자	(458)	3.5	5.7	6.3	16.6	22.3	24.2	21.4	9.2	45.2	45.6	5.07	67.8
	기타	(3)	0.0	0.0	0.0	33.3	33.3	33.3	0.0	0.0	66.7	33.3	5.00	66.7
연령	20세 이하	(84)	1.2	3.6	4.8	9.5	19.0	22.6	39.3	4.8	33.3	61.9	5.67	77.8
	21-24세	(271)	3.0	5.2	4.8	15.5	22.1	26.2	23.2	8.1	42.4	49.4	5.20	70.0
	25-29세	(96)	6.3	5.2	11.5	26.0	19.8	18.8	12.5	11.5	57.3	31.3	4.54	59.0
	30-39세	(41)	0.0	7.3	9.8	22.0	12.2	31.7	17.1	7.3	43.9	48.8	5.02	67.1
	40-49세	(32)	9.4	3.1	6.3	21.9	21.9	31.3	6.3	12.5	50.0	37.5	4.63	60.4
	50세 이상	(43)	2.3	4.7	7.0	16.3	27.9	30.2	11.6	7.0	51.2	41.9	5.00	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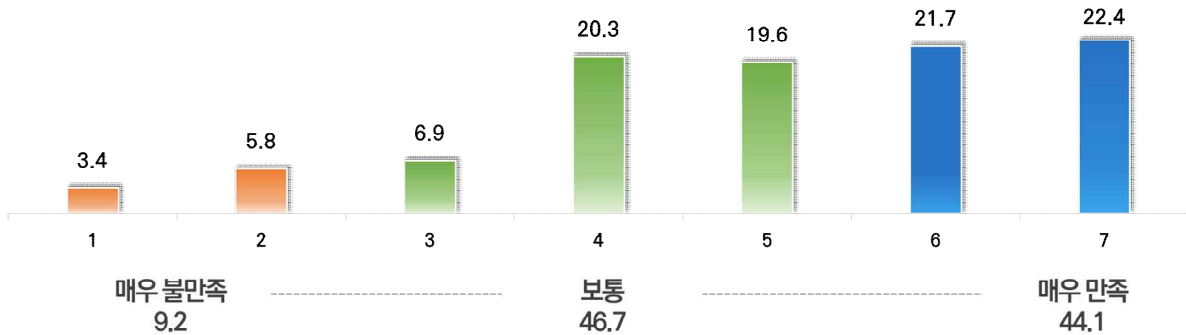
2-6)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 - 현장과 학교를 매개하는 우수한 교·강사가 가르치고 있다

조사 결과

- 현장과 학교를 매개하는 우수한 교·강사가 가르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는 긍정 응답 비율이 44.1%(⑥ 21.7% + ⑦ 22.4%), ‘불만족’한다는 부정 응답 비율은 9.2%(① 3.4% + ② 5.8%)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응답 비율은 46.7%(③ 6.9% + ④ 20.3% + ⑤ 19.6%)로 나타났음
- 7점 평균은 5.02점, 100점 평균은 66.9점으로 나타났음

[그림 3-10]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현장과 학교를 매개하는 교·강사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현장과 학교를 매개하는 우수한 교·강사가 가르치고 있다’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생(69.5점), 전임 교원(교수)(67.8점), 시각예술(69.4점), 연극(68.1점), 남자(70.9점), 20세 이하(75.6점)에서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3-11]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현장과 학교를 매개하는 교·강사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불만 족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만족 ⑦	불만족	보통	만족	7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567)	3.4	5.8	6.9	20.3	19.6	21.7	22.4	9.2	46.7	44.1	5.02	66.9
소속	학부 재학	(393)	3.3	4.6	6.6	17.8	19.3	21.9	26.5	7.9	43.8	48.3	5.17	69.5
	대학원 재학	(37)	5.4	13.5	10.8	13.5	16.2	21.6	18.9	18.9	40.5	40.5	4.62	60.4
	졸업생	(61)	4.9	8.2	6.6	36.1	16.4	19.7	8.2	13.1	59.0	27.9	4.43	57.1
	전임 교원(교수)	(45)	2.2	4.4	8.9	15.6	24.4	26.7	17.8	6.7	48.9	44.4	5.07	67.8
	비전임 교원(강사)	(22)	0.0	9.1	4.5	36.4	22.7	13.6	13.6	9.1	63.6	27.3	4.68	61.4
	기타	(9)	0.0	11.1	0.0	33.3	33.3	22.2	0.0	11.1	66.7	22.2	4.56	59.3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67)	3.9	6.2	7.1	21.0	18.2	21.0	22.7	10.1	46.3	43.7	4.97	66.2
	전문대학(2,3년제)	(26)	3.8	0.0	3.8	19.2	46.2	19.2	7.7	3.8	69.2	26.9	4.92	65.4
	예술특성화 대학	(64)	0.0	3.1	7.8	17.2	15.6	28.1	28.1	3.1	40.6	56.3	5.42	73.7
	사이버대학	(2)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0.0	5.00	66.7
	기타	(8)	0.0	25.0	0.0	12.5	25.0	25.0	12.5	25.0	37.5	37.5	4.63	60.4
설립 유형	국공립	(162)	3.7	4.9	6.8	16.0	19.1	22.8	26.5	8.6	42.0	49.4	5.17	69.4
	사립	(405)	3.2	6.2	6.9	22.0	19.8	21.2	20.7	9.4	48.6	42.0	4.96	65.9
전공	문학	(18)	5.6	0.0	5.6	11.1	27.8	22.2	27.8	5.6	44.4	50.0	5.33	72.2
	시각예술	(283)	2.1	6.4	6.4	20.1	17.3	18.7	29.0	8.5	43.8	47.7	5.16	69.4
	연극	(47)	4.3	2.1	4.3	21.3	25.5	23.4	19.1	6.4	51.1	42.6	5.09	68.1
	무용	(20)	5.0	10.0	15.0	10.0	20.0	20.0	20.0	15.0	45.0	40.0	4.70	61.7
	음악	(76)	6.6	5.3	11.8	26.3	13.2	25.0	11.8	11.8	51.3	36.8	4.57	59.4
	국악	(34)	2.9	11.8	2.9	17.6	17.6	29.4	17.6	14.7	38.2	47.1	4.94	65.7
	영상/미디어	(60)	5.0	3.3	8.3	23.3	18.3	25.0	16.7	8.3	50.0	41.7	4.88	64.7
	기타	(29)	0.0	6.9	0.0	13.8	48.3	24.1	6.9	6.9	62.1	31.0	5.03	67.2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92)	3.3	6.6	6.6	17.3	18.4	22.2	25.5	9.9	42.3	47.7	5.09	68.2
	충청/대전/세종	(103)	2.9	2.9	8.7	22.3	23.3	21.4	18.4	5.8	54.4	39.8	4.98	66.3
	경상/대구/부산/울산	(21)	14.3	0.0	0.0	33.3	23.8	14.3	14.3	14.3	57.1	28.6	4.52	58.7
	전라/광주/전주	(36)	0.0	8.3	8.3	33.3	16.7	27.8	5.6	8.3	58.3	33.3	4.64	60.6
	강원/제주	(15)	0.0	6.7	6.7	33.3	26.7	6.7	20.0	6.7	66.7	26.7	4.80	63.3
성별	남자	(106)	3.8	2.8	4.7	20.8	15.1	26.4	26.4	6.6	40.6	52.8	5.25	70.9
	여자	(458)	3.3	6.6	7.4	20.1	20.7	20.5	21.4	9.8	48.3	41.9	4.96	65.9
	기타	(3)	0.0	0.0	0.0	33.3	0.0	33.3	33.3	0.0	33.3	66.7	5.67	77.8
연령	20세 이하	(84)	2.4	1.2	2.4	20.2	19.0	17.9	36.9	3.6	41.7	54.8	5.54	75.6
	21-24세	(271)	3.7	4.8	8.5	17.3	18.1	21.8	25.8	8.5	43.9	47.6	5.10	68.3
	25-29세	(96)	3.1	8.3	8.3	26.0	20.8	21.9	11.5	11.5	55.2	33.3	4.65	60.8
	30-39세	(41)	4.9	14.6	4.9	22.0	17.1	24.4	12.2	19.5	43.9	36.6	4.54	58.9
	40-49세	(32)	3.1	6.3	3.1	25.0	28.1	28.1	6.3	9.4	56.3	34.4	4.78	63.0
	50세 이상	(43)	2.3	7.0	7.0	20.9	23.3	20.9	18.6	9.3	51.2	39.5	4.93	6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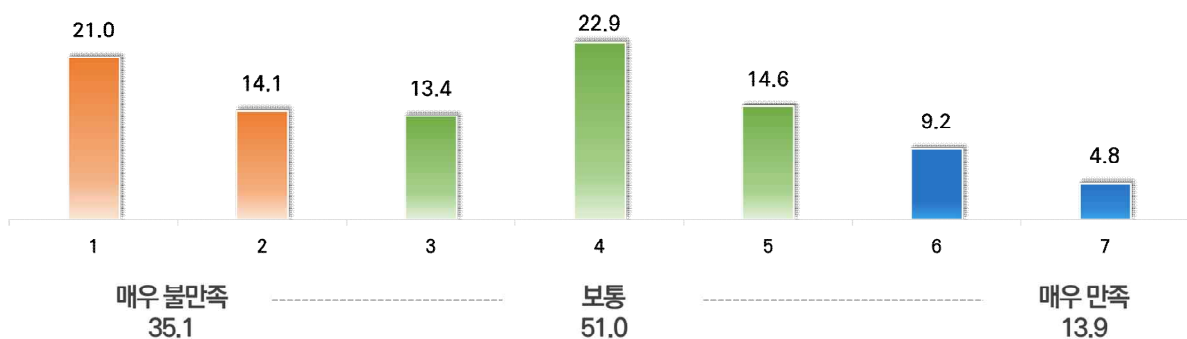
2-7)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 - 창작을 위한 정보와 지원금이 제공된다

조사 결과

- 창작을 위한 정보와 지원금이 제공되는지를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는 긍정 응답 비율이 13.9% (⑥ 9.2% + ⑦ 4.8%), '불만족'한다는 부정 응답 비율은 35.1% (① 21.0% + ② 14.1%)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응답 비율은 51.0% (③ 13.4% + ④ 22.9% + ⑤ 14.6%)로 나타났음
- 7점 평균은 3.43점, 100점 평균은 40.4점으로 나타났음

[그림 3-11]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창작을 위한 정보와 지원금 제공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창작을 위한 정보와 지원금이 제공된다'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졸업생 (46.4점), 대학생 (41.4점), 시각예술 (48.9점), 영상/미디어 (43.9점), 남자 (42.6점), 20세 이하 (48.2점)에서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3-12]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창작을 위한 정보와 지원금 제공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불만 족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만족 ⑦	불만족	보통	만족	7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567)	21.0	14.1	13.4	22.9	14.6	9.2	4.8	35.1	51.0	13.9	3.43	40.4
소속	학부 재학	(393)	20.4	12.7	13.5	24.2	15.0	9.4	4.8	33.1	52.7	14.2	3.48	41.4
	대학원 재학	(37)	37.8	10.8	13.5	13.5	10.8	8.1	5.4	48.6	37.8	13.5	2.95	32.4
	졸업생	(61)	14.8	11.5	8.2	32.8	16.4	11.5	4.9	26.2	57.4	16.4	3.79	46.4
	전임 교원(교수)	(45)	22.2	22.2	13.3	8.9	15.6	11.1	6.7	44.4	37.8	17.8	3.33	38.9
	비전임 교원(강사)	(22)	9.1	40.9	13.6	27.3	9.1	0.0	0.0	50.0	50.0	0.0	2.86	31.1
	기타	(9)	44.4	0.0	44.4	0.0	11.1	0.0	0.0	44.4	55.6	0.0	2.33	22.2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67)	21.8	14.6	13.9	24.4	12.6	7.9	4.7	36.4	51.0	12.6	3.34	39.0
	전문대학(2,3년제)	(26)	7.7	7.7	0.0	26.9	42.3	15.4	0.0	15.4	69.2	15.4	4.35	55.8
	예술특성화 대학	(64)	17.2	14.1	15.6	10.9	20.3	14.1	7.8	31.3	46.9	21.9	3.77	46.1
	사이버대학	(2)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4.00	50.0
	기타	(8)	50.0	12.5	12.5	0.0	0.0	25.0	0.0	62.5	12.5	25.0	2.63	27.1
설립 유형	국공립	(162)	16.0	11.1	12.3	27.2	12.3	13.6	7.4	27.2	51.9	21.0	3.79	46.5
	사립	(405)	23.0	15.3	13.8	21.2	15.6	7.4	3.7	38.3	50.6	11.1	3.28	38.0
전공	문학	(18)	5.6	11.1	11.1	11.1	38.9	22.2	0.0	16.7	61.1	22.2	4.33	55.6
	시각예술	(283)	21.9	13.4	13.4	24.7	12.4	8.8	5.3	35.3	50.5	14.1	3.40	40.0
	연극	(47)	21.3	6.4	10.6	17.0	21.3	10.6	12.8	27.7	48.9	23.4	3.94	48.9
	무용	(20)	25.0	5.0	10.0	20.0	25.0	10.0	5.0	30.0	55.0	15.0	3.65	44.2
	음악	(76)	21.1	23.7	17.1	22.4	10.5	3.9	1.3	44.7	50.0	5.3	2.95	32.5
	국악	(34)	20.6	26.5	11.8	11.8	5.9	17.6	5.9	47.1	29.4	23.5	3.32	38.7
	영상/미디어	(60)	23.3	5.0	8.3	28.3	21.7	10.0	3.3	28.3	58.3	13.3	3.63	43.9
	기타	(29)	13.8	20.7	24.1	27.6	10.3	3.4	0.0	34.5	62.1	3.4	3.10	35.1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92)	23.0	15.3	12.5	19.9	15.1	8.7	5.6	38.3	47.4	14.3	3.37	39.5
	충청/대전/세종	(103)	17.5	6.8	16.5	32.0	14.6	9.7	2.9	24.3	63.1	12.6	3.60	43.4
	경상/대구/부산/울산	(21)	19.0	4.8	14.3	23.8	23.8	14.3	0.0	23.8	61.9	14.3	3.71	45.2
	전라/광주/전주	(36)	16.7	30.6	13.9	19.4	8.3	8.3	2.8	47.2	41.7	11.1	3.08	34.7
	강원/제주	(15)	6.7	6.7	13.3	46.7	6.7	13.3	6.7	13.3	66.7	20.0	4.07	51.1
성별	남자	(106)	20.8	11.3	15.1	23.6	10.4	11.3	7.5	32.1	49.1	18.9	3.56	42.6
	여자	(458)	21.2	14.4	13.1	22.9	15.5	8.7	4.1	35.6	51.5	12.9	3.40	40.0
	기타	(3)	0.0	66.7	0.0	0.0	33.3	0.0	0.0	66.7	33.3	0.0	3.00	33.3
연령	20세 이하	(84)	10.7	11.9	10.7	34.5	13.1	14.3	4.8	22.6	58.3	19.0	3.89	48.2
	21-24세	(271)	20.3	12.5	12.9	21.8	18.8	8.9	4.8	32.8	53.5	13.7	3.52	42.0
	25-29세	(96)	29.2	13.5	13.5	24.0	8.3	6.3	5.2	42.7	45.8	11.5	3.08	34.7
	30-39세	(41)	24.4	12.2	19.5	24.4	9.8	7.3	2.4	36.6	53.7	9.8	3.15	35.8
	40-49세	(32)	28.1	21.9	9.4	12.5	12.5	12.5	3.1	50.0	34.4	15.6	3.09	34.9
	50세 이상	(43)	18.6	25.6	18.6	11.6	11.6	7.0	7.0	44.2	41.9	14.0	3.21	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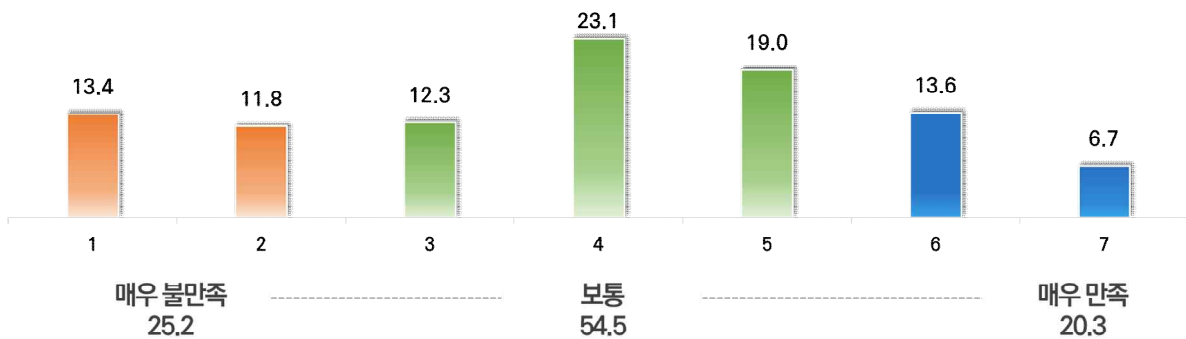
2-8)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 - 현장과 연계된 창·제작(프로덕션) 시스템을 배우며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 현장과 연계된 창·제작(프로덕션) 시스템을 배우며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는 긍정 응답 비율이 20.3%(⑥ 13.6% + ⑦ 6.7%), ‘불만족’한다는 부정 응답 비율은 25.2%(① 13.4% + ② 11.8%)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응답 비율은 54.5%(③ 12.3% + ④ 23.1% + ⑤ 19.0%)로 나타났음
- 7점 평균은 3.90점, 100점 평균은 48.4점으로 나타났음

[그림 3-12]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현장과 연계된 창·제작(프로덕션) 시스템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현장과 연계된 창·제작(프로덕션) 시스템을 배우며 참여할 수 있다’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생(50.0점), 전임 교원(교수)(47.8점), 연극(53.5점), 영상/미디어(52.8점), 남자(48.6점), 20세 이하(61.1점)에서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3-13]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현장과 연계된 창·제작(프로덕션) 시스템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만족 ⑦	불만족	보통	만족	7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567)	13.4	11.8	12.3	23.1	19.0	13.6	6.7	25.2	54.5	20.3	3.90	48.4
소속	학부 재학	(393)	12.2	10.7	11.2	24.9	19.8	14.2	6.9	22.9	56.0	21.1	4.00	50.0
	대학원 재학	(37)	18.9	16.2	10.8	18.9	21.6	2.7	10.8	35.1	51.4	13.5	3.59	43.2
	졸업생	(61)	14.8	11.5	11.5	23.0	19.7	14.8	4.9	26.2	54.1	19.7	3.85	47.5
	전임 교원(교수)	(45)	15.6	13.3	15.6	13.3	15.6	20.0	6.7	28.9	44.4	26.7	3.87	47.8
	비전임 교원(강사)	(22)	9.1	22.7	27.3	22.7	9.1	4.5	4.5	31.8	59.1	9.1	3.32	38.6
	기타	(9)	33.3	11.1	22.2	11.1	11.1	11.1	0.0	44.4	44.4	11.1	2.89	31.5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67)	13.7	11.6	13.3	23.8	18.2	13.3	6.2	25.3	55.2	19.5	3.86	47.6
	전문대학(2,3년제)	(26)	3.8	7.7	3.8	23.1	30.8	30.8	0.0	11.5	57.7	30.8	4.62	60.3
	예술특성화 대학	(64)	12.5	15.6	9.4	15.6	21.9	10.9	14.1	28.1	46.9	25.0	4.08	51.3
	사이버대학	(2)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4.00	50.0
	기타	(8)	37.5	12.5	12.5	25.0	12.5	0.0	0.0	50.0	50.0	0.0	2.63	27.1
설립 유형	국공립	(162)	9.3	13.6	6.2	27.2	20.4	13.0	10.5	22.8	53.7	23.5	4.17	52.8
	사립	(405)	15.1	11.1	14.8	21.5	18.5	13.8	5.2	26.2	54.8	19.0	3.80	46.6
전공	문학	(18)	0.0	5.6	16.7	11.1	27.8	38.9	0.0	5.6	55.6	38.9	4.78	63.0
	시각예술	(283)	13.4	10.2	12.0	23.3	20.5	12.7	7.8	23.7	55.8	20.5	3.96	49.4
	연극	(47)	8.5	12.8	10.6	23.4	17.0	17.0	10.6	21.3	51.1	27.7	4.21	53.5
	무용	(20)	15.0	0.0	25.0	25.0	10.0	15.0	10.0	15.0	60.0	25.0	4.00	50.0
	음악	(76)	19.7	17.1	17.1	25.0	11.8	6.6	2.6	36.8	53.9	9.2	3.22	37.1
	국악	(34)	14.7	17.6	8.8	14.7	14.7	20.6	8.8	32.4	38.2	29.4	3.94	49.0
	영상/미디어	(60)	6.7	15.0	6.7	23.3	28.3	15.0	5.0	21.7	58.3	20.0	4.17	52.8
	기타	(29)	24.1	10.3	10.3	31.0	13.8	6.9	3.4	34.5	55.2	10.3	3.34	39.1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92)	15.6	11.2	13.3	21.2	16.8	13.5	8.4	26.8	51.3	21.9	3.87	47.8
	충청/대전/세종	(103)	7.8	10.7	8.7	30.1	29.1	11.7	1.9	18.4	68.0	13.6	4.05	50.8
	경상/대구/부산/울산	(21)	23.8	0.0	4.8	19.0	28.6	19.0	4.8	23.8	52.4	23.8	4.05	50.8
	전라/광주/전주	(36)	2.8	25.0	16.7	25.0	8.3	19.4	2.8	27.8	50.0	22.2	3.81	46.8
	강원/제주	(15)	6.7	20.0	13.3	26.7	20.0	6.7	6.7	26.7	60.0	13.3	3.80	46.7
성별	남자	(106)	13.2	12.3	12.3	24.5	15.1	15.1	7.5	25.5	51.9	22.6	3.92	48.6
	여자	(458)	13.5	11.6	12.4	22.7	19.9	13.3	6.6	25.1	55.0	19.9	3.90	48.3
	기타	(3)	0.0	33.3	0.0	33.3	33.3	0.0	0.0	33.3	66.7	0.0	3.67	44.4
연령	20세 이하	(84)	4.8	7.1	3.6	28.6	26.2	16.7	13.1	11.9	58.3	29.8	4.67	61.1
	21-24세	(271)	12.9	9.6	14.0	23.6	18.8	14.8	6.3	22.5	56.5	21.0	3.95	49.2
	25-29세	(96)	18.8	16.7	11.5	19.8	19.8	8.3	5.2	35.4	51.0	13.5	3.51	41.8
	30-39세	(41)	19.5	19.5	9.8	26.8	12.2	9.8	2.4	39.0	48.8	12.2	3.32	38.6
	40-49세	(32)	18.8	12.5	9.4	25.0	9.4	18.8	6.3	31.3	43.8	25.0	3.75	45.8
	50세 이상	(43)	11.6	16.3	25.6	11.6	18.6	11.6	4.7	27.9	55.8	16.3	3.63	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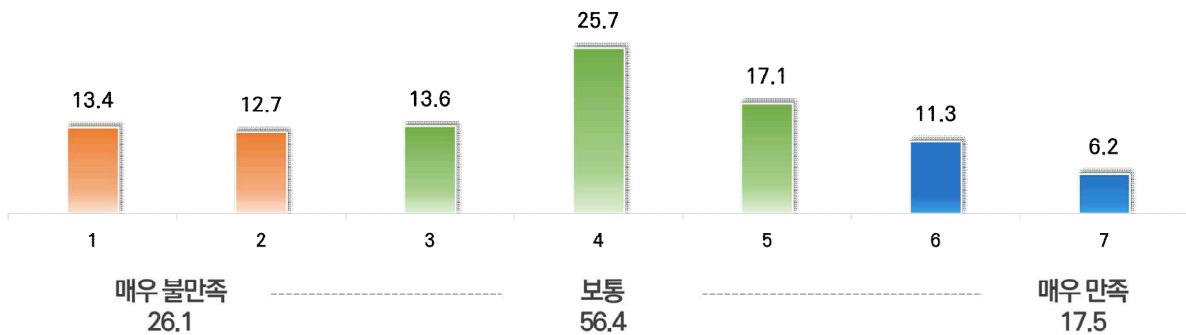
2-9)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 -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조사 결과

-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는 긍정 응답 비율이 17.5%(⑥ 11.3% + ⑦ 6.2%), ‘불만족’한다는 부정 응답 비율은 26.1%(① 13.4% + ② 12.7%)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응답 비율은 56.4%(③ 13.6% + ④ 25.7% + ⑤ 17.1%)로 나타났음
- 7점 평균은 3.79점, 100점 평균은 46.5점으로 나타났음

[그림 3-13]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문화예술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생(49.2점), 졸업생(43.4점), 연극(52.5점), 영상/미디어(50.3점), 여자(46.7점), 20세 이하(63.1점)에서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3-14]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문화예술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불만 족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만족 ⑦	불만족	보통	만족	7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567)	13.4	12.7	13.6	25.7	17.1	11.3	6.2	26.1	56.4	17.5	3.79	46.5
소속	학부 재학	(393)	11.7	10.9	13.2	26.2	18.6	11.2	8.1	22.6	58.0	19.3	3.95	49.2
	대학원 재학	(37)	16.2	16.2	16.2	27.0	5.4	18.9	0.0	32.4	48.6	18.9	3.46	41.0
	졸업생	(61)	16.4	13.1	6.6	31.1	23.0	9.8	0.0	29.5	60.7	9.8	3.61	43.4
	전임 교원(교수)	(45)	13.3	15.6	24.4	17.8	8.9	15.6	4.4	28.9	51.1	20.0	3.58	43.0
	비전임 교원(강사)	(22)	27.3	22.7	13.6	22.7	9.1	0.0	4.5	50.0	45.5	4.5	2.82	30.3
	기타	(9)	22.2	33.3	11.1	11.1	22.2	0.0	0.0	55.6	44.4	0.0	2.78	29.6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67)	13.7	13.1	15.0	25.3	15.0	10.9	7.1	26.8	55.2	18.0	3.76	46.0
	전문대학(2,3년제)	(26)	11.5	0.0	7.7	26.9	42.3	11.5	0.0	11.5	76.9	11.5	4.23	53.8
	예술특성화 대학	(64)	12.5	14.1	7.8	23.4	25.0	14.1	3.1	26.6	56.3	17.2	3.89	48.2
	사이버대학	(2)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4.00	50.0
	기타	(8)	12.5	25.0	0.0	50.0	0.0	12.5	0.0	37.5	50.0	12.5	3.38	39.6
설립 유형	국공립	(162)	11.1	9.3	9.3	35.2	17.9	11.7	5.6	20.4	62.3	17.3	3.97	49.5
	사립	(405)	14.3	14.1	15.3	22.0	16.8	11.1	6.4	28.4	54.1	17.5	3.72	45.3
전공	문학	(18)	5.6	5.6	11.1	22.2	33.3	22.2	0.0	11.1	66.7	22.2	4.39	56.5
	시각예술	(283)	12.7	12.7	14.5	24.7	14.8	11.0	9.5	25.4	54.1	20.5	3.87	47.9
	연극	(47)	8.5	10.6	8.5	29.8	19.1	19.1	4.3	19.1	57.4	23.4	4.15	52.5
	무용	(20)	15.0	5.0	5.0	40.0	20.0	10.0	5.0	20.0	65.0	15.0	3.95	49.2
	음악	(76)	17.1	19.7	19.7	21.1	10.5	10.5	1.3	36.8	51.3	11.8	3.25	37.5
	국악	(34)	32.4	5.9	11.8	17.6	23.5	2.9	5.9	38.2	52.9	8.8	3.26	37.7
	영상/미디어	(60)	6.7	10.0	13.3	31.7	23.3	13.3	1.7	16.7	68.3	15.0	4.02	50.3
	기타	(29)	13.8	20.7	6.9	31.0	20.7	3.4	3.4	34.5	58.6	6.9	3.48	41.4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92)	14.3	13.0	13.8	24.7	16.6	11.0	6.6	27.3	55.1	17.6	3.76	46.0
	충청/대전/세종	(103)	7.8	9.7	11.7	29.1	20.4	14.6	6.8	17.5	61.2	21.4	4.16	52.6
	경상/대구/부산/울산	(21)	19.0	9.5	19.0	19.0	19.0	14.3	0.0	28.6	57.1	14.3	3.52	42.1
	전라/광주/전주	(36)	16.7	16.7	16.7	25.0	13.9	5.6	5.6	33.3	55.6	11.1	3.42	40.3
	강원/제주	(15)	13.3	20.0	6.7	40.0	13.3	6.7	0.0	33.3	60.0	6.7	3.40	40.0
성별	남자	(106)	12.3	16.0	16.0	25.5	10.4	11.3	8.5	28.3	51.9	19.8	3.74	45.6
	여자	(458)	13.8	11.8	13.1	25.8	18.8	11.1	5.7	25.5	57.6	16.8	3.80	46.7
	기타	(3)	0.0	33.3	0.0	33.3	0.0	33.3	0.0	33.3	33.3	33.3	4.00	50.0
연령	20세 이하	(84)	4.8	4.8	6.0	29.8	19.0	17.9	17.9	9.5	54.8	35.7	4.79	63.1
	21-24세	(271)	12.2	10.7	14.4	25.1	20.7	11.1	5.9	22.9	60.1	17.0	3.88	48.0
	25-29세	(96)	18.8	17.7	16.7	26.0	11.5	8.3	1.0	36.5	54.2	9.4	3.23	37.2
	30-39세	(41)	24.4	14.6	4.9	26.8	17.1	12.2	0.0	39.0	48.8	12.2	3.34	39.0
	40-49세	(32)	18.8	21.9	15.6	21.9	9.4	12.5	0.0	40.6	46.9	12.5	3.19	36.5
	50세 이상	(43)	11.6	20.9	23.3	23.3	9.3	4.7	7.0	32.6	55.8	11.6	3.40	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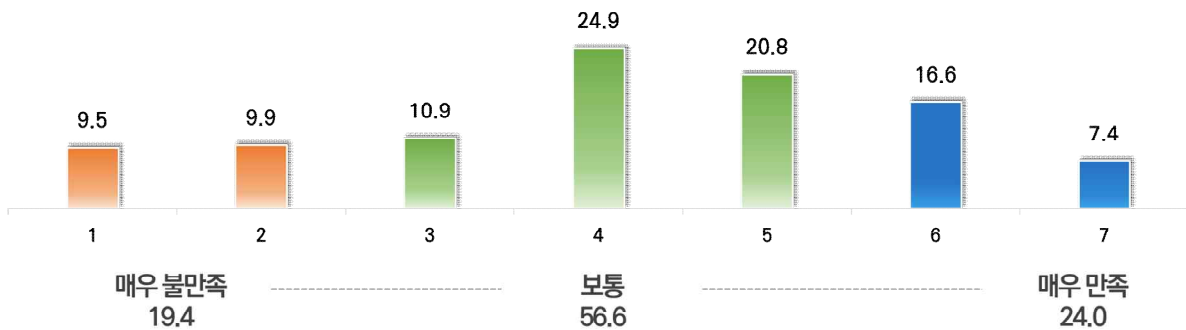
2-10)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 - 예술대학에서의 창작활동이 문화예술생태계 현장에 진입할 때 경력과 연결된다

조사 결과

- 예술대학에서의 창작활동이 문화예술생태계 현장에 진입할 때 경력과 연결되는지를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는 긍정 응답 비율이 24.0%(⑥ 16.6% + ⑦ 7.4%), '불만족'한다는 부정 응답 비율은 19.4%(① 9.5% + ② 9.9%)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응답 비율은 56.6%(③ 10.9% + ④ 24.9% + ⑤ 20.8%)로 나타났음
- 7점 평균은 4.17점, 100점 평균은 52.8점으로 나타났음

[그림 3-14]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예술대학에서 창작활동의 경력 인정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예술대학에서의 창작활동이 문화예술생태계 현장에 진입할 때 경력과 연결된다'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생(54.5점), 전임 교원(교수)(53.0점), 영상/미디어(57.2점), 남자(54.2점), 20세 이하(65.3점)에서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3-15] 예술대학에서 느꼈던 교육환경 만족도-예술대학에서 창작활동의 경력 인정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불만 족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만족 ⑦	불만족	보통	만족	7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567)	9.5	9.9	10.9	24.9	20.8	16.6	7.4	19.4	56.6	24.0	4.17	52.8
소속	학부 재학	(393)	7.9	8.7	11.7	24.9	22.1	16.3	8.4	16.5	58.8	24.7	4.27	54.5
	대학원 재학	(37)	18.9	21.6	2.7	18.9	16.2	16.2	5.4	40.5	37.8	21.6	3.62	43.7
	졸업생	(61)	11.5	8.2	9.8	31.1	16.4	18.0	4.9	19.7	57.4	23.0	4.07	51.1
	전임 교원(교수)	(45)	11.1	8.9	13.3	17.8	20.0	24.4	4.4	20.0	51.1	28.9	4.18	53.0
	비전임 교원(강사)	(22)	9.1	9.1	9.1	36.4	22.7	4.5	9.1	18.2	68.2	13.6	4.05	50.8
	기타	(9)	22.2	33.3	11.1	11.1	11.1	11.1	0.0	55.6	33.3	11.1	2.89	31.5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67)	9.9	9.9	12.4	25.9	19.7	15.0	7.3	19.7	58.0	22.3	4.10	51.6
	전문대학(2,3년제)	(26)	11.5	3.8	7.7	15.4	30.8	30.8	0.0	15.4	53.8	30.8	4.42	57.1
	예술특성화 대학	(64)	4.7	14.1	3.1	20.3	21.9	23.4	12.5	18.8	45.3	35.9	4.61	60.2
	사이버대학	(2)	0.0	0.0	0.0	50.0	50.0	0.0	0.0	0.0	100.0	0.0	4.50	58.3
	기타	(8)	25.0	0.0	0.0	25.0	37.5	12.5	0.0	25.0	62.5	12.5	3.88	47.9
설립 유형	국공립	(162)	9.9	8.0	4.9	29.0	18.5	19.8	9.9	17.9	52.5	29.6	4.37	56.2
	사립	(405)	9.4	10.6	13.3	23.2	21.7	15.3	6.4	20.0	58.3	21.7	4.09	51.5
전공	문학	(18)	5.6	5.6	5.6	22.2	33.3	22.2	5.6	11.1	61.1	27.8	4.61	60.2
	시각예술	(283)	8.5	9.5	11.7	25.4	21.9	13.8	9.2	18.0	59.0	23.0	4.21	53.5
	연극	(47)	8.5	14.9	8.5	21.3	19.1	19.1	8.5	23.4	48.9	27.7	4.19	53.2
	무용	(20)	10.0	0.0	10.0	25.0	25.0	20.0	10.0	10.0	60.0	30.0	4.55	59.2
	음악	(76)	11.8	13.2	17.1	23.7	18.4	14.5	1.3	25.0	59.2	15.8	3.72	45.4
	국악	(34)	26.5	5.9	8.8	23.5	8.8	14.7	11.8	32.4	41.2	26.5	3.74	45.6
	영상/미디어	(60)	5.0	11.7	6.7	23.3	23.3	25.0	5.0	16.7	53.3	30.0	4.43	57.2
	기타	(29)	6.9	6.9	6.9	34.5	17.2	24.1	3.4	13.8	58.6	27.6	4.34	55.7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92)	9.7	11.0	10.2	22.2	21.4	16.8	8.7	20.7	53.8	25.5	4.20	53.3
	충청/대전/세종	(103)	4.9	6.8	12.6	29.1	19.4	21.4	5.8	11.7	61.2	27.2	4.39	56.5
	경상/대구/부산/울산	(21)	14.3	0.0	19.0	28.6	28.6	9.5	0.0	14.3	76.2	9.5	3.86	47.6
	전라/광주/전주	(36)	16.7	8.3	5.6	38.9	13.9	11.1	5.6	25.0	58.3	16.7	3.81	46.8
	강원/제주	(15)	13.3	20.0	20.0	26.7	20.0	0.0	0.0	33.3	66.7	0.0	3.20	36.7
성별	남자	(106)	9.4	14.2	7.5	20.8	17.0	20.8	10.4	23.6	45.3	31.1	4.25	54.2
	여자	(458)	9.6	8.7	11.8	25.8	21.8	15.5	6.8	18.3	59.4	22.3	4.15	52.5
	기타	(3)	0.0	33.3	0.0	33.3	0.0	33.3	0.0	33.3	33.3	33.3	4.00	50.0
연령	20세 이하	(84)	6.0	2.4	8.3	20.2	22.6	21.4	19.0	8.3	51.2	40.5	4.92	65.3
	21-24세	(271)	8.1	8.1	12.5	25.1	22.9	16.2	7.0	16.2	60.5	23.2	4.23	53.9
	25-29세	(96)	12.5	18.8	9.4	28.1	20.8	9.4	1.0	31.3	58.3	10.4	3.58	43.1
	30-39세	(41)	24.4	7.3	9.8	26.8	2.4	24.4	4.9	31.7	39.0	29.3	3.68	44.7
	40-49세	(32)	6.3	15.6	12.5	28.1	15.6	18.8	3.1	21.9	56.3	21.9	4.00	50.0
	50세 이상	(43)	7.0	14.0	9.3	20.9	25.6	16.3	7.0	20.9	55.8	23.3	4.21	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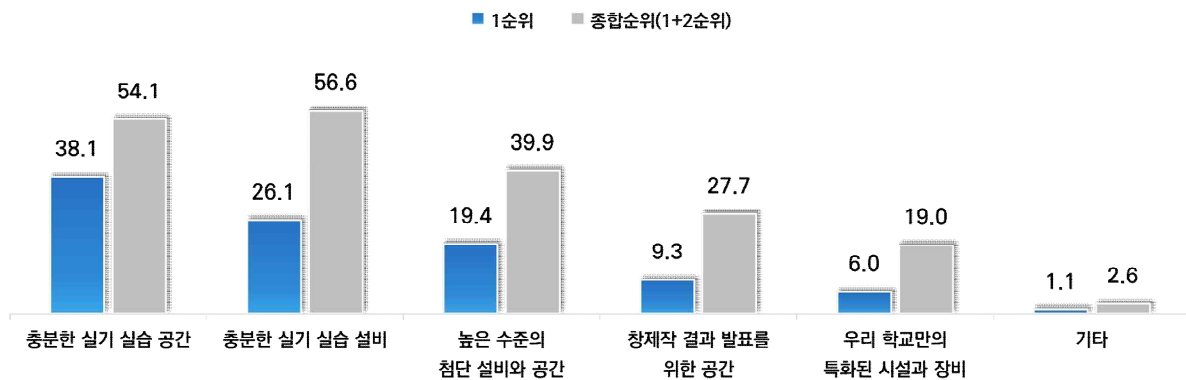
3) 예술대학 활성화를 위해 공간(시설)의 보안 및 개선에 필요한 것

조사 결과

- 예술대학 활성화를 위해 공간(시설)의 보안 및 개선에 필요한 것을 물어본 결과, 충분한 실기 실습 공간(개수와 면적)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충분한 실기 실습 설비(전공별 필요 설비/장비의 양 등)(26.1%), 높은 수준의 첨단 설비와 공간(융복합, 아트앤 테크에 적합한 수준의 설비/장비 등)(19.4%), 창·제작 결과 발표를 위한 공간(9.3%), 우리 학교만의 특화된 시설과 장비(6.0%) 순으로 나타났음(1순위 기준)

[그림 3-15] 예술대학 활성화를 위해 공간(시설)의 보안 및 개선에 필요한 것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충분한 실기 실습 공간(개수와 면적)’(38.1%)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원생(43.2%), 예술특성화 대학(42.2%), 국공립(46.9%), 음악(56.6%), 전라/광주/전주(41.7%), 여자(39.5%), 21~24세(43.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충분한 실기 실습 설비(전공별 필요 설비/장비의 양 등)’(26.1%)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원생(32.4%), 일반대학(4년제)(27.0%), 사립(26.2%), 영상/미디어(33.3%), 충청/대전/세종(32.0%), 남자(26.4%), 30대(31.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6] 예술대학 활성화를 위해 공간(시설)의 보안 및 개선에 필요한 것-1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충분한 실기 실습 공간	충분한 실기 실습 설비	높은 수준의 첨단 설비와 공간	창·제작 결과 발표를 위한 공간	우리 학교만의 특화된 시설과 장비	기타
전 체		(567)	38.1	26.1	19.4	9.3	6.0	1.1
소속	학부 재학	(393)	41.5	26.5	17.8	7.4	5.9	1.0
	대학원 재학	(37)	43.2	32.4	16.2	5.4	2.7	0.0
	졸업생	(61)	32.8	27.9	19.7	14.8	3.3	1.6
	전임 교원(교수)	(45)	17.8	17.8	28.9	20.0	13.3	2.2
	비전임 교원(강사)	(22)	31.8	22.7	22.7	13.6	9.1	0.0
	기타	(9)	22.2	22.2	44.4	11.1	0.0	0.0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67)	38.5	27.0	18.4	8.4	6.6	1.1
	전문대학(2,3년제)	(26)	19.2	30.8	34.6	15.4	0.0	0.0
	예술특성화 대학	(64)	42.2	20.3	17.2	14.1	4.7	1.6
	사이버대학	(2)	0.0	0.0	100.0	0.0	0.0	0.0
	기타	(8)	50.0	12.5	25.0	12.5	0.0	0.0
설립 유형	국공립	(162)	46.9	25.9	13.6	7.4	4.3	1.9
	사립	(405)	34.6	26.2	21.7	10.1	6.7	0.7
전공	문학	(18)	22.2	61.1	11.1	0.0	5.6	0.0
	시각예술	(283)	38.9	26.5	19.8	8.1	5.3	1.4
	연극	(47)	38.3	19.1	12.8	25.5	2.1	2.1
	무용	(20)	25.0	25.0	30.0	20.0	0.0	0.0
	음악	(76)	56.6	17.1	10.5	3.9	11.8	0.0
	국악	(34)	52.9	17.6	14.7	5.9	8.8	0.0
	영상/미디어	(60)	23.3	33.3	26.7	10.0	5.0	1.7
	기타	(29)	13.8	31.0	37.9	10.3	6.9	0.0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92)	40.8	24.2	19.4	9.2	5.6	0.8
	충청/대전/세종	(103)	32.0	32.0	20.4	8.7	3.9	2.9
	경상/대구/부산/울산	(21)	9.5	33.3	28.6	19.0	9.5	0.0
	전라/광주/전주	(36)	41.7	25.0	13.9	8.3	11.1	0.0
	강원/제주	(15)	40.0	26.7	13.3	6.7	13.3	0.0
성별	남자	(106)	31.1	26.4	23.6	12.3	4.7	1.9
	여자	(458)	39.5	26.0	18.6	8.7	6.3	0.9
	기타	(3)	66.7	33.3	0.0	0.0	0.0	0.0
연령	20세 이하	(84)	36.9	25.0	22.6	7.1	8.3	0.0
	21-24세	(271)	43.9	25.8	15.5	8.1	5.9	0.7
	25-29세	(96)	35.4	28.1	24.0	8.3	2.1	2.1
	30-39세	(41)	31.7	31.7	17.1	14.6	2.4	2.4
	40-49세	(32)	21.9	21.9	25.0	18.8	12.5	0.0
	50세 이상	(43)	27.9	23.3	25.6	11.6	9.3	2.3

[표 3-17] 예술대학 활성화를 위해 공간(시설)의 보안 및 개선에 필요한 것-종합순위(1+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충분한 실기 실습 설비	충분한 실기 실습 공간	높은 수준의 첨단 설비와 공간	창·제작 결과 발표를 위한 공간	우리 학교만의 특화된 시설과 장비	기타
전 체		(567)	56.6	54.1	39.9	27.7	19.0	2.6
소속	학부 재학	(393)	58.0	59.3	38.7	25.2	16.5	2.3
	대학원 재학	(37)	54.1	51.4	35.1	32.4	21.6	5.4
	졸업생	(61)	59.0	45.9	41.0	31.1	19.7	3.3
	전임 교원(교수)	(45)	51.1	31.1	44.4	37.8	31.1	4.4
	비전임 교원(강사)	(22)	45.5	50.0	50.0	31.8	22.7	0.0
	기타	(9)	44.4	22.2	55.6	33.3	44.4	0.0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67)	56.1	54.8	39.6	27.4	19.3	2.8
	전문대학(2,3년제)	(26)	73.1	38.5	53.8	23.1	11.5	0.0
	예술특성화 대학	(64)	53.1	56.3	35.9	29.7	23.4	1.6
	사이버대학	(2)	50.0	50.0	100.0	0.0	0.0	0.0
	기타	(8)	62.5	50.0	25.0	50.0	0.0	12.5
설립 유형	국공립	(162)	54.9	60.5	32.1	32.7	16.7	3.1
	사립	(405)	57.3	51.6	43.0	25.7	20.0	2.5
전공	문학	(18)	83.3	38.9	27.8	27.8	22.2	0.0
	시각예술	(283)	59.7	55.1	42.0	25.1	13.8	4.2
	연극	(47)	51.1	57.4	29.8	44.7	14.9	2.1
	무용	(20)	40.0	55.0	35.0	55.0	15.0	0.0
	음악	(76)	50.0	64.5	31.6	26.3	27.6	0.0
	국악	(34)	44.1	64.7	26.5	26.5	38.2	0.0
	영상/미디어	(60)	65.0	40.0	50.0	21.7	20.0	3.3
	기타	(29)	44.8	37.9	62.1	24.1	31.0	0.0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92)	56.4	56.6	38.0	28.8	17.6	2.6
	충청/대전/세종	(103)	58.3	46.6	50.5	22.3	18.4	3.9
	경상/대구/부산/울산	(21)	66.7	33.3	33.3	38.1	23.8	4.8
	전라/광주/전주	(36)	50.0	55.6	33.3	27.8	33.3	0.0
	강원/제주	(15)	53.3	66.7	40.0	20.0	20.0	0.0
성별	남자	(106)	48.1	48.1	46.2	32.1	22.6	2.8
	여자	(458)	58.5	55.5	38.6	26.4	18.3	2.6
	기타	(3)	66.7	66.7	0.0	66.7	0.0	0.0
연령	20세 이하	(84)	54.8	54.8	45.2	22.6	22.6	0.0
	21-24세	(271)	59.4	60.9	36.2	25.8	15.9	1.8
	25-29세	(96)	55.2	50.0	42.7	30.2	14.6	7.3
	30-39세	(41)	56.1	46.3	41.5	34.1	19.5	2.4
	40-49세	(32)	46.9	40.6	43.8	34.4	34.4	0.0
	50세 이상	(43)	53.5	37.2	41.9	32.6	30.2	4.7

3.2.2 예술대학생의 창·제작 활동

1) 예술대학생의 창·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조사 결과

- 예술대학생의 창·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현장과 연계한 창·제작이 가능한 시스템(프로덕션 등) 구축, 운영이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졸업작품을 위한 창·제작 단계 비용 지원(33.7%), 프로젝트를 위한 리서치 단계 비용 지원(15.0%), 창·제작을 위한 공간 제공(14.1%)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3-16] 예술대학생의 창·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학부생(38.2%)과 졸업생(39.3%)은 ‘졸업작품을 위한 창·제작 비용 지원’을 가장 필요한 지원요소로 선택했고, 전임교원(53.3%)과 비전임교원(59.1%)은 ‘현장과 연계한 창·제작이 가능한 시스템(프로덕션 등) 구축 운영’을 가장 필요하다고 선택함
- ‘현장과 연계한 창·제작이 가능한 시스템(프로덕션 등) 구축.운영’(36.9%)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임 교원(교수)(53.3%), 예술특성화 대학(53.1%), 사립(37.0%), 국악(52.9%), 전라/광주/전주(50.0%), 남자(46.2%), 50세 이하(65.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졸업작품을 위한 창·제작 단계 비용 지원’(33.7%)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졸업생(39.3%), 일반대학(4년제)(34.9%), 사립(34.8%), 시각예술(38.9%), 전라/광주/전주(41.7%), 여자(35.2%), 25~29세(43.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3-18] 예술대학생의 창·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 %]

구 분		사례수	현장과 연계한 창·제작이 가능한 시스템(프로덕션 등) 구축.운영	졸업작품을 위한 창·제작 단계 비용 지원	프로젝트를 위한 리서치 단계 비용 지원	창·제작을 위한 공간 제공	기타
전 체		(567)	36.9	33.7	15.0	14.1	0.4
소속	학부 재학	(393)	33.3	38.2	13.7	14.5	0.3
	대학원 재학	(37)	45.9	18.9	24.3	10.8	0.0
	졸업생	(61)	26.2	39.3	13.1	21.3	0.0
	전임 교원(교수)	(45)	53.3	11.1	24.4	8.9	2.2
	비전임 교원(강사)	(22)	59.1	18.2	13.6	9.1	0.0
	기타	(9)	88.9	11.1	0.0	0.0	0.0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67)	35.5	34.9	14.6	14.6	0.4
	전문대학(2,3년제)	(26)	23.1	50.0	11.5	15.4	0.0
	예술특성화 대학	(64)	53.1	23.4	14.1	9.4	0.0
	사이버대학	(2)	50.0	0.0	50.0	0.0	0.0
	기타	(8)	25.0	0.0	50.0	25.0	0.0
설립 유형	국공립	(162)	36.4	30.9	14.2	18.5	0.0
	사립	(405)	37.0	34.8	15.3	12.3	0.5
전공	문학	(18)	22.2	33.3	33.3	11.1	0.0
	시각예술	(283)	33.9	38.9	13.4	13.4	0.4
	연극	(47)	51.1	17.0	14.9	17.0	0.0
	무용	(20)	20.0	35.0	20.0	25.0	0.0
	음악	(76)	42.1	18.4	25.0	14.5	0.0
	국악	(34)	52.9	23.5	14.7	8.8	0.0
	영상/미디어	(60)	25.0	56.7	3.3	13.3	1.7
	기타	(29)	55.2	13.8	13.8	17.2	0.0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92)	36.5	32.4	17.9	13.3	0.0
	충청/대전/세종	(103)	35.0	39.8	4.9	19.4	1.0
	경상/대구/부산/울산	(21)	23.8	28.6	23.8	19.0	4.8
	전라/광주/전주	(36)	50.0	41.7	5.6	2.8	0.0
	강원/제주	(15)	46.7	13.3	20.0	20.0	0.0
성별	남자	(106)	46.2	26.4	16.0	10.4	0.9
	여자	(458)	34.9	35.2	14.8	14.8	0.2
	기타	(3)	0.0	66.7	0.0	33.3	0.0
연령	20세 이하	(84)	31.0	40.5	14.3	14.3	0.0
	21-24세	(271)	33.2	36.9	13.7	15.9	0.4
	25-29세	(96)	29.2	43.8	15.6	11.5	0.0
	30-39세	(41)	51.2	14.6	14.6	19.5	0.0
	40-49세	(32)	50.0	12.5	28.1	9.4	0.0
	50세 이상	(43)	65.1	11.6	14.0	7.0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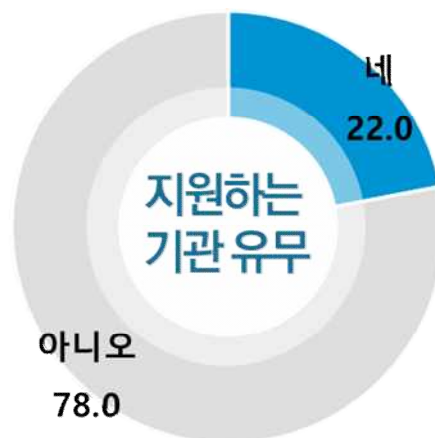
2) 재직/재학 중인 예술대학 내 창·제작 및 기획을 지원하는 기관 운영 유무

조사 결과

- 재직/재학 중인 예술대학 내 창·제작 및 기획을 지원해주는 기관이 운영중인지를 물어본 결과, 운영중이라는 응답이 22.0%로 대부분의 예술대학에서 창·제작 및 기획을 지원하는 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재직/재학 중인 예술대학 내 창·제작 및 기획을 지원해주는 기관은 대부분 산학 협력단인 것으로 응답됨

[그림 3-17] 재직/재학 중인 예술대학 내 창·제작 및 기획을 지원하는 기관 운영 유무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재직/재학 중인 예술대학 내 창·제작 및 기획을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다’(22.0%)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임 교원(교수)(46.7%), 예술특성화 대학(42.2%), 사립(24.0%), 시각예술(26.5%), 서울/경기/인천(22.7%), 남자(29.2%), 50세 이상(41.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예술특성화대학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에 비해 창·제작 기관을 운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예술대학 유형별로 창·제작 환경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측됨

[표3-19] 재직/재학 중인 예술대학 내 창·제작 및 기획을 지원하는 기관 운영 유무

[단위 : %]

구 분		사례수	네	아니오
전 체		(567)	22.0	78.0
소속	학부 재학	(393)	19.8	80.2
	대학원 재학	(37)	29.7	70.3
	졸업생	(61)	18.0	82.0
	전임 교원(교수)	(45)	46.7	53.3
	비전임 교원(강사)	(22)	9.1	90.9
	기타	(9)	22.2	77.8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67)	19.9	80.1
	전문대학(2,3년제)	(26)	7.7	92.3
	예술특성화 대학	(64)	42.2	57.8
	사이버대학	(2)	0.0	100.0
	기타	(8)	37.5	62.5
설립 유형	국공립	(162)	17.3	82.7
	사립	(405)	24.0	76.0
전공	문학	(18)	0.0	100.0
	시각예술	(283)	26.5	73.5
	연극	(47)	23.4	76.6
	무용	(20)	15.0	85.0
	음악	(76)	10.5	89.5
	국악	(34)	23.5	76.5
	영상/미디어	(60)	16.7	83.3
	기타	(29)	34.5	65.5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92)	22.7	77.3
	충청/대전/세종	(103)	22.3	77.7
	경상/대구/부산/울산	(21)	0.0	100.0
	전라/광주/전주	(36)	19.4	80.6
	강원/제주	(15)	40.0	60.0
성별	남자	(106)	29.2	70.8
	여자	(458)	20.1	79.9
	기타	(3)	66.7	33.3
연령	20세 이하	(84)	20.2	79.8
	21-24세	(271)	18.8	81.2
	25-29세	(96)	21.9	78.1
	30-39세	(41)	26.8	73.2
	40-49세	(32)	21.9	78.1
	50세 이상	(43)	41.9	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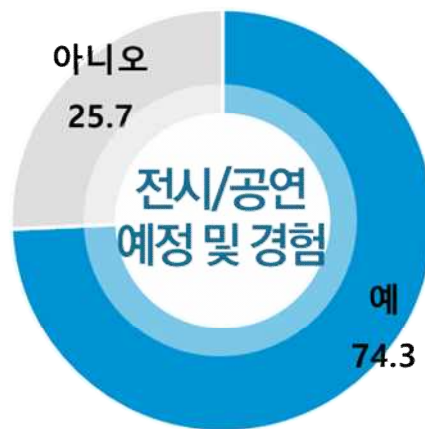
3) (학생/졸업생 대상 문항) 전공 관련 졸업작품 등 제작/전시/공연 할 예정/경험 유무

조사 결과

- 전공 관련 졸업작품 등을 제작, 전시 및 공연을 할 예정이거나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74.3%로 나타났음

[그림 3-18] 전공 관련 졸업작품 등 제작/전시/공연 할 예정/경험 유무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전공 관련 졸업작품 등 제작/전시/공연 할 예정/경험이 있다’(74.3%)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생(75.1%), 예술특성화 대학(79.1%), 사립(75.2%), 연극(85.7%), 서울/경기/인천 (77.5%), 여자(75.8%), 25~29세(75.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3-21] 전공 관련 졸업 작품 등 제작/전시/공연 할 예정/경험 유무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491)	74.3	25.7
소속	학부 재학	(393)	75.1	24.9
	대학원 재학	(37)	73.0	27.0
	졸업생	(61)	70.5	29.5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18)	74.2	25.8
	전문대학(2,3년제)	(22)	63.6	36.4
	예술특성화 대학	(43)	79.1	20.9
	기타	(8)	87.5	12.5
설립 유형	국공립	(140)	72.1	27.9
	사립	(351)	75.2	24.8
전공	문학	(18)	33.3	66.7
	시각예술	(266)	77.1	22.9
	연극	(35)	85.7	14.3
	무용	(13)	53.8	46.2
	음악	(65)	81.5	18.5
	국악	(24)	62.5	37.5
	영상/미디어	(54)	74.1	25.9
	기타	(16)	56.3	43.8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47)	77.5	22.5
	충청/대전/세종	(99)	72.7	27.3
	경상/대구/부산/울산	(15)	40.0	60.0
	전라/광주/전주	(18)	44.4	55.6
	강원/제주	(12)	83.3	16.7
성별	남자	(71)	66.2	33.8
	여자	(417)	75.8	24.2
	기타	(3)	66.7	33.3
연령	20세 이하	(84)	71.4	28.6
	21-24세	(270)	74.4	25.6
	25-29세	(96)	75.0	25.0
	30-39세	(34)	73.5	26.5
	40-49세	(5)	100.0	0.0
	50세 이상	(2)	10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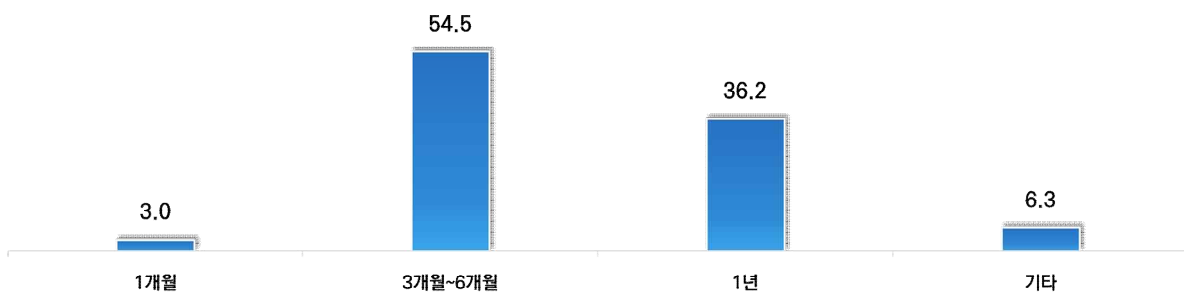
3-1) (학생/졸업생 대상 문항) 졸업작품 제작 시 소요된 기간

조사 결과

- 졸업작품 제작 시 소요된 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개월이 3.0%, 3~6개월이 54.5%, 1년이 36.2%로 나타났으며, 졸업작품 제작 시 대부분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응답됨

[그림 3-19] 졸업작품 제작 시 소요된 기간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학제 유형별 응답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에서 '3개월~6개월'을 85.6% 선택했으며, 이는 2-3년 수업기간과 전공에 맞춘 수업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됨. 반면, 일반대학에서 '3개월~6개월'(51.6%)와 '1년'(39.4%)로서 전문대학보다 더 많은 시간을 졸업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3개월~6개월'(54.5%)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졸업생(74.4%), 예술특성화 대학(64.7%), 국공립(55.4%), 연극(93.3%), 서울/경기/인천(61.0%), 여자(54.7%), 25~29세(62.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1년'(36.2%)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생(38.6%), 일반대학(4년제)(39.4%), 국공립(39.6%), 영상/미디어(47.5%), 충청/대전/세종(58.3%), 남자(36.2%), 21~24세(40.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3-21] 졸업작품 제작 시 소요된 기간

[단위 : %]

구 분		사례수	1개월	3개월~6개월	1년	기타
전 체		(365)	3.0	54.5	36.2	6.3
소속	학부 재학	(295)	3.1	51.2	38.6	7.1
	대학원 재학	(27)	0.0	59.3	37.0	3.7
	졸업생	(43)	4.7	74.4	18.6	2.3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310)	2.3	51.6	39.4	6.8
	전문대학(2,3년제)	(14)	14.3	85.7	0.0	0.0
	예술특성화 대학	(34)	5.9	64.7	23.5	5.9
	기타	(7)	0.0	71.4	28.6	0.0
설립 유형	국공립	(101)	1.0	55.4	39.6	4.0
	사립	(264)	3.8	54.2	34.8	7.2
전공	문학	(6)	16.7	83.3	0.0	0.0
	시각예술	(205)	2.9	44.4	44.9	7.8
	연극	(30)	0.0	93.3	3.3	3.3
	무용	(7)	0.0	85.7	14.3	0.0
	음악	(53)	3.8	66.0	24.5	5.7
	국악	(15)	0.0	66.7	20.0	13.3
	영상/미디어	(40)	5.0	45.0	47.5	2.5
	기타	(9)	0.0	66.7	33.3	0.0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269)	3.3	61.0	29.4	6.3
	충청/대전/세종	(72)	2.8	33.3	58.3	5.6
	경상/대구/부산/울산	(6)	0.0	66.7	33.3	0.0
	전라/광주/전주	(8)	0.0	62.5	37.5	0.0
	강원/제주	(10)	0.0	20.0	60.0	20.0
성별	남자	(47)	2.1	53.2	36.2	8.5
	여자	(316)	3.2	54.7	36.1	6.0
	기타	(2)	0.0	50.0	50.0	0.0
연령	20세 이하	(60)	3.3	46.7	31.7	18.3
	21-24세	(201)	4.0	50.7	40.3	5.0
	25-29세	(72)	1.4	62.5	36.1	0.0
	30-39세	(25)	0.0	72.0	20.0	8.0
	40-49세	(5)	0.0	100.0	0.0	0.0
	50세 이상	(2)	0.0	50.0	5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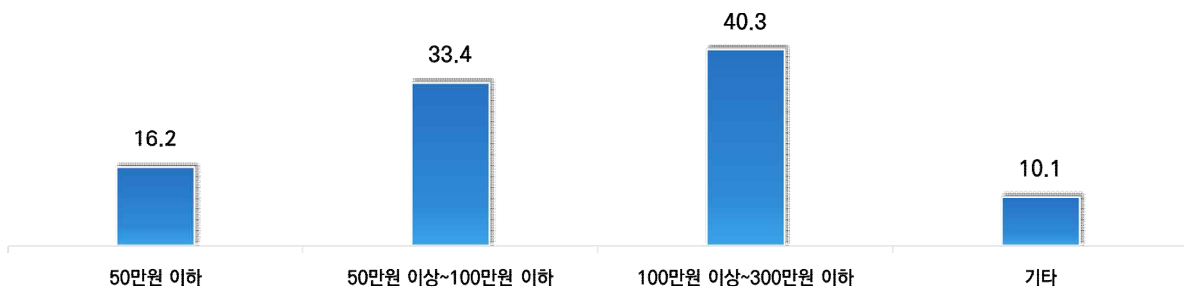
3-2) (학생/졸업생 대상 문항) 졸업작품 제작 시 지출한 금액

조사 결과

- 졸업작품 제작 시 지출한 금액에 대해 물어본 결과, 50만원 이하가 16.2%, 50만원 이상~100만원 이하가 33.4%, 1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가 40.3%로 나타났으며, 졸업작품 제작 시 대부분 5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됨

[그림 3-20] 졸업작품 제작 시 지출한 금액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응답자별 특성을 살펴보면, ‘50만원 이하’는 문학(66.7%), ‘1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는 시각예술(40.5%), 연극(43.3%), 음악(43.3%), 국악(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르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 ‘50만원 이하’(16.2%)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졸업생(18.6%), 예술특성화 대학(23.5%), 사립(16.7%), 영상/미디어(25.0%), 충청/대전/세종(18.1%), 여자(16.5%), 20세 이하(23.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50만원 이상~100만원 이하’(33.4%)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졸업생(34.9%), 일반대학(4년제) (33.2%), 국공립(34.7%), 연극(36.7%), 충청/대전/세종(34.7%), 여자(35.4%), 20세 이하(38.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1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40.3%)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생(39.0%), 예술특성화대학(41.2%), 국공립(41.6%), 음악(43.4%), 서울/경기/인천(39.8%), 남자(61.7%), 25~29세(48.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3-22] 졸업작품 제작 시 지출한 금액

[단위 : %]

구 분		사례수	50만원 이하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기타
전 체		(365)	16.2	33.4	40.3	10.1
소속	학부 재학	(295)	15.9	34.6	39.0	10.5
	대학원 재학	(27)	14.8	18.5	59.3	7.4
	졸업생	(43)	18.6	34.9	37.2	9.3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310)	15.2	33.2	41.0	10.6
	전문대학(2,3년제)	(14)	14.3	71.4	14.3	0.0
	예술특성화 대학	(34)	23.5	23.5	41.2	11.8
	기타	(7)	28.6	14.3	57.1	0.0
설립 유형	국공립	(101)	14.9	34.7	41.6	8.9
	사립	(264)	16.7	33.0	39.8	10.6
전공	문학	(6)	66.7	16.7	16.7	0.0
	시각예술	(205)	11.2	36.1	40.5	12.2
	연극	(30)	13.3	36.7	43.3	6.7
	무용	(7)	42.9	28.6	14.3	14.3
	음악	(53)	18.9	34.0	43.4	3.8
	국악	(15)	13.3	33.3	46.7	6.7
	영상/미디어	(40)	25.0	25.0	35.0	15.0
	기타	(9)	33.3	11.1	55.6	0.0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269)	15.2	34.6	39.8	10.4
	충청/대전/세종	(72)	18.1	34.7	37.5	9.7
	경상/대구/부산/울산	(6)	33.3	16.7	50.0	0.0
	전라/광주/전주	(8)	12.5	12.5	75.0	0.0
	강원/제주	(10)	20.0	20.0	40.0	20.0
성별	남자	(47)	14.9	17.0	61.7	6.4
	여자	(316)	16.5	35.4	37.3	10.8
	기타	(2)	0.0	100.0	0.0	0.0
연령	20세 이하	(60)	23.3	38.3	21.7	16.7
	21-24세	(201)	15.9	33.8	40.8	9.5
	25-29세	(72)	9.7	33.3	48.6	8.3
	30-39세	(25)	20.0	24.0	48.0	8.0
	40-49세	(5)	0.0	0.0	100.0	0.0
	50세 이상	(2)	50.0	50.0	0.0	0.0

3.2.3 예술대학생의 성장경로별 사회진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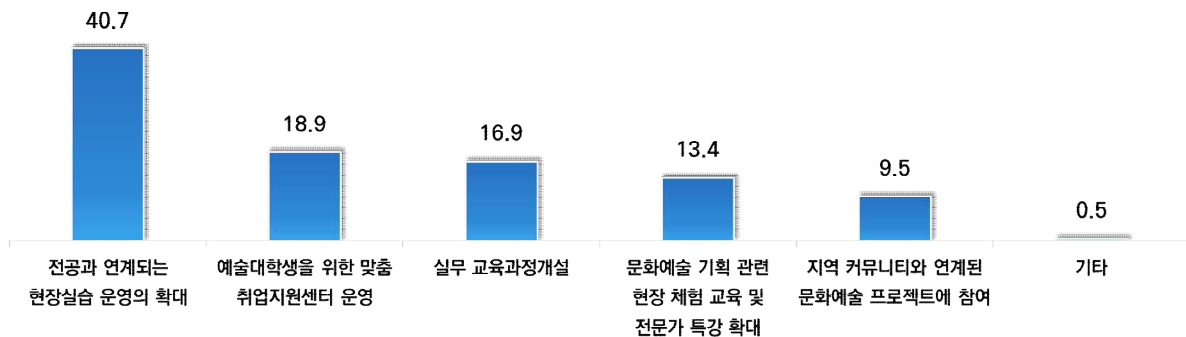
1) 예술대학생의 사회진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조사 결과

- 예술대학생의 사회진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공과 연계되는 현장실습 운영의 확대가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대학생을 위한 맞춤 취업지원센터 운영(18.9%), 실무 교육과정개설(16.9%), 문화예술 기획 관련 현장 체험 교육 및 전문가 특강 확대(13.4%),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된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참여(9.5%)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1] 예술대학생의 사회진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전공과 연계되는 현장실습 운영의 확대’(40.7%)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생(43.8%), 일반대학(4년제)(41.3%), 영상/미디어(50.0%), 충청/대전/세종(50.5%), 남자(45.3%), 20세 이하(52.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예술대학생을 위한 맞춤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졸업생(27.9%), 예술특성화 대학(20.3%), 사립(19.0%), 국악(32.4%), 전라/광주/전주(27.8%), 여자(19.0%), 30대(24.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3-23] 예술대학생의 사회진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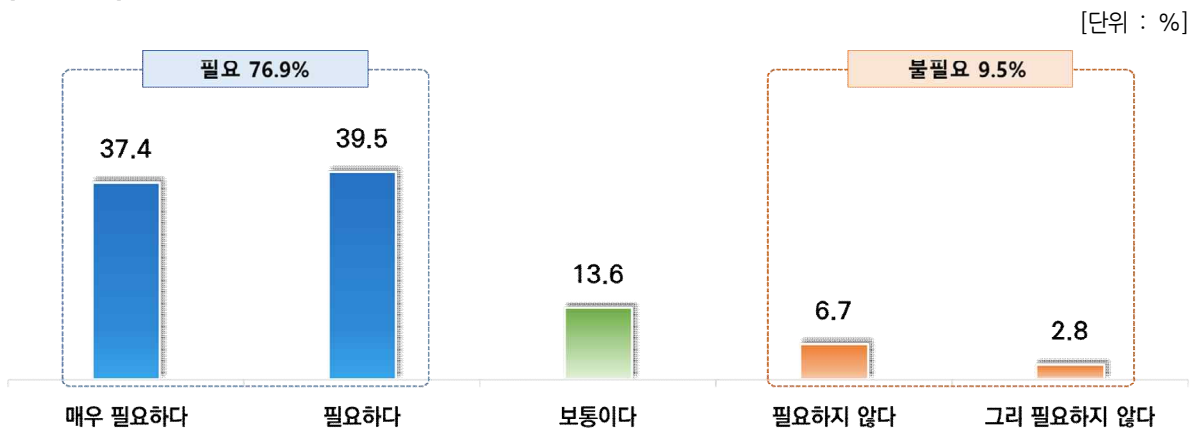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전공과 연계되는 현장실습(인턴 십, 산학연계 프로젝트) 운영의 확대	예술대학생을 위한 맞춤 취업지원센터 운영	실무 교육과정 (이력서/포트 폴리오/표준계 약서 작성, 저작권 교육 등) 개설	문화예술 기획 관련 현장 체험 교육 및 전문가 특강 확대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된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참여	기타
전 체		(567)	40.7	18.9	16.9	13.4	9.5	0.5
소속	학부 재학	(393)	43.8	18.6	19.3	13.2	5.1	0.0
	대학원 재학	(37)	43.2	10.8	8.1	8.1	29.7	0.0
	졸업생	(61)	19.7	27.9	16.4	21.3	14.8	0.0
	전임 교원(교수)	(45)	35.6	24.4	4.4	6.7	22.2	6.7
	비전임 교원(강사)	(22)	45.5	0.0	18.2	18.2	18.2	0.0
	기타	(9)	55.6	22.2	11.1	11.1	0.0	0.0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67)	41.3	18.4	18.2	13.1	8.6	0.4
	전문대학(2,3년제)	(26)	34.6	26.9	3.8	26.9	3.8	3.8
	예술특성화 대학	(64)	35.9	20.3	12.5	10.9	20.3	0.0
	사이버대학	(2)	50.0	0.0	0.0	50.0	0.0	0.0
	기타	(8)	62.5	12.5	25.0	0.0	0.0	0.0
설립 유형	국공립	(162)	40.7	18.5	14.8	15.4	10.5	0.0
	사립	(405)	40.7	19.0	17.8	12.6	9.1	0.7
전공	문학	(18)	33.3	27.8	0.0	27.8	11.1	0.0
	시각예술	(283)	44.9	14.8	20.1	12.0	7.8	0.4
	연극	(47)	29.8	19.1	12.8	17.0	17.0	4.3
	무용	(20)	30.0	40.0	5.0	25.0	0.0	0.0
	음악	(76)	25.0	28.9	21.1	13.2	11.8	0.0
	국악	(34)	35.3	32.4	8.8	8.8	14.7	0.0
	영상/미디어	(60)	50.0	13.3	16.7	15.0	5.0	0.0
	기타	(29)	58.6	6.9	10.3	6.9	17.2	0.0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92)	39.8	19.6	16.8	15.1	8.2	0.5
	충청/대전/세종	(103)	50.5	12.6	21.4	9.7	5.8	0.0
	경상/대구/부산/울산	(21)	23.8	28.6	4.8	14.3	23.8	4.8
	전라/광주/전주	(36)	30.6	27.8	2.8	11.1	27.8	0.0
	강원/제주	(15)	46.7	6.7	40.0	0.0	6.7	0.0
성별	남자	(106)	45.3	17.9	14.2	11.3	10.4	0.9
	여자	(458)	40.0	19.0	17.2	14.0	9.4	0.4
	기타	(3)	0.0	33.3	66.7	0.0	0.0	0.0
연령	20세 이하	(84)	52.4	7.1	21.4	15.5	3.6	0.0
	21-24세	(271)	38.7	21.8	18.5	13.3	7.7	0.0
	25-29세	(96)	40.6	18.8	16.7	14.6	9.4	0.0
	30-39세	(41)	26.8	24.4	14.6	14.6	17.1	2.4
	40-49세	(32)	40.6	12.5	12.5	9.4	21.9	3.1
	50세 이상	(43)	44.2	23.3	4.7	9.3	16.3	2.3

2) 학점과 연계된 현장실습 설계 및 운영의 필요도

조사 결과

- 학점과 연계된 현장실습 운영의 필요도를 물어본 결과, '필요하다'라는 긍정 응답이 76.9% (매우 필요하다 37.4% + 필요하다 39.5%)로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 응답 9.5%(그리 필요하지 않다 2.8% + 필요하지 않다 6.7%)보다 67.4%p 높게 나타났다
- 5점 평균은 4.02점, 100점 평균은 75.5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3-22] 학점과 연계된 현장실습 설계 및 운영의 필요도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예술대학 현장실습(인턴십, 산학연계 프로젝트)이 반드시 학점과 연계되어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한다'의 필요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원생(81.1점), 대학생(76.2점), 시각예술(76.5점), 국악(75.0점), 여자(75.7점), 25~29세(81.5점)에서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4] 학점과 연계 된 현장실습 설계 및 운영의 필요도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그리 필요하지 않다	필요	불필요	5점 척도	100점 척도
전 체		(567)	37.4	39.5	13.6	6.7	2.8	76.9	9.5	4.02	75.5
소속	학부 재학	(393)	38.7	38.2	14.5	6.6	2.0	76.8	8.7	4.05	76.2
	대학원 재학	(37)	48.6	35.1	10.8	2.7	2.7	83.8	5.4	4.24	81.1
	졸업생	(61)	26.2	45.9	18.0	8.2	1.6	72.1	9.8	3.87	71.7
	전임 교원(교수)	(45)	26.7	44.4	8.9	11.1	8.9	71.1	20.0	3.69	67.2
	비전임 교원(강사)	(22)	50.0	36.4	4.5	4.5	4.5	86.4	9.1	4.23	80.7
	기타	(9)	33.3	55.6	0.0	0.0	11.1	88.9	11.1	4.00	75.0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67)	38.1	38.3	14.1	6.9	2.6	76.4	9.4	4.03	75.6
	전문대학(2,3년제)	(26)	34.6	42.3	11.5	3.8	7.7	76.9	11.5	3.92	73.1
	예술특성화 대학	(64)	32.8	46.9	10.9	6.3	3.1	79.7	9.4	4.00	75.0
	사이버대학	(2)	50.0	50.0	0.0	0.0	0.0	100.0	0.0	4.50	87.5
	기타	(8)	37.5	37.5	12.5	12.5	0.0	75.0	12.5	4.00	75.0
설립 유형	국공립	(162)	34.0	39.5	17.3	6.8	2.5	73.5	9.3	3.96	73.9
	사립	(405)	38.8	39.5	12.1	6.7	3.0	78.3	9.6	4.04	76.1
전공	문학	(18)	33.3	50.0	11.1	5.6	0.0	83.3	5.6	4.11	77.8
	시각예술	(283)	40.3	37.1	12.7	8.1	1.8	77.4	9.9	4.06	76.5
	연극	(47)	27.7	42.6	23.4	2.1	4.3	70.2	6.4	3.87	71.8
	무용	(20)	50.0	40.0	10.0	0.0	0.0	90.0	0.0	4.40	85.0
	음악	(76)	34.2	42.1	15.8	3.9	3.9	76.3	7.9	3.99	74.7
	국악	(34)	35.3	44.1	8.8	8.8	2.9	79.4	11.8	4.00	75.0
	영상/미디어	(60)	36.7	33.3	13.3	10.0	6.7	70.0	16.7	3.83	70.8
	기타	(29)	31.0	51.7	10.3	3.4	3.4	82.8	6.9	4.03	75.9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92)	38.0	39.5	13.8	5.9	2.8	77.6	8.7	4.04	76.0
	충청/대전/세종	(103)	38.8	37.9	13.6	6.8	2.9	76.7	9.7	4.03	75.7
	경상/대구/부산/울산	(21)	38.1	38.1	4.8	14.3	4.8	76.2	19.0	3.90	72.6
	전라/광주/전주	(36)	30.6	41.7	19.4	5.6	2.8	72.2	8.3	3.92	72.9
	강원/제주	(15)	26.7	46.7	6.7	20.0	0.0	73.3	20.0	3.80	70.0
성별	남자	(106)	34.0	41.5	15.1	6.6	2.8	75.5	9.4	3.97	74.3
	여자	(458)	38.0	39.1	13.3	6.8	2.8	77.1	9.6	4.03	75.7
	기타	(3)	66.7	33.3	0.0	0.0	0.0	100.0	0.0	4.67	91.7
연령	20세 이하	(84)	34.5	32.1	21.4	9.5	2.4	66.7	11.9	3.87	71.7
	21-24세	(271)	37.6	38.7	13.7	7.4	2.6	76.4	10.0	4.01	75.4
	25-29세	(96)	44.8	39.6	12.5	3.1	0.0	84.4	3.1	4.26	81.5
	30-39세	(41)	29.3	53.7	9.8	2.4	4.9	82.9	7.3	4.00	75.0
	40-49세	(32)	31.3	43.8	12.5	6.3	6.3	75.0	12.5	3.88	71.9
	50세 이상	(43)	37.2	41.9	4.7	9.3	7.0	79.1	16.3	3.93	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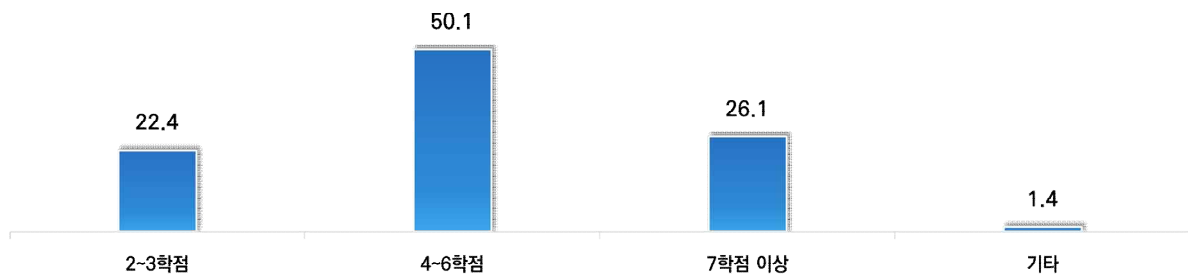
2-1) 현장실습과 학점을 연계할 경우 졸업 인정 학점 중 인정되는 최대 학점

조사 결과

- 현장실습과 학점을 연계할 경우 졸업 인정 학점 중 최대 몇 학점까지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2~3학점이 22.4%, 4~6학점이 50.1%, 7학점 이상 26.1%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3-23] 현장실습과 학점을 연계할 경우 졸업 인정 학점 중 인정되는 최대 학점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2~3학점'(22.4%)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임 교원(교수)(33.3%), 예술특성화 대학(37.5%), 국공립(25.3%), 음악(36.8%), 서울/경기/인천(23.2%), 여자(23.1%), 40대(37.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4~6학점'(50.1%)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원생(54.1%), 일반대학(4년제)(52.5%), 사립(50.4%), 시각예술(54.4%), 충청/대전/세종(52.4%), 여자(51.7%), 21~24세(56.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7학점 이상'(26.1%)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졸업생(36.1%), 일반대학(4년제)(25.5%), 사립(27.2%), 영상/미디어(36.7%), 충청/대전/세종(29.1%), 남자(34.0%), 25~29세(39.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3-25] 현장실습과 학점을 연계할 경우 졸업 인정 학점 중 인정되는 최대 학점

[단위 : %]

구 분		사례수	2~3학점	4~6학점	7학점 이상	기타
전 체		(567)	22.4	50.1	26.1	1.4
소속	학부 재학	(393)	19.3	53.7	26.5	0.5
	대학원 재학	(37)	27.0	54.1	18.9	0.0
	졸업생	(61)	24.6	37.7	36.1	1.6
	전임 교원(교수)	(45)	33.3	42.2	17.8	6.7
	비전임 교원(강사)	(22)	40.9	36.4	18.2	4.5
	기타	(9)	22.2	33.3	33.3	11.1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67)	20.8	52.5	25.5	1.3
	전문대학(2,3년제)	(26)	11.5	38.5	50.0	0.0
	예술특성화 대학	(64)	37.5	37.5	21.9	3.1
	사이버대학	(2)	0.0	100.0	0.0	0.0
	기타	(8)	37.5	37.5	25.0	0.0
설립 유형	국공립	(162)	25.3	49.4	23.5	1.9
	사립	(405)	21.2	50.4	27.2	1.2
전공	문학	(18)	16.7	33.3	50.0	0.0
	시각예술	(283)	19.8	54.4	24.7	1.1
	연극	(47)	25.5	42.6	27.7	4.3
	무용	(20)	20.0	50.0	25.0	5.0
	음악	(76)	36.8	46.1	15.8	1.3
	국악	(34)	32.4	32.4	32.4	2.9
	영상/미디어	(60)	16.7	46.7	36.7	0.0
	기타	(29)	10.3	69.0	20.7	0.0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92)	23.2	50.5	25.5	0.8
	충청/대전/세종	(103)	18.4	52.4	29.1	0.0
	경상/대구/부산/울산	(21)	19.0	38.1	33.3	9.5
	전라/광주/전주	(36)	19.4	50.0	22.2	8.3
	강원/제주	(15)	40.0	40.0	20.0	0.0
성별	남자	(106)	19.8	43.4	34.0	2.8
	여자	(458)	23.1	51.7	24.0	1.1
	기타	(3)	0.0	33.3	66.7	0.0
연령	20세 이하	(84)	25.0	53.6	21.4	0.0
	21-24세	(271)	18.8	56.5	24.0	0.7
	25-29세	(96)	18.8	41.7	39.6	0.0
	30-39세	(41)	26.8	41.5	29.3	2.4
	40-49세	(32)	37.5	34.4	25.0	3.1
	50세 이상	(43)	32.6	41.9	16.3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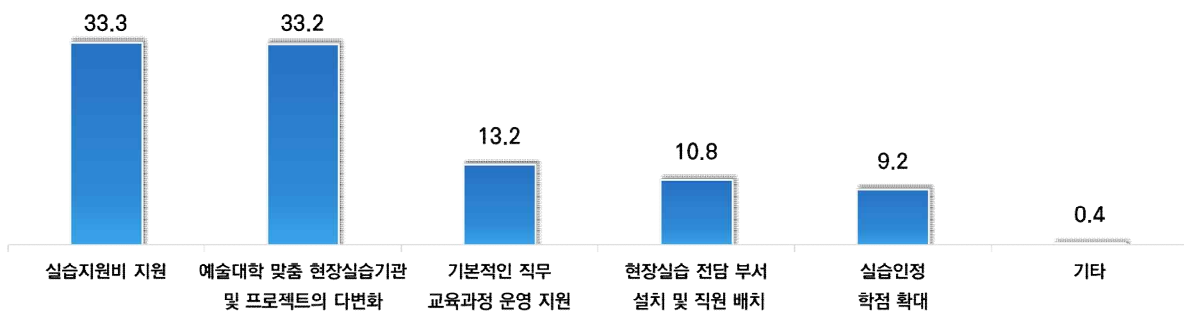
2-2) 학점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이 진행될 시 개선되어야 할 지점

조사 결과

- 학점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이 진행될 시 개선되어야 할 지점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실습지원비 지원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대학 맞춤 현장실습기관 및 프로젝트의 다변화(33.2%), 기본적인 직무 교육과정 운영 지원(13.2%), 현장실습 전담 부서 설치 및 직원 배치(10.8%), 실습인정 학점 확대(9.2%)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3-24] 학점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이 진행될 시 개선되어야 할 지점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계층별 응답 중 전임교원과 비전임 교원은 ‘예술대학 맞춤 현장 실습기관 및 프로젝트의 다변화’에 대해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임
- 학제유형별 응답 중 전문대학의 응답을 살펴보면 실습학점 인정 확대를 가장 높게 선택했으며, 이는 현장실습과 학점을 연계할 경우 졸업 인정 학점 중 인정되는 최대 학점으로 7학점 이상을 선택한 비율이 50% 이상과 연결해서 보면, 전문대학에서 현장 연계 실습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표3-26] 학점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이 진행될 시 개선되어야 할 지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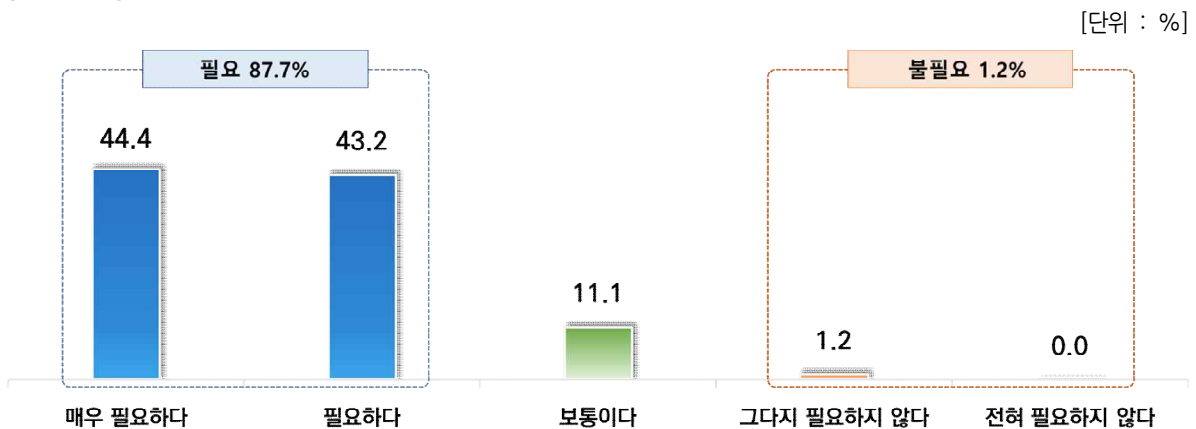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실습지원비 지원	예술대학 맞춤 현장실습기관 및 프로젝트의 다변화	기본적인 직무 교육과정 운영 지원	현장실습 전담 부서 설치 및 직원 배치	실습인정 학점 확대	기타
전 체		(567)	33.3	33.2	13.2	10.8	9.2	0.4
소속	학부 재학	(393)	35.1	31.3	16.3	9.9	7.4	0.0
	대학원 재학	(37)	35.1	37.8	5.4	10.8	10.8	0.0
	졸업생	(61)	29.5	24.6	11.5	11.5	23.0	0.0
	전임 교원(교수)	(45)	31.1	46.7	0.0	8.9	8.9	4.4
	비전임 교원(강사)	(22)	18.2	50.0	9.1	18.2	4.5	0.0
	기타	(9)	22.2	44.4	0.0	33.3	0.0	0.0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67)	33.6	34.0	13.7	10.7	7.7	0.2
	전문대학(2,3년제)	(26)	34.6	7.7	23.1	0.0	30.8	3.8
	예술특성화 대학	(64)	29.7	37.5	6.3	15.6	10.9	0.0
	사이버대학	(2)	0.0	50.0	0.0	50.0	0.0	0.0
	기타	(8)	50.0	25.0	12.5	0.0	12.5	0.0
설립 유형	국공립	(162)	35.8	32.1	9.9	10.5	11.7	0.0
	사립	(405)	32.3	33.6	14.6	10.9	8.1	0.5
전공	문학	(18)	22.2	11.1	11.1	5.6	50.0	0.0
	시각예술	(283)	36.0	31.8	15.2	11.3	5.7	0.0
	연극	(47)	34.0	36.2	6.4	6.4	14.9	2.1
	무용	(20)	25.0	25.0	20.0	5.0	25.0	0.0
	음악	(76)	22.4	40.8	14.5	14.5	6.6	1.3
	국악	(34)	35.3	38.2	11.8	8.8	5.9	0.0
	영상/미디어	(60)	43.3	30.0	11.7	6.7	8.3	0.0
	기타	(29)	24.1	41.4	3.4	20.7	10.3	0.0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92)	30.9	33.9	14.3	11.0	9.4	0.5
	충청/대전/세종	(103)	40.8	28.2	13.6	10.7	6.8	0.0
	경상/대구/부산/울산	(21)	42.9	23.8	9.5	9.5	14.3	0.0
	전라/광주/전주	(36)	36.1	36.1	8.3	8.3	11.1	0.0
	강원/제주	(15)	26.7	53.3	0.0	13.3	6.7	0.0
성별	남자	(106)	32.1	38.7	7.5	9.4	12.3	0.0
	여자	(458)	33.4	31.9	14.6	11.1	8.5	0.4
	기타	(3)	66.7	33.3	0.0	0.0	0.0	0.0
연령	20세 이하	(84)	42.9	26.2	13.1	13.1	4.8	0.0
	21-24세	(271)	34.7	31.4	16.6	9.2	8.1	0.0
	25-29세	(96)	31.3	32.3	11.5	10.4	14.6	0.0
	30-39세	(41)	22.0	34.1	14.6	12.2	14.6	2.4
	40-49세	(32)	18.8	59.4	6.3	9.4	6.3	0.0
	50세 이상	(43)	32.6	39.5	0.0	16.3	9.3	2.3

3) 문화예술 기획 및 홍보 등의 문화예술매개인력 양성과정 개설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 문화예술 기획 및 홍보 등의 문화예술매개인력 양성과정 개설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필요하다'라는 긍정 응답이 87.7%(매우 필요하다 44.4% + 필요하다 43.2%)로 '불필요하다'는 부정 응답 1.2%(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1.2%)보다 86.5%p 높게 나타났음
- 5점 평균은 4.31점, 100점 평균은 82.7점으로 나타났음

[그림 3-25] 문화예술 기획 및 홍보 등의 문화예술매개인력 양성과정 개설에 대한 의견



응답자 특성별 분석

- '문화예술 기획 및 홍보 등의 문화예술매개인력 양성과정 개설'에 대한 필요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원생(84.5점), 전임 교원(교수)(83.9점), 음악(86.2점), 국악(85.3점), 여자(83.2점), 50세 이상(87.8점)에서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3-27] 문화예술 기획 및 홍보 등의 문화예술매개인력 양성과정 개설에 대한 의견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	불필요	5점 척도	100점 척도
전 체		(567)	44.4	43.2	11.1	1.2	0.0	87.7	1.2	4.31	82.7
소속	학부 재학	(393)	44.8	45.8	8.9	0.5	0.0	90.6	0.5	4.35	83.7
	대학원 재학	(37)	45.9	45.9	8.1	0.0	0.0	91.9	0.0	4.38	84.5
	졸업생	(61)	31.1	36.1	27.9	4.9	0.0	67.2	4.9	3.93	73.4
	전임 교원(교수)	(45)	55.6	28.9	11.1	4.4	0.0	84.4	4.4	4.36	83.9
	비전임 교원(강사)	(22)	59.1	31.8	9.1	0.0	0.0	90.9	0.0	4.50	87.5
	기타	(9)	22.2	66.7	11.1	0.0	0.0	88.9	0.0	4.11	77.8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67)	46.7	41.8	10.7	0.9	0.0	88.4	0.9	4.34	83.6
	전문대학(2,3년제)	(26)	11.5	65.4	19.2	3.8	0.0	76.9	3.8	3.85	71.2
	예술특성화 대학	(64)	42.2	43.8	10.9	3.1	0.0	85.9	3.1	4.25	81.3
	사이버대학	(2)	50.0	50.0	0.0	0.0	0.0	100.0	0.0	4.50	87.5
	기타	(8)	37.5	50.0	12.5	0.0	0.0	87.5	0.0	4.25	81.3
설립 유형	국공립	(162)	38.9	43.2	16.7	1.2	0.0	82.1	1.2	4.20	79.9
	사립	(405)	46.7	43.2	8.9	1.2	0.0	89.9	1.2	4.35	83.8
전공	문학	(18)	44.4	38.9	16.7	0.0	0.0	83.3	0.0	4.28	81.9
	시각예술	(283)	45.9	44.2	8.8	1.1	0.0	90.1	1.1	4.35	83.7
	연극	(47)	42.6	38.3	19.1	0.0	0.0	80.9	0.0	4.23	80.9
	무용	(20)	45.0	50.0	5.0	0.0	0.0	95.0	0.0	4.40	85.0
	음악	(76)	53.9	36.8	9.2	0.0	0.0	90.8	0.0	4.45	86.2
	국악	(34)	52.9	38.2	5.9	2.9	0.0	91.2	2.9	4.41	85.3
	영상/미디어	(60)	25.0	48.3	21.7	5.0	0.0	73.3	5.0	3.93	73.3
	기타	(29)	37.9	51.7	10.3	0.0	0.0	89.7	0.0	4.28	81.9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92)	45.7	43.1	10.2	1.0	0.0	88.8	1.0	4.33	83.4
	충청/대전/세종	(103)	43.7	44.7	11.7	0.0	0.0	88.3	0.0	4.32	83.0
	경상/대구/부산/울산	(21)	33.3	42.9	14.3	9.5	0.0	76.2	9.5	4.00	75.0
	전라/광주/전주	(36)	44.4	38.9	16.7	0.0	0.0	83.3	0.0	4.28	81.9
	강원/제주	(15)	33.3	46.7	13.3	6.7	0.0	80.0	6.7	4.07	76.7
성별	남자	(106)	39.6	43.4	16.0	0.9	0.0	83.0	0.9	4.22	80.4
	여자	(458)	45.6	43.0	10.0	1.3	0.0	88.6	1.3	4.33	83.2
	기타	(3)	33.3	66.7	0.0	0.0	0.0	100.0	0.0	4.33	83.3
연령	20세 이하	(84)	51.2	44.0	4.8	0.0	0.0	95.2	0.0	4.46	86.6
	21-24세	(271)	41.7	45.8	10.7	1.8	0.0	87.5	1.8	4.27	81.8
	25-29세	(96)	42.7	39.6	16.7	1.0	0.0	82.3	1.0	4.24	81.0
	30-39세	(41)	41.5	43.9	14.6	0.0	0.0	85.4	0.0	4.27	81.7
	40-49세	(32)	37.5	43.8	18.8	0.0	0.0	81.3	0.0	4.19	79.7
	50세 이상	(43)	60.5	32.6	4.7	2.3	0.0	93.0	2.3	4.51	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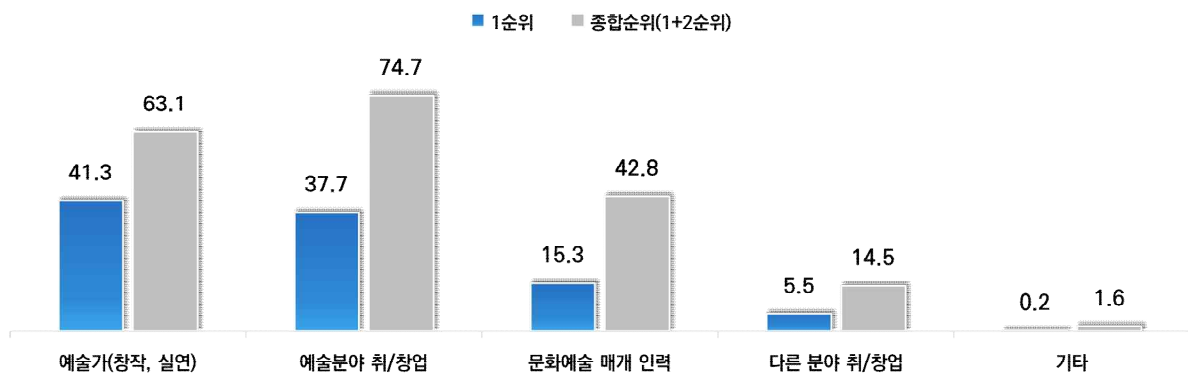
4) (학생/졸업생 대상 문항)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졸업 이후 활동하고 있는 분야

조사 결과

-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나 졸업 이후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물어본 결과, 예술가(창작, 실연)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분야 취/창업(37.7%), 문화예술 매개 인력(15.3%), 다른 분야 취/창업(5.5%) 순으로(1순위 기준)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술분야에 진로/졸업을 희망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6]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졸업 이후 활동하고 있는 분야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예술가(창작, 실연)’(41.3%)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원생(54.1%), 예술특성화 대학(62.8%), 국공립(47.1%), 연극(80.0%), 서울/경기/인천(47.6%), 남자(46.5%), 30대(58.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예술분야 취/창업’(37.7%)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생(42.5%), 일반대학(4년제)(41.6%), 사립(42.2%), 시각예술(47.0%), 충청/대전/세종(52.5%), 여자(38.8%), 20세 이하(47.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3-28]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졸업 이후 활동하고 있는 분야 1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예술가 (창작, 실연)	예술분야 취/창업	문화예술 매개 인력(기획 및 행정, 홍보 등)	다른 분야 취/창업	기타
전 체		(491)	41.3	37.7	15.3	5.5	0.2
소속	학부 재학	(393)	39.2	42.5	12.0	6.1	0.3
	대학원 재학	(37)	54.1	16.2	27.0	2.7	0.0
	졸업생	(61)	47.5	19.7	29.5	3.3	0.0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18)	37.3	41.6	14.8	6.0	0.2
	전문대학(2,3년제)	(22)	63.6	13.6	22.7	0.0	0.0
	예술특성화 대학	(43)	62.8	16.3	16.3	4.7	0.0
	기타	(8)	75.0	12.5	12.5	0.0	0.0
설립 유형	국공립	(140)	47.1	26.4	16.4	10.0	0.0
	사립	(351)	39.0	42.2	14.8	3.7	0.3
전공	문학	(18)	61.1	11.1	27.8	0.0	0.0
	시각예술	(266)	35.3	47.0	13.2	4.5	0.0
	연극	(35)	80.0	2.9	14.3	2.9	0.0
	무용	(13)	38.5	30.8	15.4	15.4	0.0
	음악	(65)	50.8	26.2	10.8	12.3	0.0
	국악	(24)	54.2	29.2	4.2	12.5	0.0
	영상/미디어	(54)	31.5	44.4	20.4	1.9	1.9
	기타	(16)	12.5	31.3	56.3	0.0	0.0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47)	47.6	33.1	13.8	5.5	0.0
	충청/대전/세종	(99)	26.3	52.5	15.2	5.1	1.0
	경상/대구/부산/울산	(15)	33.3	33.3	33.3	0.0	0.0
	전라/광주/전주	(18)	22.2	38.9	27.8	11.1	0.0
	강원/제주	(12)	25.0	50.0	16.7	8.3	0.0
성별	남자	(71)	46.5	31.0	16.9	4.2	1.4
	여자	(417)	40.3	38.8	15.1	5.8	0.0
	기타	(3)	66.7	33.3	0.0	0.0	0.0
연령	20세 이하	(84)	36.9	47.6	11.9	3.6	0.0
	21-24세	(270)	40.0	41.9	12.2	5.9	0.0
	25-29세	(96)	39.6	29.2	22.9	7.3	1.0
	30-39세	(34)	58.8	8.8	29.4	2.9	0.0
	40-49세	(5)	80.0	20.0	0.0	0.0	0.0
	50세 이상	(2)	100.0	0.0	0.0	0.0	0.0

[표3-29]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졸업 이후 활동하고 있는 분야-종합순위(1+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예술분야 취/창업	예술가 (창작, 실연)	문화예술 매개 인력(기획 및 행정, 홍보 등)	다른 분야 취/창업	기타
전 체		(491)	74.7	63.1	42.8	14.5	1.6
소속	학부 재학	(393)	75.3	62.6	41.7	16.0	1.0
	대학원 재학	(37)	75.7	67.6	40.5	8.1	5.4
	졸업생	(61)	70.5	63.9	50.8	8.2	3.3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18)	77.5	61.5	41.1	15.1	1.2
	전문대학(2,3년제)	(22)	31.8	72.7	77.3	18.2	0.0
	예술특성화 대학	(43)	69.8	72.1	41.9	9.3	7.0
	기타	(8)	75.0	75.0	37.5	0.0	0.0
설립 유형	국공립	(140)	68.6	67.9	35.0	18.6	2.9
	사립	(351)	77.2	61.3	45.9	12.8	1.1
전공	문학	(18)	44.4	72.2	38.9	33.3	0.0
	시각예술	(266)	77.8	60.9	45.9	12.4	0.8
	연극	(35)	65.7	82.9	34.3	8.6	5.7
	무용	(13)	61.5	61.5	46.2	23.1	0.0
	음악	(65)	78.5	64.6	33.8	20.0	0.0
	국악	(24)	70.8	70.8	20.8	20.8	8.3
	영상/미디어	(54)	74.1	59.3	46.3	14.8	3.7
	기타	(16)	81.3	43.8	68.8	0.0	0.0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47)	72.0	66.3	42.4	14.7	1.4
	충청/대전/세종	(99)	82.8	56.6	43.4	13.1	2.0
	경상/대구/부산/울산	(15)	80.0	53.3	46.7	13.3	0.0
	전라/광주/전주	(18)	66.7	55.6	44.4	22.2	5.6
	강원/제주	(12)	91.7	50.0	41.7	8.3	0.0
성별	남자	(71)	77.5	60.6	39.4	15.5	2.8
	여자	(417)	74.3	63.3	43.4	14.4	1.4
	기타	(3)	66.7	100.0	33.3	0.0	0.0
연령	20세 이하	(84)	79.8	65.5	42.9	10.7	0.0
	21-24세	(270)	74.1	62.6	43.3	15.9	0.7
	25-29세	(96)	71.9	60.4	43.8	15.6	4.2
	30-39세	(34)	76.5	61.8	41.2	11.8	5.9
	40-49세	(5)	80.0	100.0	20.0	0.0	0.0
	50세 이상	(2)	50.0	10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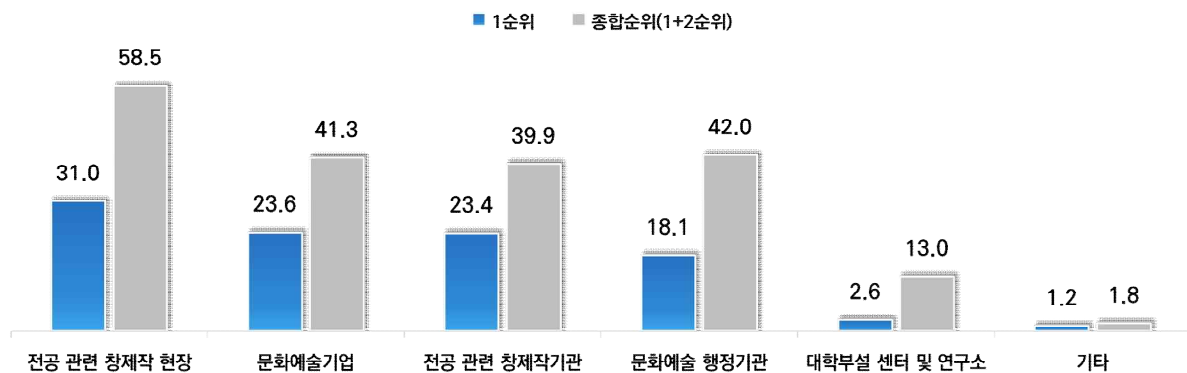
5) (학생/졸업생 대상 문항) 예술대학 재학 중 인턴십으로 일해보고 싶은 기관/일해본 기관

조사 결과

- 예술대학 재학 중 인턴십으로 일해보고 싶은 기관이나 일해 본 기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공 관련 창·제작 현장(영화 제작, 현업 예술가 스튜디오 등)이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문화예술기업(출판사, 디자인회사 등, 23.6%), 전공 관련 창·제작기관(극장, 미술관 등 23.4%), 문화예술 행정기관(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18.1%), 대학부설 센터 및 연구소(융합예술센터, 문화기술연구소 등, 2.6%) 순으로 나타났음(1순위 기준)

[그림 3-27] 예술대학 재학 중 인턴십으로 일해보고 싶은 기관/일해본 기관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전공 관련 창·제작 현장(영화 제작, 현업 예술가 스튜디오 등)’(31.0%)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생(32.6%), 예술특성화 대학(34.9%), 국공립(34.3%), 연극(40.0%), 충청/대전/세종(38.4%), 남자(39.4%), 21~24세(34.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문화예술기업(출판사, 디자인회사 등)’(23.6%)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생(27.7%), 일반대학(4년제)(26.8%), 사립(26.5%), 시각예술(36.5%), 충청/대전/세종(39.4%), 여자(24.2%), 20세 이하(41.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30] 예술대학 재학 중 인턴십으로 일해보고 싶은 기관/일해본 기관-1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전공 관련 창·제작 현장 (영화 제작, 현업 예술가 스튜디오 등)	문화예술기업 (출판사, 디자인회사 등)	전공 관련 창·제작기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예술 행정기관 (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등)	대학부설 센터 및 연구소 (융합예술센터, 문화기술연구 소 등)	기타
전 체		(491)	31.0	23.6	23.4	18.1	2.6	1.2
소속	학부 재학	(393)	32.6	27.7	22.1	14.2	1.8	1.5
	대학원 재학	(37)	27.0	2.7	27.0	32.4	10.8	0.0
	졸업생	(61)	23.0	9.8	29.5	34.4	3.3	0.0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18)	31.1	26.8	22.0	16.0	2.6	1.4
	전문대학(2,3년제)	(22)	27.3	4.5	40.9	27.3	0.0	0.0
	예술특성화 대학	(43)	34.9	4.7	23.3	32.6	4.7	0.0
	기타	(8)	12.5	12.5	50.0	25.0	0.0	0.0
설립 유형	국공립	(140)	34.3	16.4	24.3	22.1	1.4	1.4
	사립	(351)	29.6	26.5	23.1	16.5	3.1	1.1
전공	문학	(18)	22.2	22.2	44.4	11.1	0.0	0.0
	시각예술	(266)	26.7	36.5	20.3	13.9	1.5	1.1
	연극	(35)	40.0	2.9	31.4	22.9	2.9	0.0
	무용	(13)	38.5	0.0	38.5	23.1	0.0	0.0
	음악	(65)	33.8	4.6	30.8	23.1	4.6	3.1
	국악	(24)	12.5	0.0	25.0	58.3	4.2	0.0
	영상/미디어	(54)	53.7	16.7	13.0	13.0	1.9	1.9
	기타	(16)	25.0	12.5	25.0	18.8	18.8	0.0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47)	30.5	20.2	28.2	17.9	2.0	1.2
	충청/대전/세종	(99)	38.4	39.4	5.1	11.1	5.1	1.0
	경상/대구/부산/울산	(15)	26.7	6.7	26.7	33.3	6.7	0.0
	전라/광주/전주	(18)	16.7	5.6	27.8	50.0	0.0	0.0
	강원/제주	(12)	8.3	41.7	25.0	16.7	0.0	8.3
성별	남자	(71)	39.4	19.7	21.1	15.5	1.4	2.8
	여자	(417)	29.5	24.2	24.0	18.5	2.9	1.0
	기타	(3)	33.3	33.3	0.0	33.3	0.0	0.0
연령	20세 이하	(84)	26.2	41.7	15.5	10.7	3.6	2.4
	21-24세	(270)	34.1	23.0	23.3	16.7	1.9	1.1
	25-29세	(96)	29.2	17.7	26.0	22.9	3.1	1.0
	30-39세	(34)	26.5	5.9	29.4	32.4	5.9	0.0
	40-49세	(5)	20.0	0.0	40.0	40.0	0.0	0.0
	50세 이상	(2)	0.0	0.0	100.0	0.0	0.0	0.0

[표 3-31] 예술대학 재학 중 인턴십으로 일해보고 싶은 기관/일해본 기관-종합순위(1+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전공 관련 창·제작 현장 (영화 제작, 현업 예술가 스튜디오 등)	문화예술 행정기관 (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등)	문화예술기업 (출판사, 디자인회사 등)	전공 관련 창·제작기관 (극장, 미술관 등)	대학부설 센터 및 연구소 (융합예술센터, 문화기술연구 소 등)	기타
전 체		(491)	58.5	42.0	41.3	39.9	13.0	1.8
소속	학부 재학	(393)	61.3	37.7	46.3	39.2	10.7	2.0
	대학원 재학	(37)	43.2	56.8	16.2	54.1	24.3	0.0
	졸업생	(61)	49.2	60.7	24.6	36.1	21.3	1.6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18)	59.1	38.8	45.7	38.5	12.7	1.7
	전문대학(2,3년제)	(22)	40.9	72.7	27.3	50.0	4.5	0.0
	예술특성화 대학	(43)	60.5	60.5	11.6	44.2	18.6	4.7
	기타	(8)	62.5	25.0	12.5	62.5	25.0	0.0
설립 유형	국공립	(140)	61.4	43.6	35.7	42.9	10.7	2.1
	사립	(351)	57.3	41.3	43.6	38.7	14.0	1.7
전공	문학	(18)	38.9	38.9	61.1	44.4	11.1	0.0
	시각예술	(266)	57.9	39.8	54.1	35.0	8.6	1.1
	연극	(35)	68.6	37.1	11.4	57.1	17.1	2.9
	무용	(13)	46.2	61.5	15.4	61.5	15.4	0.0
	음악	(65)	53.8	46.2	16.9	50.8	21.5	4.6
	국악	(24)	41.7	70.8	4.2	45.8	37.5	0.0
	영상/미디어	(54)	81.5	27.8	48.1	31.5	7.4	3.7
	기타	(16)	43.8	62.5	25.0	37.5	25.0	0.0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47)	55.6	44.1	35.7	45.5	13.0	1.7
	충청/대전/세종	(99)	72.7	27.3	64.6	20.2	11.1	2.0
	경상/대구/부산/울산	(15)	46.7	60.0	26.7	33.3	33.3	0.0
	전라/광주/전주	(18)	50.0	61.1	22.2	50.0	16.7	0.0
	강원/제주	(12)	50.0	50.0	58.3	33.3	0.0	8.3
성별	남자	(71)	66.2	29.6	39.4	39.4	15.5	4.2
	여자	(417)	56.8	44.1	41.7	40.0	12.7	1.4
	기타	(3)	100.0	33.3	33.3	33.3	0.0	0.0
연령	20세 이하	(84)	64.3	29.8	60.7	28.6	14.3	2.4
	21-24세	(270)	58.1	42.6	41.5	42.6	11.1	1.1
	25-29세	(96)	57.3	50.0	36.5	35.4	11.5	3.1
	30-39세	(34)	44.1	47.1	14.7	52.9	29.4	2.9
	40-49세	(5)	80.0	40.0	0.0	60.0	20.0	0.0
	50세 이상	(2)	100.0	0.0	0.0	100.0	0.0	0.0

3.2.4 예술대학 교·강사 지원

1) (전임/비전임 교원 대상 문항) 예술대학 활성화를 위해 교원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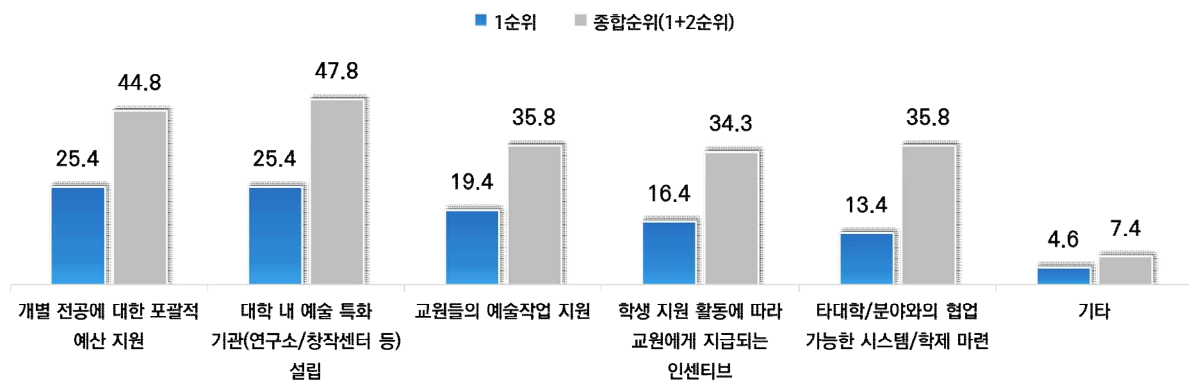
조사 결과

- 예술대학 활성화를 위해 교원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요소에 대해 물어본 결과, 개별 전공에 대한 포괄적 예산 지원과 대학 내 예술 특화 기관(연구소/창작센터 등) 설립 이 각각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원들의 예술작업 지원(19.4%), 학생 지원 활동에 따라 교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16.4%), 타 대학/분야와의 협업 가능한 시스템/학제 마련 (13.4%) 순으로 나타났음(1순위 기준)

※예술대학 교·강사 지원 파트는 응답자 특성별 분석에 있어 사례수(n=67)가 충분하지 않아 분석하지 않음

[그림 3-28] 예술대학 활성화를 위해 교원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요소

[단위 : %]



[표3-32] 예술대학 활성화를 위해 교원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요소-1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개별 전공에 대한 포괄적 예산 지원	대학 내 예술 특화 기관 (연구소/창작센터 등) 설립	교원들의 예술작업 지원	학생 지원 활동에 따라 교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타대학/분야와의 협업 가능한 시스템/학제 마련
전 체		(67)	25.4	25.4	19.4	16.4	13.4
소속	전임 교원(교수)	(45)	26.7	20.0	26.7	13.3	13.3
	비전임 교원(강사)	(22)	22.7	36.4	4.5	22.7	13.6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5)	24.4	26.7	17.8	17.8	13.3
	전문대학(2,3년제)	(4)	25.0	25.0	25.0	25.0	0.0
	예술특성화 대학	(16)	31.3	25.0	25.0	12.5	6.3
설립 유형	사이버대학	(2)	0.0	0.0	0.0	0.0	100.0
	국공립	(20)	40.0	35.0	10.0	10.0	5.0
전공	사립	(47)	19.1	21.3	23.4	19.1	17.0
	시각예술	(16)	31.3	31.3	18.8	12.5	6.3
	연극	(10)	20.0	20.0	50.0	10.0	0.0
	무용	(7)	14.3	42.9	0.0	28.6	14.3
	음악	(11)	45.5	9.1	18.2	18.2	9.1
	국악	(9)	11.1	44.4	22.2	11.1	11.1
	영상/미디어	(6)	33.3	16.7	0.0	50.0	0.0
	기타	(8)	12.5	12.5	12.5	0.0	62.5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9)	23.1	15.4	23.1	20.5	17.9
	충청/대전/세종	(4)	25.0	50.0	25.0	0.0	0.0
	경상/대구/부산/울산	(5)	40.0	20.0	20.0	20.0	0.0
	전라/광주/전주	(16)	25.0	43.8	12.5	6.3	12.5
	강원/제주	(3)	33.3	33.3	0.0	33.3	0.0
성별	남자	(32)	21.9	28.1	18.8	25.0	6.3
	여자	(35)	28.6	22.9	20.0	8.6	20.0
연령	21-24세	(1)	100.0	0.0	0.0	0.0	0.0
	30-39세	(3)	0.0	33.3	66.7	0.0	0.0
	40-49세	(25)	32.0	16.0	24.0	16.0	12.0
	50세 이상	(38)	21.1	31.6	13.2	18.4	15.8

[표3-33] 예술대학 활성화를 위해 교원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요소-종합순위(1+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대학 내 예술 특화 기관 (연구소/창작 센터 등) 설립	개별 전공에 대한 포괄적 예산 지원	타대학/분야와 의 협업 가능한 시스템/학제 마련	교원들의 예술작업 지원	학생 자원 활동에 따라 교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기타
전 체		(67)	47.8	44.8	35.8	35.8	34.3	1.5
소속	전임 교원(교수)	(45)	44.4	42.2	35.6	40.0	35.6	2.2
	비전임 교원(강사)	(22)	54.5	50.0	36.4	27.3	31.8	0.0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5)	46.7	46.7	35.6	31.1	37.8	2.2
	전문대학(2,3년제)	(4)	50.0	50.0	25.0	50.0	25.0	0.0
	예술특성화 대학	(16)	56.3	43.8	31.3	43.8	25.0	0.0
설립 유형	사이버대학	(2)	0.0	0.0	100.0	50.0	50.0	0.0
	국공립	(20)	45.0	70.0	30.0	15.0	40.0	0.0
	사립	(47)	48.9	34.0	38.3	44.7	31.9	2.1
전공	시각예술	(16)	43.8	56.3	31.3	31.3	31.3	6.3
	연극	(10)	60.0	30.0	20.0	70.0	20.0	0.0
	무용	(7)	71.4	57.1	42.9	0.0	28.6	0.0
	음악	(11)	27.3	63.6	18.2	45.5	45.5	0.0
	국악	(9)	66.7	33.3	44.4	33.3	22.2	0.0
	영상/미디어	(6)	33.3	50.0	33.3	16.7	66.7	0.0
	기타	(8)	37.5	12.5	75.0	37.5	37.5	0.0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9)	43.6	38.5	41.0	43.6	33.3	0.0
	충청/대전/세종	(4)	50.0	25.0	25.0	50.0	50.0	0.0
	경상/대구/부산/울산	(5)	20.0	80.0	0.0	20.0	60.0	20.0
	전라/광주/전주	(16)	68.8	43.8	43.8	25.0	18.8	0.0
	강원/제주	(3)	33.3	100.0	0.0	0.0	66.7	0.0
성별	남자	(32)	46.9	46.9	25.0	34.4	43.8	3.1
	여자	(35)	48.6	42.9	45.7	37.1	25.7	0.0
연령	21-24세	(1)	0.0	100.0	0.0	0.0	100.0	0.0
	30-39세	(3)	66.7	0.0	0.0	100.0	33.3	0.0
	40-49세	(25)	48.0	52.0	36.0	32.0	32.0	0.0
	50세 이상	(38)	47.4	42.1	39.5	34.2	34.2	2.6

2) (전임/비전임 교원 대상 문항) 타대학 예술전공/타분야와의 융복합 및 협업 작업을 시도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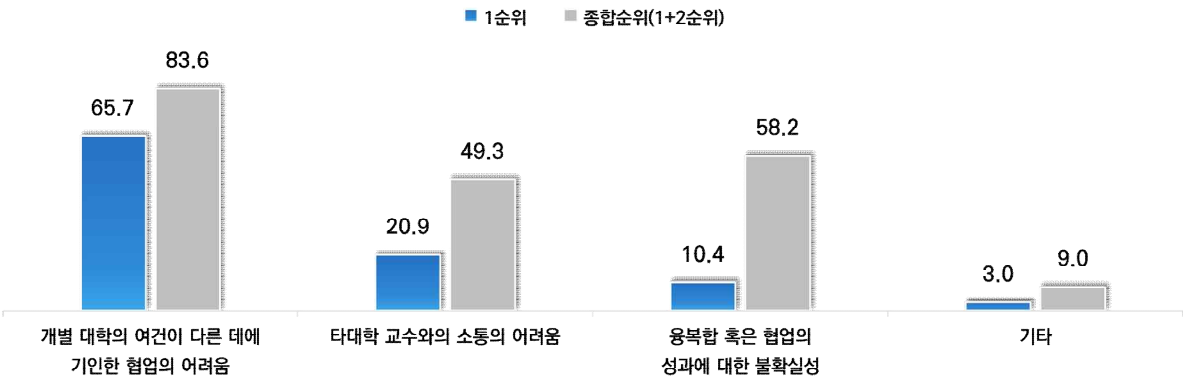
조사 결과

- 타대학 예술전공/타분야와의 융복합 및 협업 작업을 시도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개별 대학의 여건이 다른 데에 기인한 협업의 어려움이 6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타대학 교수와의 소통의 어려움(20.9%), 융복합 혹은 협업의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10.4%) 순으로 나타났음(1순위 기준)

※ 예술대학 교·강사 지원 파트는 응답자 특성별 분석에 있어 사례수(n=67)가 충분하지 않아 분석하지 않음.

[그림 3-29] 타대학 예술전공/타분야와의 융복합 및 협업 작업을 시도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

[단위 : %]



[표 3-34] 타대학 예술전공/타분야와의 융복합 및 협업 작업을 시도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1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개별 대학의 여건이 다른 데에 기인한 협업의 어려움	타대학 교수와의 소통의 어려움	융복합 혹은 협업의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	기타
전 체		(67)	65.7	20.9	10.4	3.0
소속	전임 교원(교수)	(45)	64.4	17.8	13.3	4.4
	비전임 교원(강사)	(22)	68.2	27.3	4.5	0.0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5)	57.8	24.4	13.3	4.4
	전문대학(2,3년제)	(4)	100.0	0.0	0.0	0.0
	예술특성화 대학	(16)	75.0	18.8	6.3	0.0
	사이버대학	(2)	100.0	0.0	0.0	0.0
설립 유형	국공립	(20)	50.0	35.0	15.0	0.0
	사립	(47)	72.3	14.9	8.5	4.3
전공	시각예술	(16)	81.3	6.3	12.5	0.0
	연극	(10)	70.0	10.0	0.0	20.0
	무용	(7)	57.1	28.6	14.3	0.0
	음악	(11)	72.7	27.3	0.0	0.0
	국악	(9)	44.4	22.2	33.3	0.0
	영상/미디어	(6)	66.7	33.3	0.0	0.0
	기타	(8)	50.0	37.5	12.5	0.0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9)	74.4	15.4	7.7	2.6
	충청/대전/세종	(4)	75.0	25.0	0.0	0.0
	경상/대구/부산/울산	(5)	40.0	40.0	20.0	0.0
	전라/광주/전주	(16)	50.0	25.0	18.8	6.3
	강원/제주	(3)	66.7	33.3	0.0	0.0
성별	남자	(32)	71.9	15.6	9.4	3.1
	여자	(35)	60.0	25.7	11.4	2.9
연령	21-24세	(1)	0.0	100.0	0.0	0.0
	30-39세	(3)	66.7	33.3	0.0	0.0
	40-49세	(25)	52.0	24.0	16.0	8.0
	50세 이상	(38)	76.3	15.8	7.9	0.0

[표3-35] 타대학 예술전공/타분야와의 융복합 및 협업 작업을 시도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종합순위(1+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개별 대학의 여건이 다른 데에 기인한 협업의 어려움	융복합 혹은 협업의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	타대학 교수와의 소통의 어려움	기타
전 체		(67)	83.6	58.2	49.3	9.0
소속	전임 교원(교수)	(45)	82.2	57.8	46.7	13.3
	비전임 교원(강사)	(22)	86.4	59.1	54.5	0.0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5)	80.0	62.2	46.7	11.1
	전문대학(2,3년제)	(4)	100.0	0.0	75.0	25.0
	예술특성화 대학	(16)	87.5	62.5	50.0	0.0
설립 유형	사이버대학	(2)	100.0	50.0	50.0	0.0
	국공립	(20)	80.0	55.0	60.0	5.0
전공	사립	(47)	85.1	59.6	44.7	10.6
	시각예술	(16)	100.0	62.5	31.3	6.3
	연극	(10)	80.0	70.0	30.0	20.0
	무용	(7)	71.4	57.1	71.4	0.0
	음악	(11)	72.7	72.7	45.5	9.1
	국악	(9)	88.9	44.4	55.6	11.1
	영상/미디어	(6)	100.0	0.0	83.3	16.7
	기타	(8)	62.5	75.0	62.5	0.0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9)	82.1	59.0	51.3	7.7
	충청/대전/세종	(4)	75.0	75.0	50.0	0.0
	경상/대구/부산/울산	(5)	80.0	60.0	40.0	20.0
	전라/광주/전주	(16)	87.5	50.0	50.0	12.5
	강원/제주	(3)	100.0	66.7	33.3	0.0
성별	남자	(32)	90.6	59.4	43.8	6.3
	여자	(35)	77.1	57.1	54.3	11.4
연령	21-24세	(1)	100.0	0.0	100.0	0.0
	30-39세	(3)	66.7	66.7	66.7	0.0
	40-49세	(25)	72.0	72.0	44.0	12.0
	50세 이상	(38)	92.1	50.0	50.0	7.9

3) (전임/비전임 교원 대상 문항) 예술현장과의 연계를 활용한 실습 과목 운영 상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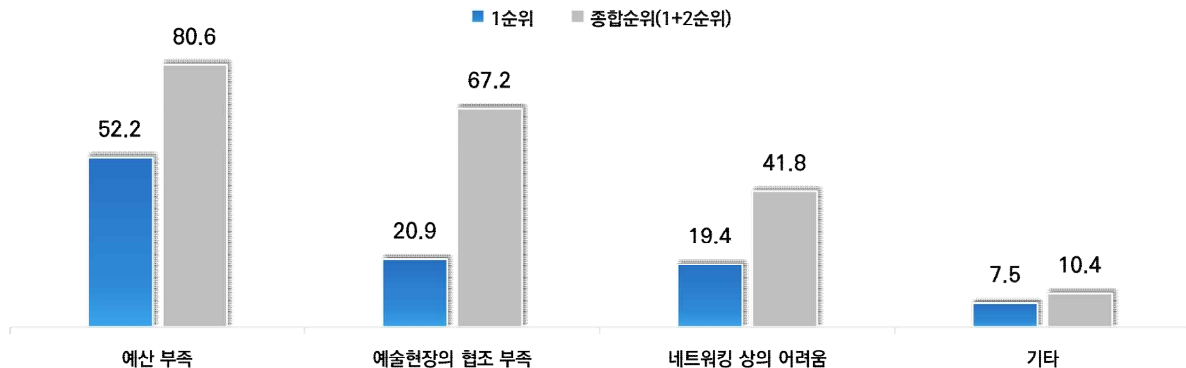
조사 결과

- 예술현장과의 연계를 활용한 실습 과목 운영 상의 어려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예산 부족이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현장의 협조 부족(20.9%), 네트워킹 상의 어려움(19.4%) 순으로 나타났음(1순위 기준)

※ 예술대학 교·강사 지원 파트는 응답자 특성별 분석에 있어 사례수(n=67)가 충분하지 않아 분석하지 않음

[그림 3-30] 예술현장과의 연계를 활용한 실습 과목 운영 상의 어려움

[단위 : %]



[표3-36] 예술현장과의 연계를 활용한 실습 과목 운영 상의 어려움-1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예산 부족	예술현장의 협조 부족	네트워킹 상의 어려움	기타
전 체		(67)	52.2	20.9	19.4	7.5
소속	전임 교원(교수)	(45)	51.1	17.8	24.4	6.7
	비전임 교원(강사)	(22)	54.5	27.3	9.1	9.1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5)	46.7	24.4	22.2	6.7
	전문대학(2,3년제)	(4)	50.0	25.0	0.0	25.0
	예술특성화 대학	(16)	68.8	6.3	18.8	6.3
	사이버대학	(2)	50.0	50.0	0.0	0.0
설립 유형	국공립	(20)	60.0	10.0	30.0	0.0
	사립	(47)	48.9	25.5	14.9	10.6
전공	시각예술	(16)	50.0	12.5	25.0	12.5
	연극	(10)	30.0	40.0	10.0	20.0
	무용	(7)	28.6	28.6	28.6	14.3
	음악	(11)	54.5	27.3	18.2	0.0
	국악	(9)	77.8	11.1	11.1	0.0
	영상/미디어	(6)	66.7	16.7	16.7	0.0
	기타	(8)	62.5	12.5	25.0	0.0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9)	51.3	23.1	17.9	7.7
	충청/대전/세종	(4)	50.0	25.0	25.0	0.0
	경상/대구/부산/울산	(5)	60.0	0.0	20.0	20.0
	전라/광주/전주	(16)	50.0	18.8	25.0	6.3
	강원/제주	(3)	66.7	33.3	0.0	0.0
성별	남자	(32)	50.0	18.8	18.8	12.5
	여자	(35)	54.3	22.9	20.0	2.9
연령	21-24세	(1)	0.0	0.0	100.0	0.0
	30-39세	(3)	0.0	66.7	33.3	0.0
	40-49세	(25)	68.0	12.0	12.0	8.0
	50세 이상	(38)	47.4	23.7	21.1	7.9

[표3-37] 예술현장과의 연계를 활용한 실습 과목 운영 상의 어려움-종합순위(1+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예산 부족	예술현장의 협조 부족	네트워킹 상의 어려움	기타
전 체		(67)	80.6	67.2	41.8	10.4
소속	전임 교원(교수)	(45)	75.6	71.1	42.2	11.1
	비전임 교원(강사)	(22)	90.9	59.1	40.9	9.1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5)	77.8	68.9	42.2	11.1
	전문대학(2,3년제)	(4)	50.0	75.0	50.0	25.0
	예술특성화 대학	(16)	93.8	56.3	43.8	6.3
	사이버대학	(2)	100.0	100.0	0.0	0.0
설립 유형	국공립	(20)	80.0	70.0	50.0	0.0
	사립	(47)	80.9	66.0	38.3	14.9
전공	시각예술	(16)	87.5	62.5	37.5	12.5
	연극	(10)	70.0	60.0	50.0	20.0
	무용	(7)	57.1	71.4	57.1	14.3
	음악	(11)	81.8	54.5	54.5	9.1
	국악	(9)	88.9	77.8	33.3	0.0
	영상/미디어	(6)	100.0	83.3	16.7	0.0
	기타	(8)	75.0	75.0	37.5	12.5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9)	79.5	66.7	43.6	10.3
	충청/대전/세종	(4)	75.0	50.0	50.0	25.0
	경상/대구/부산/울산	(5)	80.0	80.0	20.0	20.0
	전라/광주/전주	(16)	81.3	68.8	43.8	6.3
	강원/제주	(3)	100.0	66.7	33.3	0.0
성별	남자	(32)	84.4	65.6	37.5	12.5
	여자	(35)	77.1	68.6	45.7	8.6
연령	21-24세	(1)	100.0	0.0	100.0	0.0
	30-39세	(3)	33.3	66.7	100.0	0.0
	40-49세	(25)	80.0	68.0	40.0	12.0
	50세 이상	(38)	84.2	68.4	36.8	10.5

3.2.5 고등예술교육 및 예술대학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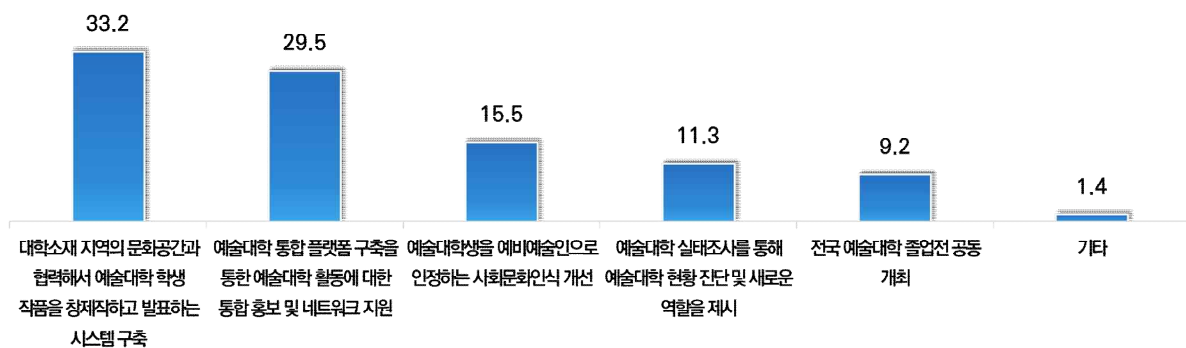
1) 예술대학이 문화예술계의 '현장'으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

조사 결과

- 예술대학이 문화예술계의 '현장'으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 물어본 결과, 대학소재 지역의 문화공간(공연장/전시장)과 협력해서 예술대학 학생 작품을 창·제작(프로덕션) 하고 발표하는 시스템 구축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대학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예술대학 활동에 대한 통합 홍보 및 네트워크 지원(29.5%), 예술대학생을 예비예술인으로 인정하는 사회문화인식 개선(15.5%), 예술대학 실태조사를 통해 예술대학 현황 진단 및 새로운 역할을 제시(11.3%), 전국 예술대학 졸업전 공동 개최(9.2%)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3-31] 예술대학이 문화예술계의 '현장'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대학소재 지역의 문화공간(공연장/전시장)과 협력해서 예술대학 학생 작품을 창·제작(프로덕션) 하고 발표하는 시스템 구축'(33.2%)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임교원(교수)(44.4%), 예술특성화 대학(35.9%), 사립(34.1%), 연극(42.6%), 서울/경기/인천(34.2%), 30대(56.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예술대학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예술대학 활동에 대한 통합 홍보 및 네트워크 지원'(29.5%)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원생(35.1%), 일반대학(4년제)(29.1%), 국공립(30.2%), 연극(34.0%), 충청/대전/세종(35.9%), 여자(31.4%), 25~29세(34.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3-38] 예술대학이 문화예술계의 '현장'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지역의 문화공간과 협력 예술대학 학생 작품을 창·제작 발표하는 시스템 구축	예술대학 통합 플랫폼 구축, 예술대학 활동에 대한 통합 홍보 및 네트워크지원	예술대학생을 예비예술인으로 인정하는 사회문화인식 개선	예술대학 실태조사를 통해 예술대학 현황 진단 및 새로운 역할을 제시	전국 예술대학 졸업전 공동 개최	기타
전 체		(567)	33.2	29.5	15.5	11.3	9.2	1.4
소속	학부 재학	(393)	31.0	30.5	16.8	9.2	11.5	1.0
	대학원 재학	(37)	35.1	35.1	10.8	13.5	2.7	2.7
	졸업생	(61)	34.4	31.1	14.8	13.1	4.9	1.6
	전임 교원(교수)	(45)	44.4	22.2	13.3	15.6	2.2	2.2
	비전임 교원(강사)	(22)	36.4	13.6	13.6	27.3	4.5	4.5
	기타	(9)	44.4	22.2	0.0	22.2	11.1	0.0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67)	32.3	29.1	15.8	10.7	10.7	1.3
	전문대학(2,3년제)	(26)	42.3	38.5	11.5	3.8	3.8	0.0
	예술특성화 대학	(64)	35.9	26.6	15.6	18.8	1.6	1.6
	사이버대학	(2)	0.0	50.0	0.0	50.0	0.0	0.0
	기타	(8)	37.5	37.5	12.5	0.0	0.0	12.5
설립 유형	국공립	(162)	30.9	30.2	16.7	12.3	9.3	0.6
	사립	(405)	34.1	29.1	15.1	10.9	9.1	1.7
전공	문학	(18)	38.9	27.8	22.2	5.6	5.6	0.0
	시각예술	(283)	30.4	29.7	14.8	11.7	12.0	1.4
	연극	(47)	42.6	34.0	10.6	10.6	2.1	0.0
	무용	(20)	45.0	25.0	25.0	5.0	0.0	0.0
	음악	(76)	32.9	27.6	21.1	7.9	7.9	2.6
	국악	(34)	26.5	23.5	8.8	26.5	14.7	0.0
	영상/미디어	(60)	36.7	31.7	15.0	6.7	6.7	3.3
	기타	(29)	34.5	31.0	13.8	17.2	3.4	0.0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92)	34.2	27.0	17.6	11.0	8.9	1.3
	충청/대전/세종	(103)	30.1	35.9	11.7	11.7	8.7	1.9
	경상/대구/부산/울산	(21)	42.9	28.6	9.5	9.5	4.8	4.8
	전라/광주/전주	(36)	33.3	33.3	5.6	16.7	11.1	0.0
	강원/제주	(15)	13.3	40.0	20.0	6.7	20.0	0.0
성별	남자	(106)	34.0	19.8	18.9	18.9	5.7	2.8
	여자	(458)	33.2	31.4	14.6	9.6	10.0	1.1
	기타	(3)	0.0	66.7	33.3	0.0	0.0	0.0
연령	20세 이하	(84)	33.3	27.4	15.5	9.5	14.3	0.0
	21-24세	(271)	29.2	32.1	17.7	8.5	11.8	0.7
	25-29세	(96)	29.2	34.4	13.5	14.6	5.2	3.1
	30-39세	(41)	56.1	14.6	9.8	12.2	2.4	4.9
	40-49세	(32)	34.4	25.0	12.5	21.9	6.3	0.0
	50세 이상	(43)	44.2	23.3	14.0	16.3	0.0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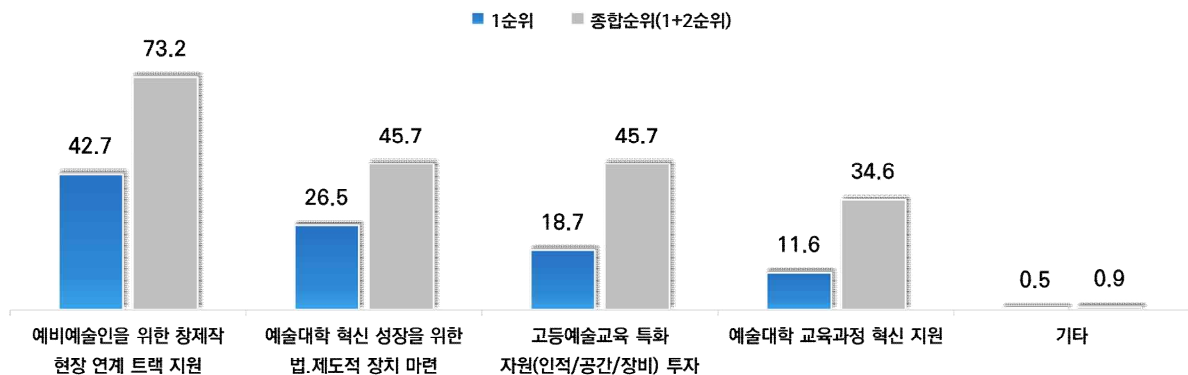
2) 예술대학 지원정책 중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

조사 결과

- 예술대학 지원정책 중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예비예술인을 위한 창·제작 현장 연계 트랙 지원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대학 혁신 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26.5%), 고등예술교육 특화 자원(인적/공간/장비)투자(18.7%), 예술대학 교육과정 혁신 지원(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1순위 기준)

[그림 3-32] 예술대학 지원정책 중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예비예술인을 위한 창·제작 현장 연계 트랙 지원’(42.7%)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졸업생(45.9%), 예술특성화 대학(43.8%), 국공립(46.9%), 연극(44.7%), 서울/경기/인천(43.1%), 여자(45.0%), 20세 이하(48.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예술대학 혁신 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26.5%)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원생(37.8%), 일반대학(4년제)(26.6%), 사립(26.7%), 국악(35.3%), 전라/광주/전주(47.2%), 여자(26.9%), 40대(37.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3-39] 예술대학 지원정책 중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1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예비예술인을 위한 창·제작 현장 연계 트랙 지원	예술대학 혁신 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고등예술교육 특화 자원 (인적/공간/장비) 투자	예술대학 교육과정 혁신 지원	기타
전 체		(567)	42.7	26.5	18.7	11.6	0.5
소속	학부 재학	(393)	45.0	23.9	20.4	10.4	0.3
	대학원 재학	(37)	37.8	37.8	13.5	10.8	0.0
	졸업생	(61)	45.9	26.2	13.1	14.8	0.0
	전임 교원(교수)	(45)	26.7	35.6	22.2	11.1	4.4
	비전임 교원(강사)	(22)	31.8	31.8	9.1	27.3	0.0
	기타	(9)	44.4	33.3	11.1	11.1	0.0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67)	42.4	26.6	19.5	11.3	0.2
	전문대학(2,3년제)	(26)	42.3	19.2	23.1	7.7	7.7
	예술특성화 대학	(64)	43.8	28.1	14.1	14.1	0.0
	사이버대학	(2)	50.0	0.0	0.0	50.0	0.0
	기타	(8)	50.0	37.5	0.0	12.5	0.0
설립 유형	국공립	(162)	46.9	25.9	16.0	11.1	0.0
	사립	(405)	41.0	26.7	19.8	11.9	0.7
전공	문학	(18)	50.0	38.9	0.0	11.1	0.0
	시각예술	(283)	43.5	25.4	19.1	12.0	0.0
	연극	(47)	44.7	21.3	23.4	8.5	2.1
	무용	(20)	45.0	40.0	10.0	5.0	0.0
	음악	(76)	39.5	22.4	21.1	17.1	0.0
	국악	(34)	32.4	35.3	11.8	17.6	2.9
	영상/미디어	(60)	43.3	30.0	21.7	3.3	1.7
	기타	(29)	44.8	20.7	20.7	13.8	0.0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92)	43.1	24.5	19.1	12.5	0.8
	충청/대전/세종	(103)	41.7	29.1	18.4	10.7	0.0
	경상/대구/부산/울산	(21)	42.9	19.0	28.6	9.5	0.0
	전라/광주/전주	(36)	33.3	47.2	11.1	8.3	0.0
	강원/제주	(15)	60.0	20.0	13.3	6.7	0.0
성별	남자	(106)	33.0	25.5	27.4	14.2	0.0
	여자	(458)	45.0	26.9	16.6	10.9	0.7
	기타	(3)	33.3	0.0	33.3	33.3	0.0
연령	20세 이하	(84)	48.8	15.5	22.6	11.9	1.2
	21-24세	(271)	43.5	27.3	19.9	9.2	0.0
	25-29세	(96)	43.8	25.0	15.6	15.6	0.0
	30-39세	(41)	43.9	26.8	14.6	12.2	2.4
	40-49세	(32)	21.9	37.5	15.6	25.0	0.0
	50세 이상	(43)	37.2	37.2	16.3	7.0	2.3

[표3-40] 예술대학 지원정책 중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종합순위(1+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예비예술인을 위한 창·제작 현장 연계 트랙 지원	예술대학 혁신 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고등예술교육 특화 자원 (인적/공간/장비) 투자	예술대학 교육과정 혁신 지원	기타
전 체		(567)	73.2	45.7	45.7	34.6	0.9
소속	학부 재학	(393)	73.8	45.0	46.8	33.8	0.5
	대학원 재학	(37)	67.6	51.4	51.4	29.7	0.0
	졸업생	(61)	78.7	50.8	39.3	29.5	1.6
	전임 교원(교수)	(45)	66.7	44.4	40.0	44.4	4.4
	비전임 교원(강사)	(22)	77.3	40.9	40.9	40.9	0.0
	기타	(9)	55.6	33.3	55.6	55.6	0.0
학제 유형	일반대학(4년제)	(467)	73.0	45.4	45.4	35.8	0.4
	전문대학(2,3년제)	(26)	80.8	42.3	57.7	11.5	7.7
	예술특성화 대학	(64)	68.8	50.0	43.8	35.9	1.6
	사이버대학	(2)	100.0	0.0	50.0	50.0	0.0
	기타	(8)	87.5	50.0	37.5	25.0	0.0
설립 유형	국공립	(162)	73.5	43.8	45.7	36.4	0.6
	사립	(405)	73.1	46.4	45.7	33.8	1.0
전공	문학	(18)	61.1	61.1	55.6	22.2	0.0
	시각예술	(283)	75.6	43.8	45.6	34.6	0.4
	연극	(47)	72.3	44.7	46.8	31.9	4.3
	무용	(20)	65.0	55.0	30.0	50.0	0.0
	음악	(76)	68.4	44.7	47.4	39.5	0.0
	국악	(34)	61.8	55.9	38.2	41.2	2.9
	영상/미디어	(60)	81.7	48.3	46.7	21.7	1.7
	기타	(29)	72.4	34.5	51.7	41.4	0.0
대학 소재 지역	서울/경기/인천	(392)	74.5	44.6	45.7	33.9	1.3
	충청/대전/세종	(103)	71.8	45.6	46.6	35.9	0.0
	경상/대구/부산/울산	(21)	71.4	33.3	61.9	33.3	0.0
	전라/광주/전주	(36)	63.9	63.9	33.3	38.9	0.0
	강원/제주	(15)	73.3	46.7	46.7	33.3	0.0
성별	남자	(106)	69.8	40.6	50.0	39.6	0.0
	여자	(458)	74.2	47.2	44.5	33.0	1.1
	기타	(3)	33.3	0.0	66.7	100.0	0.0
연령	20세 이하	(84)	71.4	41.7	46.4	39.3	1.2
	21-24세	(271)	75.6	44.6	48.3	31.0	0.4
	25-29세	(96)	75.0	51.0	38.5	35.4	0.0
	30-39세	(41)	65.9	51.2	46.3	31.7	4.9
	40-49세	(32)	59.4	43.8	43.8	53.1	0.0
	50세 이상	(43)	74.4	44.2	44.2	34.9	2.3

3) 예술대학 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조사 결과

- 예술대학 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물어본 결과, 현장과 연계된 수업 및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외 교수 및 커리큘럼 전문성 강화, 다양한 지원(시설, 창작비, 예술 관련 정보 공유 등), 예술에 대한 취업률 및 인식 변화,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 등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응답됨

[표3-41] 예술대학 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단위 : %]

구 분	사례수	%
현장과 연계된 수업 및 취업 지원	76	35.2
교수 및 커리큘럼 전문성 강화	36	16.7
다양한 지원 필요(시설, 창작비, 예술 관련 정보 공유 등)	33	15.3
예술에 대한 취업률 및 인식 변화	15	6.9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	13	6.0
예술 분야에 맞는 세분화 필요	9	4.2
예술분야 외 취업 지원 필요	7	3.2
인문학 및 철학 등 기본 소양 교육 필요	6	2.8
등록금 인하 필요	6	2.8
예술인의 제도적/법적 보호 필요	5	2.3
기타	10	4.6
전 체	216	100.0

〈개방형 응답 중 일부 발췌〉

“예술대학만이 가질 수 있는 커리큘럼과 프로젝트가 구축되면 독보적인 존재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예술대학 내부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안정된다면 예술대학과 학생들이 예술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예술대학은 학교별 특성없이千篇일률적인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 학교마다 학교의 특성을 살려 특성화된 교육목표 아래 세부적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다양한 예술대학이 운영되어야 한다.”

“지방 예술대학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정부의 예술대학 존속에 대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이러다가는 지방 문화예술의 미래가 없다.”

“학생들의 재정적인 역량에 따라서 학생 과제와 졸업작품에서도 빈부격차가 생긴다.”

“대학 졸업 전과 후 그 사이를 이어줄 시스템이 없다. 졸업 이후 예술가들은 사회에 툭 떨어져 나온다. 문화예술계열 청년인력의 사회진입을 위한 공공기관채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4. 종합 시사점

가. 예술대학 현황 및 교육환경 진단

- ♦ 예술대학 구성원들은 예술대학이 예술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이를 예술대학의 역할이라고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함
 - 예술대학의 예술인 성장 지원 역할 수행 정도에 대한 전체 응답은 3.58점(5점 평균) 수준으로 응답되었으며, 학생에 비해 졸업생과 전임/비전임 강사 계층의 부정응답 비율이 높음
 - 예술대학이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대학의 예술교육시설 투자 부족'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 예술대학 교육환경은 교육시설/기자재, 교과과정, 교원 항목에서 만족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창·제작 지원과 사회진출 항목에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7점 평균 기준 4점에서 5점 사이의 평이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역량과 의지를 가진 교수진이 가르치고 있다'는 항목이 5.10점(7점 평균)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작을 위한 정보와 지원금이 제공된다'는 항목이 3.43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예술 전공별로 의견에 차이가 있었으며, 향후 전공별 수요를 확인하고 지원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세분화 작업이 필요해 보임

나. 예술대학생의 창·제작 활동

- ♦ 예술대학생의 창·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과 연계된 프로덕션 시스템과 졸업작품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함
 - 전체 응답에서 '현장과 연계한 창·제작이 가능한 (프로덕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36.9%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재학/재직 중인 학교에 창·제작 지원기관을 운영중이라는 응답은 22%에 불과함. 예술대학 구성원의 수요를 반영한 창·제작 기관/시스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체 응답자 중 74.3%가 졸업 전시/공연을 예정하거나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대부분 전공에서 한 학기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50% 이상이 100만원 이상을 사용한다고 응답했음

다. 예술대학생의 성장경로별 사회진출 지원

- ♦ 예술대학생은 사회진출을 위해서는 전공과 연계되는 현장 실습 운영의 확대를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장실습이 학점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현장의 다변화와 실습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사됨
 - 예술대학생의 사회진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으로는 '전공과 연계되는 현장 실습 운영의 확대'를 선택한 응답이 40.7%로서 가장 높았으며, 이는 학점과 연계되어 현장실습이 운영되는 게 필요하다는 응답 76.9%와 연결됨

- ♦ 응답자 90% 이상이 졸업 이후 예술계열에 진로를 희망하거나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문화예술 매개인력 양성과정 개설에 대해서 87.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다양한 교과과정에 대한 수요를 확인함

라. 예술대학 교원 지원

- ♦ 예술대학 활성화를 위해 교원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요소로서 대학 내 예술 특화 기관(연구소/창작센터) 설립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개별 전공 및 교원 예술작업 등 예산 지원을 요청함
- 예술대학 교원은 교내 협업할 수 있는 예술 특화 기관을 원하고 있으며, 예술대학의 다양성 및 여건이 다른 데에 따른 타 대학과의 협업작업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것으로 확인됨
- 교육환경 만족도 등에서도 예술대학 구성원 중에 '비전임교원'의 불만족 응답이 높았음

마. 고등예술교육 및 예술대학의 미래

- ♦ 예술대학 구성원들은 전반적으로 미래 고등예술교육을 위해서 창·제작 현장과 연계를 위한 지원이 우선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예술대학 지원정책 중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에 대해 '예비예술인을 위한 창·제작 현장 연계 트랙 지원'이 1순위 응답(42.7%)과 1+2순위 응답(73.2%) 모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계층별 응답 역시 모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예술대학이 문화예술계 현장으로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학소재 지역의 문화공간과 협력해서 예술대학 학생 작품을 창·제작하고 발표하는 시스템 구축'이 33.2%, 예술대학 지원정책 중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으로 '예비예술인을 위한 창·제작 현장 연계 트랙 지원'이 42.7%, 기타 응답에서 '현장과 연계된 수업 및 취업 지원'으로 35.2%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이 나타남
- ♦ 기타 의견으로 등록금 인하 및 실습비 등 재정적 지원, 지방대학의 위기 방안 마련, 대학 졸업 전후를 연결하는 시스템 마련, 초중고대학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문화예술교육정책 필요 등이 있음

IV. 예술대학 활성화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 1. 예술대학 현황 및 예술대학 구성원 의견 조사 종합 시사점**
- 2. 예술대학 활성화 기본방향**
- 3. 예술대학 X 예비예술인 성장 지원사업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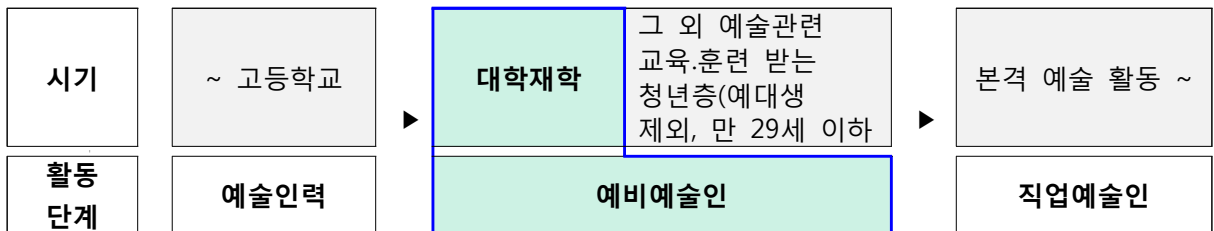
1. 예술대학 현황 및 예술대학 구성원 의견 조사 종합 시사점

내용	시사점
예술대학 현황 및 고등예술교육 관련 제도·정책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제외하고, 85% 이상의 예술대학이 일반대학에 소속되어 있어,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의 지원과 관리를 받고 있음 예술계열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전체계열에서 10년간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현상으로 보임 고등예술교육은 학교예술교육 대상에서 고등예술교육이 제외되어 있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사업 중 부분적으로 참여 가능한 점 등 고등예술교육 지원 제도 및 정책에 있어 한계점이 확인됨 타계열은 관련 정부 부처에서 인재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고등교육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예술계열도 예비예술인 양성을 위한 법률 및 기본계획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심층인터뷰(F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예술인양성을 위한 지원 방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예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필요 - 문화예술계 현장과 학생들을 연결하는 예술대학의 역할 수행을 지원 - 지역의 특성과 예술대학 여건, 장르를 고려한 지원정책 설계 필요 현장과 연계되는 예술대학 X 예비예술인 지원사업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대학 맞춤 산학협력, 인턴십, 캡스톤 디자인 설계 필요 -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경로를 알려주는 문화예술매개 인력 양성과정 - 예술대학 공유대학 체계 구축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하는 방식 -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와 예술대학을 연계해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방식 - 예술대학 졸업작품 지원 제도 고등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대학 전담기관이 개설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현재 국책사업에서 집행방법 및 평가지표가 예술계열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음.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예술대학 맞춤 평가지표체계가 필요함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대학 교육환경은 교육시설/기자재, 교과과정, 교원 항목에서 만족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창·제작 지원과 사회진출 항목에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예술대학생의 창·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과 연계된 프로덕션 시스템과 졸업작품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함 예술대학생은 사회진출을 위해서는 전공과 연계되는 현장 실습 운영의 확대를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장실습이 학점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현장의 다변화와 실습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사됨 예술대학 활성화를 위해 교원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요소로서 대학 내 예술 특화 기관(연구소/창작센터) 설립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개별 전공 및 교원 예술작업 등 예산 지원을 요청함 예술대학 구성원들은 전반적으로 미래 고등예술교육을 위해서 창·제작 현장과 연계를 위한 지원이 우선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2. 예술대학 활성화 기본방향

- 전문적인 예술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예비예술인 이행 과정이 필요함. 청년예술인 대상 지원사업은 다양한 편이나, 예술대학 재학생을 위한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획득할 기회는 부족함. 예술전공에 특화된 예술교육환경 개선과 혁신적인 교육체계 도입이 필요하며 예술대학과 예술현장의 경계 완화 및 고등예술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술대학 체질 개선이 필요함

[표 4-1] 예비예술인 이행 과정 체계



가. 예술대학생(예비예술인)의 역량 향상(창/제작 및 현장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함

- 창/제작 트랙은 교육 여건/수준 향상을 위해 예술대학과 창·제작현장(전문 공연장, 미술관 등)과의 연계, 협력이 중요함
- 창·제작 협력 수업 과정과 더불어, ‘졸업 작품 및 졸업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은 예술인으로서의 현장 진출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
- 문화예술매개 트랙은 현장 예술기관의 인턴십(프로젝트형)을 통해 졸업 후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진출 경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예술대학생들 중 활성화 정책에 혜택을 받지 못한 대학에 소속된 예술대학생들의 불이익에 대해 고려해야 함
 - ① 지원 대상 대학이 지원 플랫폼이 되어 소속 학생 뿐 아니라 오픈 트랙을 운영
 - ② 학생 창·제작 지원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플랫폼을 통해 통합 지원하는 방식 또한 고려할 수 있음

나. 예술대학 차원에서 대학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전략/장치가 병행되어야 함

- 많은 예술대학 내 교원들은 대학 내에서 자체 혁신을 일으키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예술대학 지원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대학 당국 내에서 예술교육 혁신(대학 간 연계/대외협력, 커리큘럼, 교원, 공간/장비 등)에 대한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지원 정책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음
- 예술대학 지원 정책이 소수의 예술대학에 집중되어, 예술대학 저변의 향상을 저해하게 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음. 예술대학 정책 지원 대학 선정 과정에서 예술대학 내부의 자체 혁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및 인센티브 전략이 필요함

2.3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는 예술대학 지원 정책에 일시적/단속적 지원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장기적 과제로 추진되어야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 예술대학 지원 정책은 예술대학 재학생들을 '예비예술인'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되어야 하는 정책임
- ♦ 일시적/단속적으로 지원할 경우, 해당 지원 정책의 효과를 본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예술예술인의 성장 지원 정책은 일시적/단속적일 수 없으므로 지속적/장기적 과제로 추진되어야 함. 이를 위한 제도와 운영체계의 마련이 필수적임

3. 예술대학X예비예술인 성장 지원사업 구상

3.1 예술대학 혁신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3.1.1 사업 개요

- ◆ 사업명 : 예술대학 혁신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 ◆ 사업목적
 - 예술대학 혁신성장을 위한 법·제도 장치 마련을 통해 문화예술 및 교육 정책 전반에서 예술대학과 예술대학생/예비예술인을 주요한 정책 대상으로 재정립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예술대학 학생들을 문화예술분야 발전을 위한 핵심 역량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예비예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함
- ◆ 지원내용
 -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예술계열지원 특별법(가제) 제정
 - 예술대학 실태조사 정례화
-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대학협의회 등
- ◆ 지원규모 : 총 3억원 (5개년)

3.1.2 사업 배경

- ◆ 예술대학 문제를 개선하고 고등예술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개별대학/개별전공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법제도 제정이 필요하다고 조사됨. 문화예술현장과 연결된 예비예술인을 양성하고, 고등예술교육의 지속적 혁신 및 성장을 위한 상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이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요청됨
- 특별법의 지원대상인 예술대학생들이 청년예술인을 위한 정책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고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청년예술인과 대학생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사업에서는 배제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청년예술인 정책과의 차별점과 연계지점 등을 고려한 고등예술계열 지원 제도의 설계가 필요함

3.1.3 사업 내용

1)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예술계열지원 특별법 (가제) 제정

- ◆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예술계열지원 특별법」은 예술대학 진흥을 위한 최초의 법률로서 고등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가 되며, 시행령에는 고등예술교육기관과 예비예술인의 범위, 예비예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예비예술인의 활용 촉진 및 지위 개선, 예술계열 인력의 취업 지원 및 창업 활성화, 산학연 상호간 협력 및 인력 교류 확대, 예술대학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포함됨
- ◆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예비예술인을 육성하여 문화예술계 인력으로 활용을 촉진하고 지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 문화예술 현장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함

[표 4-2] 이공계 특별법 / 서울특별시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법률 제15238호, 2004.3.22. 제정 - 시행 2017.12.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 제3장 이공계인력 육성 및 자질 향상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및 지위 개선 이공계열은 이공계 기피의 사회현상을 해소하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2004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이공계 지원법)제정하였고, 이후 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적·정책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제1차-제3차에 걸친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지원계획 등의 정책을 만들며 이공계열 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마련함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7941호, 2021.3.25. 제정 - 시행 2021.3.25.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지원사업 제14조 실태조사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이 미흡한 실정인이에 서울특별시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청년 문화예술 창작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 마련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를 정착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	--

2) 예술대학 실태조사 정례화

- 전국 예술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환경을 파악하여 고등예술교육 기초 통계를 확보하고, 학생들의 진로 추적을 통한 경력경로를 확인하여 예비예술인 육성과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예술대학 실태조사의 대상인 예술대학 학생들이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과 연동되는 점을 고려해 항목을 구성함
- 예술대학 구성원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일반대학/전문대학/예술특성화대학 간 학교 여건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지원사업 설계에 반영함

[표 4-3] 실태조사 관련 참고사례

◆ 교육부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기초 통계를 확보하고, 관련 정책·전략 수립을 위해 2014년도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가 추진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각 단위학교의 협조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됨 ◆ 대학정보공시제도 - 교육부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정보공시제도를 통해 대학 현황을 보고하는 의무가 있으며, 현재 예술대학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자료는 대학알리미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음

◆ 예술인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술인 복지법에 의거해 「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예술인 대상으로 한 가장 광범위한 조사로서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해 파악하여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둬. 조사대상은 14개 분야(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의 예술인으로서 전국 17개 시도를 조사 지역으로 함. 2021년 부산시는 예비예술인 실태조사를 대상으로 추가하여 진행함

◆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실태조사

- 서울특별시는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예술대 예술대학 실태조사(안) 제시

항목	내용	
조사 대상	조사 대상 : 전국 예술대학 구성원 - 교원 :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 학생 : 재학생, 졸업생 (졸업한 지 3년 이내) - 기타 : 행정 교원 등	
조사 내용	조사 항목	조사 목적
	교육환경 만족도	예술대학 교육환경 만족도, 교과과정 운영 실태 등 학교 현황 파악
	전공	예술 전공별 현황을 조사하여 전공별 지원정책 수립에 참고
	창·제작 활동	예술대학 교원 및 학생들의 예술활동 조사, 현장 연계 지원정책 수립에 참고
	졸업 및 진로 지원	예술대학 학생들의 졸업 및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과정을 조사하여 예비예술인으로서 사회진출 지원방안 수립에 참고
	고등예술교육 정책평가 및 제언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예술교육 및 예비예술인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3.1.4 예산 편성

사업명	추진연도 예산액(백만원)					비고
	1개년	2개년	3개년	4개년	5개년	
1. 고등예술교육 특별법 연구	50	50				
2. 예술대학 실태조사		100			100	3년주기
합계	300					

3.1.5 추진 계획

- ◆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예술계열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 추진
- ◆ 예술대학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문회의, 공청회 진행
- ◆ 문화체육관광부의 고등예술교육 실태조사를 통한 전국 예술대학 현황 파악 및 예비예술인 수요 확인을 3년 주기로 실행함
-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교육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토론 채널을 정례화
- ◆ 특별법 입법절차 진행

내용	0개년		1개년				2개년				3개년				4개년				5개년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고등예술교육 지원법 연구																						
- 고등예술교육 지원법 기초 연구																						
- 입법 제정을 위한 공론장 진행																						
- 입법																						
- 고등예술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																						
2. 예술대학 실태조사																						
- 예술대학 실태조사 계획 수립																						
- 교육부, 관계기관 협조 요청																						
- 예술대학 실태조사 기간																						
- 조사 분석 및 결과 발표																						

3.2 예술대학(예비예술인) 창·제작 현장 연계 지원

3.2.1 사업 개요

- ◆ 사업명 : 예술대학(예비예술인) 창·제작 현장 연계 지원 사업
- ◆ 사업목적
 - 예비예술인의 현장과의 접속 및 연결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술대학 내 예술 제작-홍보-유통으로 이어지는 프로덕션 기반 랩을 구축하여 예술대학의 창·제작 환경을 조성함
 - 대학 내 지원 뿐 아니라 대학 소재 지역의 문화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부의 훌륭한 창·제작 시스템을 경험해 볼 기회를 제공함
 - 예술대학의 졸업작품은 예비예술인으로서 예술현장 진출에 중요한 포트폴리오로서, 졸업작품의 완성도를 높여 예술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예술현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함
- ◆ 지원내용
 - 현장 연계 창·제작(프로덕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 예술대학(예비예술인) 졸업작품 제작 및 활동 지원
- ◆ 지원대상 : 전국 예술대학
-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플랫폼예술대학 등
- ◆ 지원규모 : 총 500 억 원 (5개년)

3.2.2 사업 배경


- ◆ 예술대학이 예비예술인들의 성장 및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기관이자 한국 문화예술계의 중요한 현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현장을 연결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다양한 경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사됨
-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예술대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중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으로 예비예술인을 위한 창·제작 현장 연계 트랙 지원이 가장 높은 응답으로 확인됨
- ◆ 예술대학 졸업작품은 예술대학 활동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창·제작 과정이자 사회 진출을 위한 중요한 포트폴리오임. 앞으로 예술대학 졸업전은 예비예술인을 발굴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 현장으로서 인식 전환이 필요함
- 예술대학에서 졸업작품은 졸업 필수요건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으며, 본 연구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졸업작품 제작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함

3.2.3 사업 내용

1) 현장 연계 창·제작(프로덕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 ◆ 각 예술 전공의 학습과정과 창·제작 활동의 기획(Pre Production)부터 제작 (Production), 그 과정에서 생산된 창작물을 예술시장에 홍보하고 유통까지 진행하는 포스트 프로덕션(Post Production)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기술지원이 가능한 공간 및 시스템 구축과 운영 지원

[표 4-4] 국내 프로덕션 전담 기관 사례 - 한예중 공연기획실 제도

<p>한국예술종합학교는 연극원이 보유한 스튜디오 극장의 관리와 함께 학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실습 활동(공연실습, 실기실습, 졸업 공연 등)에 대한 제작 프로세스, 무대계획 등에 대한 체크, 실행에 따라 관리 감독하는 전문적인 프로듀서(PD)와 테크니컬디렉터(TD)로 채용하고, 학생들의 창·제작을 지원하는 공연기획실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프로젝트 별로 임시로 구성되는 프로덕션과 달리 체계적인 지원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짐</p>	
--	---

- 융복합적인 실험과 신기술이 활용된 미래 예술을 제작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스튜디오 조성
관련 프로덕션 기술 개발 등 혁신적인 창작환경을 구축 운영 지원
- 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외부 연구자, 기획자, 교육가 등이 프로덕션 랩에 상주하며, 예술대학 교과과정에서 다학제적인 예술과 동시대 예술을 경험해볼 수 있음

[표 4-5] 예술대학 프로덕션 플랫폼 사례 - 줄리어드 라이브와 서울예대 컬처허브

<p>Juilliard LIVE ▶ 모두 시청</p> <p>Juilliard LIVE is a new streaming initiative offering student performances from all three divisions. With its mix of livestreamed and on-demand content, Juilliard LIVE has expanded student...</p>  <p>미국의 줄리어드 스쿨(The Juilliard School)은 2021년 4월 무용, 연극, 음악 부분의 학생 공연을 전 세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스트리밍 이니셔티브인 줄리어드 라이브(Juilliard Live)를 출시함 줄리어드에서는 연간 700개 이상의 학생 공연을 제작되고 있으며,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학생들에게는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전세계 음악애호가에게는 양질의 예술대학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게 함</p>	 <p>서울예술대학교는 세계 거점 도시(미국 뉴욕과 LA, 이탈리아, 인도네시아)에 원격버추얼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서울예술대학교와 연결해서 전세계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프로덕션 랩 컬처 허브 (Culture Hub)을 2009년부터 운영 중 컬처허브를 통해 창·제작된 새로운 콘텐츠의 온·오프라인 유통과 국제적 교육, 창작교류를 진행하고 있음</p>
--	--

- 프로덕션 기반 교과과정 모형 개발 및 적용, 예술대학 프로덕션 시스템을 통해 예비예술인의 작품 창·제작을 지원

[표 4-6] 예술대학 프로덕션 작품 사례 - MIT 오픈 다큐멘터리 랩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

	
<p>MIT 오픈 다큐멘터리 랩(MIT Open Documentary Lab)은 미디어 혁신과 개방적이고 접근가능한 정보에 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러, 기술자 및 학자 등이 모여 협업, 대화형, 몰입형 스토리텔링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다큐멘터리 형식과 잠재력을 실험하는 MIT 산하 프로덕션 랩 다양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수업과정에서 진행하고, 외부 연구자, 예술가를 랩의 연구원으로 초빙하여 완성도 있는 작품을 창·제작하고 있음</p>	<p>융합예술센터는 과학 기술과 문화 예술, 산업과 교육의 융합을 목표로 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창·제작 연구소로 국내외 우수 기업과 대학, 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실감 미디어, 첨단 의료와 인공지능 콘텐츠 분야의 창작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으로 제작한 국내 최초 가상현실 비대면 융복합 실감 미디어 공연 <허수아비 VRC>을 제작하여 전세계에 선보임</p>

- **지원사업 예시**
 - 졸업작품 창·제작 지원을 위한 플랫폼 대학(연 10개 내외) 선정, 연 5억 이내 3개년 지원 (3년 주기 지원)


지원항목	내용	지원규모
현장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작품의 제작-홍보-유통이 모두 가능한 프로덕션 랩 설립을 위한 인력 및 운영, 시설 인프라 지원• 프로덕션 기반 교과과정 모형 개발 및 적용, 예술대학 프로덕션 시스템을 통해 예비예술인의 작품 창·제작을 지원	연간 5억 이내 총 250억원 (5개년)

2) 예술대학(예비예술인) 졸업작품 제작 및 활동 지원

- 예술대학(예비예술인) 졸업작품 지원을 통해 사회진출을 돕고자 ▷졸업작품 창작금 지원, ▷졸업작품 쇼케이스 지원, ▷졸업작품 후속 지원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함
- 지원예시
 - 졸업작품 창·제작 지원을 위한 플랫폼 대학(연 10개 내외) 선정, 연 5억 이내 지원

항목 및 조건	내용	지원규모
졸업작품 창작금 지원	졸업작품 창·제작 지원 : 개인/단체로 지원 가능하며 사업계획서에 따라 차등 지원	플랫폼학교 당 100명 내외, 1인당 약 200 만원 지원
졸업작품 쇼케이스 지원	졸업작품 쇼케이스 지원 : 공간대관, 쇼케이스 기술 및 홍보 지원	플랫폼 학교당 100 백만원 지원
졸업작품 후속지원	졸업작품의 고도화 및 심화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예비예술인의 예술 현장 진입을 지원 : 졸업한 지 3년 이내 졸업생 대상, 개인/단체로 지원 가능하며 사업계획서에 따라 차등지원	플랫폼학교 당 50명 내외, 1인당 약 200 만원 지원
운영비	졸업작품 제작 및 활동 지원을 위한 플랫폼 학교 운영비	플랫폼 학교당 100 백만원 지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예술대학에 선정되면 교내와 교내외 지원 비율을 반드시 수행해야 함 - 자교 학생 50 % / 자교 외 예비예술인 지원 50% • 자교외 예비예술인의 경우 타교학생 및 정부 창작지원금 수혜 경력이 없고, 졸업한 지 3년 이내의 졸업작품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예술대학 졸업생 등을 지원 	

[표4-7] 졸업전시 지원 사례 - 런던 그래즈 나우

<p>런던 그래즈 나우(London Grads Now)는 7개 런던의 예술대학(골드스미스 대학교, 캄버웰예술대학, 첼시예술대학, 왕립예술학교, 킹스턴대학교, 센트럴 세인트마틴스, 슬레이드미술대학)이 모여 진행하는 졸업전시전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전례없이 졸업전시가 취소된 것을 대응하기 위해 시작되었음</p> <p>런던을 대표하고 오늘날 현대미술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관 중 하나인 사치갤러리에서 전시가 열림</p> <p>전시회를 통해 차세대 신진작가들을 홍보하고, 업계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이 발생하며 문화예술계의 중요한 현장으로 기획되어 진행됨</p>	
--	---

3.2.4 예산 편성

사업명	추진연도 예산액(백만원)					비고
	1개년	2개년	3개년	4개년	5개년	
1. 현장 연계 창·제작(프로덕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 연간 5억원, 10개 학교 선정, 총 50억원 (5개년)						
- 프로덕션 랩 설립 및 운영 지원	5,000	5,000	5,000	5,000	5,000	
2. 예술대학(예비예술인) 졸업작품 제작 및 활동 지원 : 연간 5억원, 10개 학교 선정, 총 50억원 (5개년)						
- 졸업작품 창작 지원 등	5,000	5,000	5,000	5,000	5,000	
합계	50,000 (5개년, 연 10,000백만원)					

3.2.5 추진 계획

- 현장 연계 창·제작(프로덕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은 3개년 지원, 졸업작품 및 졸업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1개년 지원

내용	0개년		1개년				2개년				3개년				4개년				5개년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현장 연계 창·제작(프로덕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 사업설명회 개최																						
- 지원사업 통합 공모 진행																						
- 사업 진행																						
- 쇼케이스																						
2. 예술대학(예비예술인) 졸업작품 제작 및 활동 지원																						
- 지원사업 통합 공모 진행																						
- 사업 진행																						

3.3 지역사회 현장 연계 지원

3.3.1 사업 개요

- ◆ **사업명:** 지역사회 현장 연계 지원
- ◆ **사업목적**
 - 지역의 문화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예술대학/예비예술인과 지역 문화예술 현장과의 연결 기회를 확대
 - 문화예술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 매개 인력 양성과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
- ◆ **지원내용**
 - 지역사회 연계 캠퍼스 예술인턴십 지원
 - 문화예술분야 매개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지원대상:** 전국 예술대학
- ◆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력개발원 등
- ◆ **지원규모:** 총 75억 원 (5개년)

3.3.2 사업 배경

- ◆ 기존 지역 문화기관에서 진행되는 예술대학 인턴십 프로그램은 인턴십 기간 자체가 길지 않아서 그 기간 동안 지역 문화기관에서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관련 기획이나 행정, 홍보를 실제 현장을 알려주기에는 여러모로 힘들었고, 기관과 학생 양쪽의 만족도가 높지 않아 개선을 요구받아 왔음
- ◆ 예술대학의 예술매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 전/후에 바로 매개 인력으로 투입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인력/시간 등의 낭비가 야기됨. 이를 외부 문화예술기관이 운영하는 우수한 문화예술 매개인력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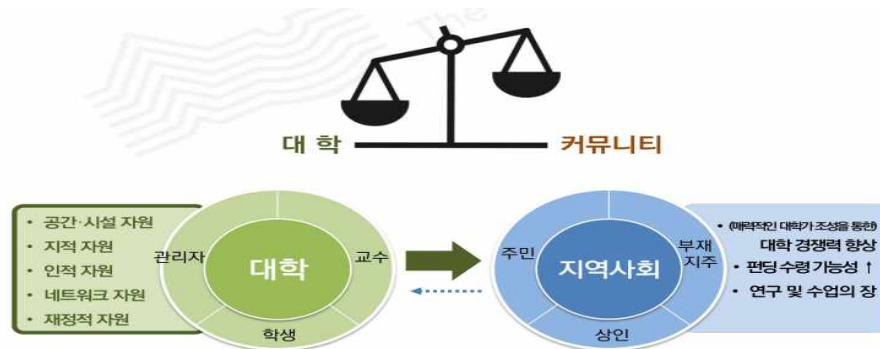
3.3.3 사업 내용

1) 지역사회 연계 캠퍼스 예술인턴십 지원

- ◆ 대학은 해당 지역사회의 여타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간 및 인적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술대학생들을 지역 문화기관에 파견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학의 시설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안에서 대학생들이 인턴십을 할 수 있게 기획함
- ◆ 대학이 기존 시설을 적절하게 변경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인프라에 대한 지원 및 대학 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 ◆ 캠퍼스 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1차적으로 양성된 학생들을 지역 문화예술기관에서 2차 인턴십 혹은 보다 업그레이드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스카우트해 가는 방식으로 설계함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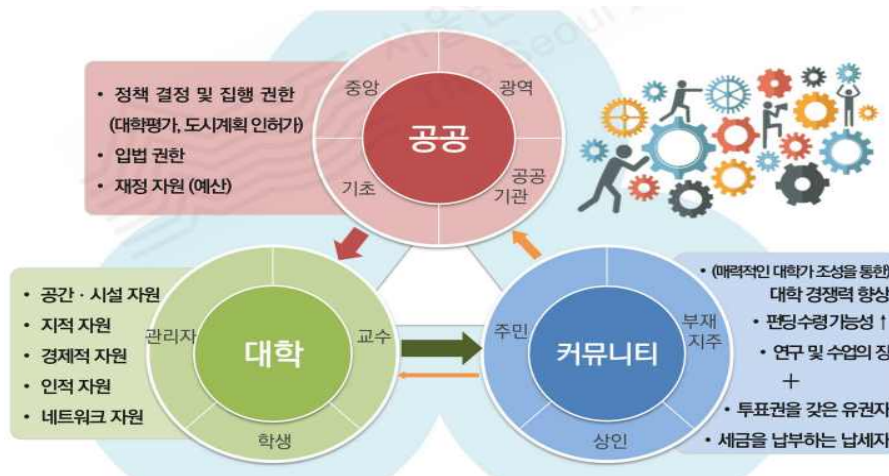
11) 서울연구원 (2015), <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29쪽

[그림 4-1] 대학과 커뮤니티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자원 및 이점



- ◆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함. 대학이 기존 시설을 적절하게 변경하여 지역사회와 구체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인프라에 대한 지원 및 대학 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그림 4-2] 공공의 적절한 지원을 통한 상생적 대학-지역사회 협력 (출처: 위 보고서, 30쪽)



[표 4-8] 대학-지역 협업 실태 예시 - 일본 요코하마 시립대

*** 일본 요코하마 시립대의 경우¹²⁾**

- 요코하마 시립대의 경우처럼 국내 예술대학 내의 공연장이나 아뜰리에, 연습실 등을 개방하여 지역 문화기관과의 협력 하에 기획, 운영, 홍보를 진행할 경우 지역 기관과의 연계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졸업 후 지역사회의 예술 인력으로 자리잡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지역의 이슈, 예를 들어 독거 노인이나 은둔형 외톨이 등의 현실적인 이슈를 해결해 나가거나 ‘문화도시’ 등 현재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 재생 이슈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본 보고서의 3.5 캡스톤 프로그램과의 연계) 지역밀착도도 높아지고 밀착 속도도 빨라질 것임

시설	내용
도서관	가나자와현에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가능. 열람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민이용 제도'에 등록된 사람(500엔/1년)에 한해 대출서비스를 제공
다목적 홀	50명 수용이 가능한 다목적 홀을 대학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시민들의 동아리 그룹 활동 등으로 이용
수영장	가나자와 핫케이 캠퍼스 종합체육관 내 수영장 개방. 일요일 및 휴일(연말:연시:대체 휴일)에 한해 중학생 이상의 요코하마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가능(이용금액: 어른 400엔/회, 중학생 200엔/회)
츠루미(鶴見) 캠퍼스	매년 9월경 이화학 연구소 요코하마 캠퍼스를 개방하여 연구자에 의한 강의, 최첨단 연구지원시설 견학, 어린이를 위한 실험 교실, 세미나, 비디오 상영 등을 실시
키하라(木原) 생물학 연구소	7월 하순 토요일에 연령 상관없이 연구소 일일공개로 진행. 연구실 소개, 연구성과 소개, 시설견학 등을 실시

- 다음의 [표4-9]에서 볼 수 있다시피 타 분야에서의 지역사회 연계 활동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예술대학의 현장 연계 역시 위의 도표처럼 다양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지원은 크게 세 가지, 곧 캠퍼스 내 지역연계 예술사업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으로 나눌 수 있음

[표 4-9] 대학-지역사회 협업활동의 유형화 (출처: 위 보고서 119p)

1단계: 대학이 가진 자원별 분류	2단계: 세분화	유형
	공간·시설 자원을 활용하는 협력	A
지식·인적 자원을 활용 하는 협력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교육 수요자를 기존의 학생에서 지역민들로 확장)	B1
	지역사회 이슈에 관한 연구 또는 프로젝트나, 지역사회에 관한 수업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 및 교육)	B2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	B3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는 협력	C

2) 문화예술분야 매개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예술대학 자체적으로 매개 인력 양성 과정을 당장 실행하기 쉽지 않기에, 학교 외 문화예술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수한 문화예술분야 매개 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수업에 도입함. 특히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 매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효율화를 높임
- 기존 문화예술기관의 온라인강의는 무료이지만, 예술대학생의 참여도는 저조한 편. 정규 교육 과

정에 도입하여 학점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지역 문화재단의 프로그램에 예술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여, 예비예술인을 위한 매개인력양성과정을 운영함

[표 4-10] 지역문화재단 예술대학생 지원사업 사례 - 서울문화재단 도시문화 LAB

※서울문화재단, 도시문화L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대학생·청년예술인이 다변화된 문화예술 현장에 든든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운영기관'을 만나 관계망을 형성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 운영기관은 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 예술인을 만나고 서로 연대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 다변화된 예술 현장 간 교류와, 도시·사회 연계 예술 활동의 지평이 확대될 수 있도록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교육 커리큘럼 설계 : 기관의 노하우가 축적된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 과정 설계 - [2단계] 참여 청년 예술인 대상 공모 : 운영기관에서 직접 해당 영역에 관심 있는 청년 예술인 공모 - [3단계] 교육 과정 진행 및 프로젝트 기획·실행 지원 • 지원내용 		
	교육 LAB 운영기관	청년예술인
지원대상	5~8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세 이하 청년예술인 및 기획자 (예술대학생 포함) - 1개 기관 당 10명
지원내용	1개 기관 당 4,000만 원 지원 - LAB 운영기관 지원금 내에는 청년예술인의 ①월별 교육 참여 활동비 ②프로젝트 실행비 운영기관의 ③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포함 - 운영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내, 교육 커리큘럼 제작비(R&D)편성 가능 (1,000만 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예술인 1인당 월 50만원 교육 참여 활동비 지원 (2개월) - 청년예술인 1인당 100만원 규모의 협업 프로젝트 지원 (각 랩 운영단체에서 공동 기획·집행)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교육 플랫폼 <문화예술, 내일>¹³⁾에는 ‘문화예술전문가 코스’, ‘무대예술아카데미’, ‘영아티스트랩’이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의 무료 온라인 교육 강좌가 탑재되어 있음
- 이 중 ‘문화예술전문가 코스’에는 예비예술인들을 위한 STEP 1트랙이 있는데 이 트랙 과정들은 예술대학의 학생들이 예술 현장으로 나오기 위해 필요한 기초 소양 및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STEP 2에는 문화예술경영/행정/기획 강의가, STEP 3과 4에는 각각 해당 분야 경력 8년 이상 및 15년 이상 경력자들에게 필요한 강의를 탑재되어 있음

13)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s://hrd.arko.or.kr/common/greeting.do>

[그림 4-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내일 온라인 교육 강좌



- 예술매개 블렌디드 과정 지원사업은 위와 같은 예술기관에서 기제작한 온라인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예술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설계할 경우 해당강의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강의 담당자는 1)활용하려는 강의를 미리 수강하고 2)그 강의를 활용한 적절한 방식의 온/오프라인 강의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며 3)강의를 마친 뒤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됨
- 이러한 방식으로 과정을 설계할 경우 지역 간 격차 없는 매개인력 육성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음
- 지원사업 예시

예술매개 블렌디드 강의 제작지원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예술매개 블렌디드 과정 운영 교·강사	- 해당교·강사는 ①본 사업 주관 기관에서 지정한 아르고,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예술기관에서 제공하는 매개 관련 온라인강좌를 미리 수강하고 ②해당강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강의계획서를 제출 ③강의를 마친 뒤 결과보고서 제출	총 지원 강의수 500만원 * 200개 = 10억

3.3.4 예산 편성

사업명	추진연도 예산액(백만원)					비고
	1개년	2개년	3개년	4개년	5개년	
1. 지역사회 연계 캠퍼스 예술 인턴십 지원						
- 연간 1억, 5개 학교 선정, 총 25억원 (5개년)						
- 지역연계 캠퍼스 예술 인턴십을 위한 인프라 구축, 운영비, 인건비	500	500	500	500	500	
2. 예술매개 블렌디드 과정 지원						
- 연간 10억원, 100개 강의 선정, 총 50억원 (5개년)						
- 예술매개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강의 제작	1,000	1,000	1,000	1,000	1,000	
합계	7,500(5개년, 연 15억)					

3.3.5 추진 계획

- ♦ 사업설명회 개최
- ♦ 공모 진행
- ♦ 사업 진행 및 성과공유

내용	0개년		1개년				2개년				3개년				4개년				5개년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지역사회 연계 캠퍼스 예술인턴십 지원																						
- 사업설명회 개최																						
- 지원사업 통합 공모 진행																						
- 사업 진행																						
- 성과 공유																						
2. 문화예술분야 매개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설명회 개최																						
- 지원사업 통합 공모 진행																						
- 사업 진행																						
- 성과 공유																						

3.4 고등예술교육 특화 자원(인적/공간/장비) 지속적 투자 협력

3.4.1 사업 개요

- ◆ 사업명 : 예술대학 연계 창·제작 인프라 협력 지원 사업
- ◆ 사업목적
 - 예술대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예술대학 수업과 창·제작이 원활하게 진행 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함
 - 예술대학 특화 시설을 지원하여 개별 대학의 자원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현장과 연계된 예술대학 교육 활성화하고자 함
- ◆ 지원내용
 - [매칭형] 고등예술교육을 위한 특화 자원 시설 개선 지원
 - 예비예술인을 위한 특화 자원 공유
- ◆ 지원대상 : 전국 예술대학, 예술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문화예술단체 등
- ◆ 주관기관 : 예술대학,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기관 등
- ◆ 지원규모 : 총 50억 원 (5개년)

3.4.2 사업 배경

- ◆ 예술대학은 실기 교육과 연습 그리고 발표가 교육과정에서 중요하며 수업공간과 공연장/전시장이 수업과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특징을 가짐
- ◆ 본 연구 설문조사에 따르면 높은 등록금 대비 예술대학 교육환경이 열악한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왔으며, 예술대학 내에서 원활한 수업과 창·제작 활동을 위해서 기본적인 인프라 개선과 장비 지원이 요구됨

3.4.3 사업 내용

1) [매칭형] 고등예술교육을 위한 특화 시설 개선 지원

- ◆ 예술대학 수업과 창·제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 자원에 대한 투자 지원
 - 강의실, 연습실, 실기실, 탈의실 등 기본 교육시설 환경 개선 및 추가 설치 지원
 - 교내 레지던시 공간, 온라인 영상 장비를 갖춘 미디어룸, 학생 작품 온라인 쇼케이스 플랫폼 등 특화 예술교육 시설 설치 지원
 - 예술대학과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기관, 문화재단, 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 및 인력 지원

◆ 지원사업 예시

- ◆ 지원규모 : 10개 대학 선정, 약 5억원 내외 지원
- ◆ 지원조건
 - 반드시 1개 이상의 예술대학이 참여해야 함
 - 민간예술단체 및 기업, 문화재단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에서 20%정도의 추가 혜택이 있음 (협업을 적극적으로 권장)
 - 시설 조성 후 사용에 대한 협약은 컨소시엄 구성팀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어야 함
- ◆ 지원내용 : (아래 예시 외에도 다양한 협업 유형 가능)
 - 공공 자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독립 기획형으로 지역사회 및 타교 학생들과 공유하여야 함. 단 강의실, 실기실과 같은 기본 교육시설의 경우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공유 자원에서 제외함

① 독립 기획형

- 예술대학이 교내에 필요한 특화 자원 설치하고 단독 관리/운영하는 방식

독립 기획형	예술대학 (자부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부담 비율	70%	30%

② 공유대학 기획형

- 예술대학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설 투자하고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는 방식

공유대학 기획형	예술대학 A	예술대학 B	문화체육관광부
부담 비율	예술대학 A 25%	예술대학 B 25%	50%

③ 민간 기획형

- 예술대학과 민간예술단체와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학 내외의 문화예술 시설에 공동 투자하고 연계 관리/운영

민간 기획형	예술대학	민간예술단체, 기업	문화체육관광부
부담 비율	20 %	30%	50%

[표4-11] 예술대학과 지역문화기관과의 협력 사례 - 미국 트리니티 레퍼토리 컴퍼니 / 동아방송예술대 산학 협동 스튜디오 콤플렉스



트리니티 레퍼토리 컴퍼니(Trinity Repertory Company)는 미국의 대표적인 지역극장으로서 2001년 브라운 대학(Brown University)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Brown/Trinity Rep의 3년제 MFA 학위를 개설함
트리니티 레퍼토리 컴퍼니가 위치한 로드 아일랜드 주의 프로비던스 시내에서 브라운 대학 캠퍼스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미국 지역 극장 중에서 몇 남지 않은 상주극단을 유지하고 있는 극장인 트리니티의 단원들이 브라운대학의 수업을 진행함



종합 콘텐츠 기업인 아센디오와 동아방송예술대학교(DIMA)는 4만평 규모의 원스톱 스튜디오 콤플렉스 개발 사업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중
원스탑 스튜디오 개념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제작 스튜디오, 버추얼 스튜디오, 야외 오픈 스튜디오는 물론 숙박시설, 체험, 전시공간 등 기타 부대시설을 갖춘 계획, 2027 개관예정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실습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양질의 교육과 발전을 위해 산-학 간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







2) 예술대학(예비예술인) 수업 및 창·제작 활동을 위한 장비 공유

- ◆ 예술대학(예비예술인) 수업 및 창·제작 활동에 위한 장비를 구비하고 예비예술인들이 자유롭게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 예술대학(예비예술인)을 위한 장비(소프트웨어 포함) 구입, 대여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부서를 지정하고(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예술대학 재학생과 졸업 후 예술현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졸업생(졸업한 지 3년 이내)까지를 지원함
- 전국 예술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술대학 수업과 창·제작 활동에 필요한 어도비 프로그램, 캐드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지원
- ◆ 지원사업 예시

지원 내용

- 예술대학(예비예술인) 장비 공유랩 운영비 지원
- 예술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졸업한 지 3년 이내)을 대상을 대상으로 함
- 어도비, 캐드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제공
- 3D프린터, 편집장비 등 시설 이용 지원
- 영상 촬영장비 등 대여

[표 4-13] 창·제작 장비/시설 대여 사례 -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p>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는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도자재단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2019년 11월 국내 최초 공예창작지원센터를 조성함</p> <p>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는 2,200㎡ 규모로 도자공방, 유리공방, 목공방, 금속공방 등 제작공방 4개소와 디지털 창작실 1개소, 창업실 등으로 구성. 공예창업, 공예심화교육, 디자인 개발, 디자인 보호사업, 시제품 개발, 장비사용 등을 지원하며, 원스톱 플랫폼과 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향하고 있으며 장비대여와 시설대관 사업도 진행중에 있음</p>					
					
유료	유료	유료			
UV 프린터	CNC 조각기	레이저 조각기			
5,000원/시간	10,000원/시간	5,000원/시간			
					
유료	유료	유료			
금속공방	유리공방	도자공방			
5,000원/일	5,000원/일	5,000원/일			

3.4.4 예산 편성

사업명	추진연도 예산액(백만원)					비고
	1개년	2개년	3개년	4개년	5개년	
1. [매칭형] 고등예술교육 특화 시설 개선 지원						
- 연 6억, 5개년 30억						
	600	600	600	600	600	
2. 고등예술교육 특화 자원 공유 지원						
- 연 4억, 5개년 20억						
	400	400	400	400	400	
합계	5,000					

3.4.5 추진 계획

- ♦ 사업설명회 개최
- ♦ 예술대학 연계 창·제작 인프라 협력 지원 사업 통합 공모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예술대학 장비 공유랩 설치 및 운영
- ♦ 사업 진행 및 모니터링, 성과관리

내용	0개년		1개년				2개년				3개년				4개년				5개년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고등예술교육 특화 시설 개선 지원																						
-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 공모																						
- 사업 진행 및 모니터링, 성과관리																						
2. 고등예술교육 특화 자원 공유 지원																						
- 전담 기관 선정 및 인력 배치																						
- 장비 구입,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장비 개선																						
- 사업 운영																						

※ 장비 구입 및 개선은 2년 주기로 진행함

3.5 예술대학의 교육커리큘럼 혁신 지속과 적용

3.5.1 사업 개요

- ◆ 사업명: 예술대학의 교육커리큘럼 혁신 지속과 적용
- ◆ 사업목적
 - 혁신교육원/연구소 등의 설립을 통해 예술대학의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체계/지원 제도 마련
 - 산학연계 창·제작 수업 활성화를 위한 캡스톤 프로그램 설계·운영 지원
- ◆ 지원내용
 - 예술대학 예술교육과정 혁신교육원/연구소 설립 및 연구 지원
 - 산학연계 창·제작 수업 지원
- ◆ 지원대상 : 전국 예술대학, 예술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문화예술단체 등
-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지원규모 : 총 80억 원 (5개년)

3.5.2 사업 배경

- ◆ 혁신교육원/연구소 등의 설립을 통해 예술대학의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체계/지원 제도 마련
 - 동시대 예술의 경향에 맞게 융합, 복수 전공 이수 등 학사제도 개편 필요
 - 고등 예술교육의 미래 패러다임을 위한 기초연구, 예술기술 융합을 위한 기술개발 [특정 창작물, 특허권, 저작권 개발] 등 연구 지원
- ◆ 기존 캡스톤 프로그램 등과 같이 예술현장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덕션 수업 지원

〈문화예술분야 예비인력 커리큘럼 개발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7년에 비해 기획 및 체험형 교과목이 다수 개설되었고, 현장과의 연계 교과목인 현장실습/인턴십도 늘어나는 추세인 점은 긍정적인 성과임. 그러나 대부분의 응용교과목이 캡스톤, 현장실습 등 체험형 교육에만 치중되어 기초지식을 선행학습할 이론 성격의 응용교과목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론 교과목의 이수 없이 진행되는 체험형 교육 또한 단기성·일회성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음¹⁴⁾

- 이 연구 보고에 따르면 캡스톤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1) 사전 준비를 위한 기초지식 선행학습용 강의를 필요하고 2) 단기성·일회성이 아니라 완결된 구조의 지속적 캡스톤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함
- 또한 상기한 보고서의 조사 결과로 보자면 캡스톤 프로그램은 각 전공별로 다음과 같이 개설되고 있음

14) 문화예술분야 예비인력 커리큘럼 개발방안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70쪽



3.5.3 사업 내용

1) 예술교육혁신연구소 설립 지원

- 2022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에 보면 집단 연구 카테고리에 연구소 지원이 있음
- 예술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BK21+ 사업에서 진행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집단연구 지원을 통해 '예술교육혁신연구소' 설립을 지원하여 무용/연극/미술/음악/국악 등 분야별 예술교육과정 뿐 아니라 장르간 융합예술교육과정을 고민하고 그 성과물을 예술대학 간에 공유하여 예술교육 과정의 혁신이 발생할 수 있도록 추동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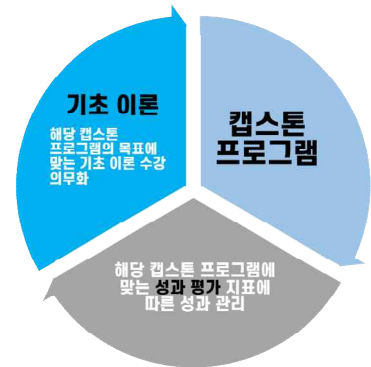
[그림 4-4] 2022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지원영역 지원유형	인문사회 기초연구	인문학 · 사회과학		한국학	
1. 개인연구	♦ 학문후속세대 (학술연구교수)				
	♦ 신진 · 중견연구자, 우수학자 지원 ♦ 명저번역 및 저술 · 출판			♦ 고전문헌 국역지원 ♦ 한국학대형기획총서	
	♦ 일반 공동연구 (2인 이상)				
2. 집단연구	♦ 인문사회연구소	인문학플러스(HK+)		♦ K-학술확산연구소	
		사회과학연구(SSK)		♦ 해외한국학	
3. 기반구축	인문학대중화	학술단체지원	우수학술도서	학술자원공동 관리체계	연구윤리

2) 캡스톤 프로그램 지원

[그림 4-5] 캡스톤 프로그램 예시

- ♦ 기초이론-캡스톤 프로그램-성과평가까지 총체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 필요할 경우 예술 분야 캡스톤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사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적 지원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프로그램 완료 후 교·강사가 참여학생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설계한 성과평가 지표에 맞게 진행한 성과 평가 결과 공유



♦ 지원사업 예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규모
예술교육혁신연구소 설립 신청대학	예술교육혁신연구소 설립지원 1개 연구소당 1억 * 6개	총 지원 대학당 1억 * 6개 = 6억
캡스톤 프로그램 운영 교·강사	1개 강의 당 1000만 원 지원 - 해당 교·강사는 ①개별 캡스톤 프로그램 관련 필요한 기초 이론 강의를 본인이 기획, 혹은 위에 언급한 예술기관의 온라인콘텐츠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강의를 설계하여 진행하고, 동시에 수강생들과 더불어 본 캡스톤 프로그램에 적합한 성과 지표도 직접 설계함 ②캡스톤 프로그램 운영한 뒤에 ③해당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에 따라 성과 평가를 진행함	총 지원 강의당 1000만원 * 100개 = 10억

3.5.4 예산 편성

사업명	추진연도 예산액(백만원)					비고
	1개년	2개년	3개년	4개년	5개년	
1. 예술교육혁신연구소 설립 지원 - 연 6억, 5개년 30억						
	600	600	600	600	600	
2. 캡스톤 프로그램 제작 지원 - 연 10억, 5개년 50억						
	1,000	1,000	1,000	1,000	1,000	
합계	8,000					

3.5.5 추진 계획

- ♦ 사업설명회 개최
- ♦ 예술대학 예술교육혁신연구소 공모
- ♦ 캡스톤 프로그램 제작 지원 공모
- ♦ 사업 진행 및 모니터링, 성과관리

내용	0개년		1개년				2개년				3개년				4개년				5개년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예술교육혁신연구소 설립 지원																						
-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 공모																						
- 사업 진행 및 모니터링, 성과관리																						
2. 캡스톤 프로그램 제작 지원																						
- 사업 설명회 개최																						
- 사업 공모																						
- 사업 진행 및 모니터링, 성과관리																						

3.6 예술대학 X 예비예술인 성장 지원사업 추진 계획

내용	0개년		1개년				2개년				3개년				4개년				5개년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예술대학 혁신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1)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예술계열지원 특별법 (가제) 제정																						
- 고등예술교육 지원법 기초 연구																						
- 입법 제정을 위한 공론장 진행																						
- 입법																						
- 고등예술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																						
2) 예술대학 실태조사																						
- 예술대학 실태조사 계획 수립																						
- 교육부, 관계기관 협조 요청																						
- 예술대학 실태조사 기간																						
- 조사 분석 및 결과 발표																						
2. 예술대학(예비예술인) 창·제작 현장 연계 지원																						
1) 현장 연계 창·제작(프로덕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 사업설명회 개최																						
- 지원사업 통합 공모 진행																						
- 사업 진행																						
- 쇼케이스																						
2) 예술대학(예비예술인) 졸업작품 제작 및 활동 지원																						
- 지원사업 통합 공모 진행																						
- 사업 진행																						
3. 지역사회 현장 연계 문화매개 인력 양성 지원																						
1) 지역사회 연계 캠퍼스 예술 인턴십 지원																						
- 사업설명회 개최																						
- 지원사업 통합 공모 진행																						
- 사업 진행																						
- 성과 공유																						
2) 문화예술분야 매개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설명회 개최																						
- 지원사업 통합 공모 진행																						
- 사업 진행																						
- 성과 공유																						
4. 고등예술교육 특화 자원(인적/공간/장비) 지속적 투자 협력																						
1) [매칭형] 고등예술교육 특화 시설 개선 지원																						
-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 공모																						
- 사업 진행 및 모니터링, 성과관리																						
2) 고등예술교육 특화 자원 공유 지원																						
- 전담 기관 선정 및 인력 배치																						
- 장비 구입,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장비 개선																						
- 사업 운영																						
5. 예술대학 교육커리큘럼 혁신 지속과 적용																						
1) 예술교육혁신연구소 설립 지원																						
-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 공모																						
- 사업 진행 및 모니터링, 성과관리																						
2) 캡스톤 프로그램 제작 지원																						
- 사업 설명회 개최																						
- 사업 공모																						
- 사업 진행 및 모니터링, 성과관리																						

연구수행기관 (주) 메타기획컨설팅

연구책임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사업본부 본부장
	강윤주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연구관리	김호정		메타기획컨설팅 사업본부 PM/전임 컨설턴트
연구원	방현		메타기획컨설팅 사업본부 주임 컨설턴트
	강희정		메타기획컨설팅 사업본부 실장/선임 컨설턴트
	이성민		메타기획컨설팅 사업본부 팀장/선임 컨설턴트
	박주현		메타기획컨설팅 사업본부 전임 컨설턴트

설문조사기관 (주)티브릿지코퍼레이션

예술대학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발 행 처	문화체육관광부
발 행 일	2022년 7월
컨설팅기관	(주)메타기획컨설팅
	전화 02.3673.4591
	팩스 02.6455.5480
	홈페이지 www.metaa.net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